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제주도 촌락 공간의 혼성화 연구  
-2010년 이후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양 지 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2024년 2월

# 제주도 촌락 공간의 혼성화 연구

-2010년 이후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지리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양 지 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오 상 학

양지혜의 지리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권상철



심사위원

손명철



심사위원

정광중



심사위원

고선영



심사위원

오상학



# 목 차

국문초록 .....	vii
I.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내용 .....	3
3. 연구 방법 .....	8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14
1. 이론적 배경 .....	14
2. 선행연구 검토 .....	28
III. 제주도 촌락 주민 구성의 혼성화 .....	38
1. 인구 유출과 지속가능성의 위기 .....	38
2. 인구 유입과 주민 구성의 변화 .....	50
3. 촌락 주민의 혼성화와 '마을 사람' 정체성 .....	59
IV. 제주도 촌락성 수행과 소속감의 혼성화 .....	66
1. 제주도 촌락의 촌락성 수행 .....	66
2. 제주도 촌락의 자생단체와 소속감 .....	74
3. 촌락성의 도시적 수행과 혼성화 .....	84
V. 제주도 촌락 경관의 혼성화 .....	93
1. 일상생활 경관의 변화 .....	93
2. 공동체 수행의 장소 .....	114
3. 촌락 경관의 혼성화 .....	122
VI. 요약 및 결론 .....	133

[참고문헌] .....	137
[부록] 주민 면담 질문지 .....	154
[부록] 면담·구술 자료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57
Abstract .....	159

## 표 목차

표 1. 제주 읍면지역 마을 구성 .....	5
표 2. 면담참여자 속성 .....	13
표 3. 국내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율 .....	40
표 4. 자생단체 회원 수 .....	44
표 5. 제주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예시 .....	56
표 6. 2021년 제주 읍면지역 외국인 인구 분포 .....	56
표 7. 지역별 리민 자격 부여 조건 .....	64
표 8. 하회마을 체험프로그램 .....	67
표 9. 제주도 촌락공동체 수행 연간 일정 예시 .....	68
표 10. 지역별 리민의 의무 부여 .....	88
표 11. 지역별 청구권 부여 조건 .....	91
표 12. 1960-80년대 제주지역 사회기반시설 구축 수준 .....	95
표 13. 제주지역 토지 지목별 변화 .....	96
표 14.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	109
표 15.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	110
표 16. 정부 부처별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사업 .....	128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	7
그림 2. 연구 대상 지역 .....	10
그림 3.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복수응답) .....	16
그림 4. 관광 홍보물 .....	17
그림 5. 공간 생산 삼항변증법(Lefebvre) .....	19
그림 6. 촌락 공간의 총체성(Halfacree) .....	20
그림 7. 촌락공동체의 구성요소와 동력 .....	24
그림 8. 국내 촌락 인구 변화 .....	38
그림 9. 제주도 농가 인구 피라미드 .....	41
그림 10. 촌락 지역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신청 사례 .....	44
그림 11. 고령 주민 대상 수행 사례 .....	45
그림 12. 마을 주도 인력부족 문제 해결 노력 .....	46
그림 13. 제주 농가 소득 변화(2010-2021) .....	49
그림 14. 제주도 촌락 인구 변화 .....	51
그림 15. 제주도 촌락 인구 피라미드 .....	51
그림 16.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	54
그림 17. 제주도 민간형 위케이션 현황 .....	56
그림 18. 포제 .....	70
그림 19. 송당본향당제(2019) .....	71
그림 20. 제주도 촌락공동체 행사 .....	73
그림 21. 마을회의 수행 .....	77
그림 22. 제주도 촌락의 자생단체 구성 .....	77
그림 23. 자생단체 환경 정비 활동 .....	78
그림 24. 전국 마을 내 활성화된 공동체 조직 현황 .....	79

그림 25. 제주도 촌락 내 참여권 확대 사례 .....	82
그림 26. 촌락성의 도시적 수행 .....	86
그림 27. 향약 명시 리민의 선거권, 청구권 부여 자격 내용 .....	91
그림 28. 제주도의 취락 지구 분포 .....	94
그림 29.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1) .....	95
그림 30.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2) .....	96
그림 31.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3) .....	98
그림 32.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4) .....	99
그림 33.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5) .....	101
그림 34-1. 한림읍 해안마을 경관 변화(2008) .....	102
그림 34-2. 한림읍 해안마을 경관 변화(2023) .....	103
그림 35-1. 구좌읍 해안마을 경관 변화(2008) .....	104
그림 35-2. 구좌읍 해안마을 경관 변화(2023) .....	105
그림 36.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6) .....	107
그림 37. 성산읍 중산간마을 생활서비스 여건 .....	112
그림 38. 마을 공간 인식 차이 .....	115
그림 39. 제주도 촌락공동체 장소(1) .....	116
그림 40. 제주도 촌락공동체 장소(2) .....	119
그림 41. 제주도 촌락 문화경관(1) .....	120
그림 42. 제주도 촌락 문화경관(2) .....	121
그림 43. 제주도 촌락 문화경관(3) .....	122
그림 44. 제주도 촌락 경관 혼성화(1) .....	123
그림 45. 제주도 촌락 경관 혼성화(2) .....	124
그림 46. 제주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현황(2023) .....	125
그림 47.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운영 .....	126
그림 48. 제주도 촌락 경관 혼성화(3) .....	127



그림 49-1. 한림읍 중산간 경관 변화(2008) .....	131
그림 49-2. 한림읍 중산간 경관 변화(2023) .....	132

# 제주도 촌락 공간의 혼성화 연구

## -2010년 이후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양 지 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 요약

현대의 글로벌 촌락들은 대내외적 자극을 경험하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획일적이기보다 지역의 고유성과 새로운 형식이 혼재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제주도 촌락 공간의 변화 양상 역시 글로벌 촌락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고유성을 유지하며 변화를 수용하고 절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포착된다.

본 연구는 제주도 촌락 공간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의 변화상을 고찰하고, 제주도 촌락 공간의 변화를 혼성적 변화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촌락 공간의 변화를 주민 구성, 공동체의 수행, 경관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촌락 내 주 행위자인 사람의 이주를 통해 촌락 공간 내에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크가 혼재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제주도 촌락공동체의 수행을 탐구하기 위하여 자생단체의 현황, 공동체의 실천을 통해 수행되는 역사적·문화적·현대적 수행을 살피고 그 의미를 포착하였다. 셋째로 재현된 경관을 통하여 촌락의 가시적·비가시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촌락 공간에는 2010년 이후 인구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주민과 네트워크가 혼재되어 있다. 이들은 촌락 공간 내에 도시적 특징을 유입시킴으로써 촌락의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일부에서는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촌락 내부에서도 변화를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촌락은 혼성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촌락 공간 내 주민의 고령화와 감소는 촌락성의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의 감소를 의미하며 수행에 있어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촌락공동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각 구성원은 자생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함으로써 소속감과 정체성을 획득한다. 인식의 변화와 주민 구성이 혼성화됨에 따라 촌락 공간의 수행은 전통적인 형식이 점차 완화되고 도시의 형식을 수용하기도 하며 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 수행이 만들어지기도 하여, 공동체의 수행에서도 혼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촌락의 경관은 촌락의 다각화라는 대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혼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촌락의 일상경관은 현대화, 도시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동시에 관광산업화를 위한 경관은 고유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며 토지 이용이 변화하고 제주도의 촌락성을 대표하는 자연경관들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경관에서도 혼성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촌락 공간은 2010년 이후 주민 구성에서, 공동체의 수행 측면에서, 경관의 재현에서 도시적 특성이 혼재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혼성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도 촌락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도시적 인식과 방법을 수용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용하는 등 절충하는 ‘뒤섞이고 일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혼성적 촌락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제주도 촌락을 대상으로 촌락 공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을 통하여 촌락 공간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접근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며, 이 연구가 국내 촌락 지리학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제주도, 제주도 촌락, 혼성화, 2010년 이후.

# I.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현대 촌락들은 지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스케일에서 급속한 대내외적 변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농·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각종 규제가 지방 행정·중앙정부의 수준을 넘어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국제 거버넌스 체제로 확대되었다. 각각의 세계적 촌락들은 자국의 농업 생산 경쟁력 저하와 그에 따른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탈지역화된 글로벌 스케일의 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촌락의 산업구조에서 여전히 농·어업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연계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또 이상 기후로 농산물의 생산량과 상품의 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 폭락 또는 폭등이 나타나 물가와 농가 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 속에서 비숙련부문 제조업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촌락을 상품화하는 경향으로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성장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촌락 인구의 유출과 역도시화와 귀농·귀촌 현상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촌락공동체는 주민 구성의 다변화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촌락성의 수행 상황이 변화하고, 촌락 공간의 탈영역화, 사회·공간적 분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박경환, 2020).

제주도 촌락 또한 일자리 부족,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문화로 인한 갈등, 그리고 도시에 대한 열망 등으로 인구의 유출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유입과 귀농·귀촌 현상으로 인해 촌락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촌락 공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제주도 총인구는 1992년 50만 명을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6년 만인 2013년에 60만 명을 돌파했

고, 이후 9년 만인 2022년 8월에 7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의 양적 증가는 제주 시내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의 촌락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국내 상황에서 제주도 촌락 인구의 증가는 이례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인구 변화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전환을 맞았는데,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사회 트렌드의 변화로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이주민의 유입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9). 이러한 변화는 제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2016년 제주의 한 읍·면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제주도 촌락은 대외적 글로벌 스케일의 1차 산업 규제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신제품 개발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되었다는 의미에서 6차산업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촌락을 이와 같은 산업의 형태, 경제적인 구조, 인구 밀도만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촌락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향유하고 고유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형성·유지하며, 공동체적 실천과 수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스케일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촌락의 사회문화적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각 촌락공동체는 대외적인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획일화의 방향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변화를 수용하고 절충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도 촌락공동체는 대내외적으로 자극을 경험하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도 촌락의 변화 방향은 요인 간 인과적으로 또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며 때로는 상호보완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제주도 촌락의 변화 양상 또한 글로벌 촌락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고유성을 유지하며 변화를 수용하며 절충하는 방식으로, 촌락의 성격과 도시의 성격이 혼재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서구의 촌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에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변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개별 촌락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화가 어렵고 부차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케일의 촌락 일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며, 촌락 공간 네트워크의 상호 영향을 파악하고 각 개별 공간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도 있다. 근대화 이후 촌락 연구는 기술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즉 인구 규모, 행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표와 경관과 토지 이용 등에서 도시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촌락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이전, 2011). 그러나 현대의 촌락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적 특성을 수용·변용하고 있어 오늘날 촌락 주민과 도시 주민 사이에 생활양식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상대적 비교를 통한 접근으로는 촌락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졌다. 또한 지금의 촌락은 고유성만을 강조하며 지역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 거버넌스 체제에서 글로벌 촌락의 한 부분으로 상황과 입장이 해석되어야 한다. 때문에 최근의 촌락 연구는 촌락의 변화와 역동성, 촌락의 혼성화와 촌락과 도시 간 상호작용과 융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추적하고 혼성화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에 있다. 촌락의 형성과 발달, 입지와 형태, 구조 및 기능에 초점을 두고 도시와 구분되어 진행되어 온 기존의 국내 촌락지리 연구와는 다르게, 촌락 변화의 경험, 과정, 반응을 살피는 서구 촌락지리 연구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최근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혼성화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와 내용을 선정하였다.

## 2. 연구 범위와 내용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읍·면 지역의 촌락이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섬이라는 지형적·지리적 특징으로, 소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해왔으며 외부의 문화가 제주도내로 유입되는 시간차가 존재하여 타지역에 비하여 변화가 지체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4.3사건,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 그리고 산업기술의 발달, 도시화와 제주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국가정책의 추진 등으로 인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주도에 타지역의 사람, 자본, 문화, 사상이 유입되었다. 때문에 제주도에 고유의 것과 유입된 것, 촌락적인 것과 도시적인 것이 혼재되어 왔다. 지금의 제주도를 보더라도 인구의 유입이 꾸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산업의 기여도와 지역 선호도,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보면 제주도는 도시적 특징을 일부 보인다. 그러나 경제시장의 규모와 의존도, 생활서비스 여건, 경관적 요소와 고유 문화의 성격의 측면에서 촌락성을 지니고 있어, 제주도는 도시성과 촌락성의 혼성화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촌락은 생활공동체의 최소 단위였으며 행정 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최종의 행정 단위였다.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행정리 단위를 ‘우리 마을’로 규정하고 있다. 오랜 시간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행위가 그 지역 단위에서 누적되고 유지되어 왔으므로 주민들은 행정리를 마을의 단위, 촌락공동체의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신행철, 1995a). 때문에 행정리 단위로 마을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향약 또는 규약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주도 마을들은 마을 명의를 대지나 건물, 오름 등의 공동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어촌계가 있는 해안 마을은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 공동 어장 및 양식 어장의 전용 권한을 갖기도 한다. 이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향약에는 의결권, 청구권,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 촌락에서 행정리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단위의 성격을 가지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견고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과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포함되었다. 이로써 현재 제주도에 군(郡) 행정단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 지역을 제외하고 7개 읍, 5개 면이 있다. 제주시에는 4개 읍, 3개 면이 편제하며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이 속한다. 서귀포시에는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이 속하며, 3개 읍, 2개 면이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12개 읍·면 지역에 133개 법정리, 172개 행정리가 편제하여 있다(표 1).

표 1. 제주 읍면지역 마을 구성

행정구역	행정리	법정리	자연마을	면적(km <sup>2</sup> )	세대	인구	
읍면지역	172	133	480	1338.60	95,697	204,433	
제주시	애월읍	26	24	66	202.16	17,491	38,738
	한림읍	21	15	56	91.22	10,689	24,085
	한경면	15	13	51	79.10	5,102	9,908
	구좌읍	12	12	60	185.93	7,994	16,036
	조천읍	12	10	50	150.68	11,882	26,330
	추자면	6	5	9	7.05	939	1,850
	우도면	4	4	12	6.18	902	1,693
	소계	96	83	304	722.32	54,999	118,640
서귀포시	대정읍	23	13	50	78.63	10,893	24,020
	남원읍	17	9	48	189.08	8,816	19,140
	성산읍	14	12	29	107.82	8,236	16,766
	안덕면	12	10	19	105.58	6,458	12,923
	표선면	10	6	30	135.17	6,295	12,944
	소계	76	50	176	616.28	40,698	85,793

주: 외국인 포함, 2022년 12월 31일 기준. 행정리 순으로 정렬.

자료: 제주통계포털 제주인구현황, 2022, 각 읍면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촌락의 변화와 그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국내 촌락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의 촌락은 법령에서 읍·면 지역으로 공통적으로 정의<sup>1)</sup>하고 있으며, 행정적으

1) 법령에서는 ‘촌락’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농촌, 어촌, 농어촌, 농어촌마을’을 사용하며, 주민의 대다수가 생업으로 종사하는 주요 산업과 행정구역에 따라 촌락을 구분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3조 제5호에서는 농촌을 ‘읍·면의 지역’ 또는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 어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3조 제6호에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읍·면의 전 지역’과 ‘동일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 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270조에서 ‘읍·면의 지역’과 ‘동일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또는 ‘도지사가 도 조례를 근거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읍(畝)과 면(面)의 지역을 촌락으로 정하고 있다.



로 관련 자료나 통계 또한 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수집·제공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는 82개 군(郡), 234개 읍, 1,178개 면이 편제하며, 본 연구에서는 읍·면 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촌락과 제주도 촌락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내 산업화 시기 이후를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특히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현재로 한정하였다. 2000년을 전후로 국내에서는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도보여행, 마을관광 등과 같은 생활 방식과 노동관, 여행 방식의 변화가 사회문화적으로 논의되었고, 이는 촌락에 대한 관심, 촌락 지향으로 표출되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관심과 지향이 실천·표현되어 촌락으로의 인구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제주도 촌락을 비롯한 국내 일부 촌락의 인구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인구는 일차적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지만, 인구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시에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산물이다(염미경, 2011). 촌락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촌락 주민 구성은 다양화되었고, 이는 촌락의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주민 구성의 질적 변화는 촌락의 수행과 경관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임과 동시에 상호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제주도 촌락 공간의 변화상을 고찰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세부 시간적 범위를 2010년 이후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맥락적·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촌락, 촌락성, 촌락공동체, 혼성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촌락의 변화 연구를 위해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국내외 촌락지리 연구 동향과 성과를 살피고, 관점과 개념,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로 제주도 촌락의 주민 구성, 공동체 수행과 소속감, 경관의 측면에서 제주도 촌락의 변화상을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변화상 검토를 위해 통계 데이터, 문헌자료와 함께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주민 면담을 실시하여 통계적 수치 이면의 주민 생활양식의 변화, 의미와 감정, 맥락의 변화를 살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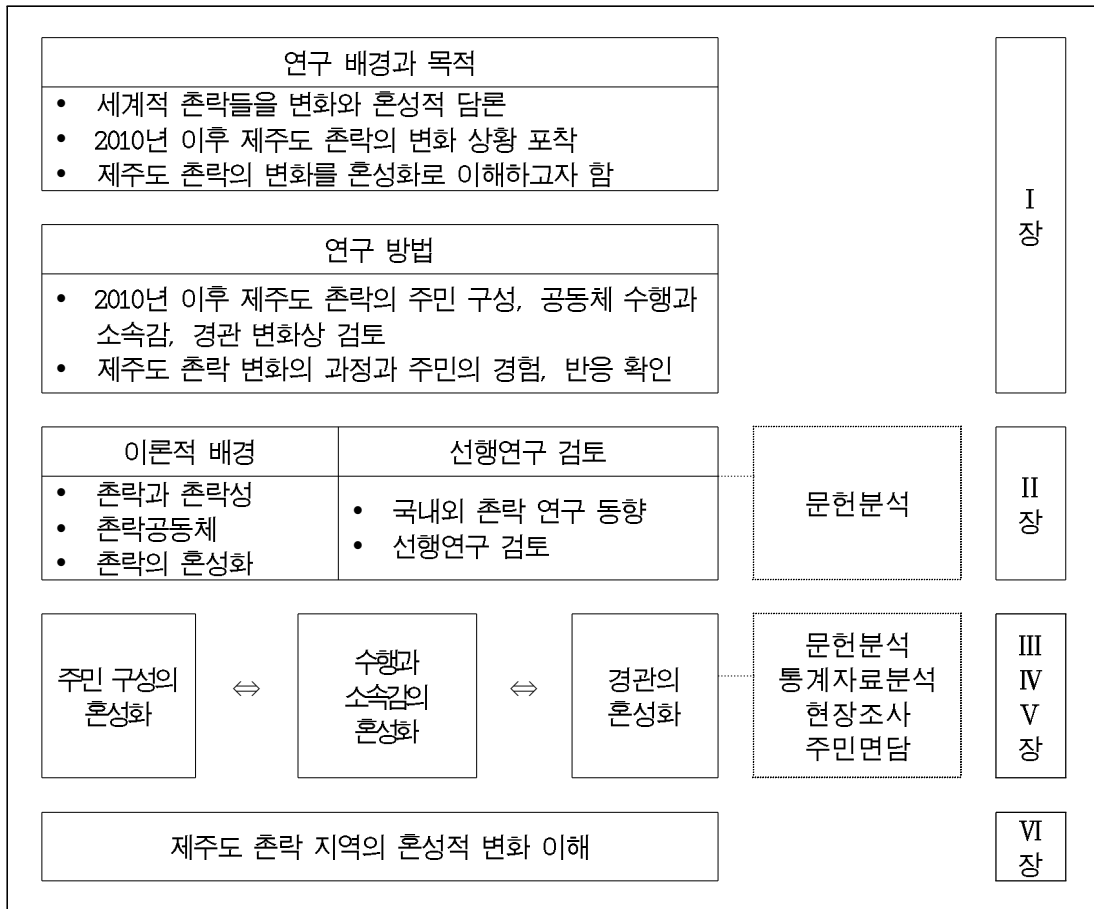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흐름도

주민은 촌락 공간 생성의 주체이자 촌락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주민 구성의 양적·질적 변화는 촌락 공간 생성과 촌락공동체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제주도 촌락 공간에서 주민 구성의 변화는 발전과 기회의 요인이자 갈등과 위기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 구성의 양적·질적인 변화를 통계 자료와 면담으로 살펴보고, 실제 촌락 공간에서 주민 구성의 다변화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쇄적 변화의 과정을 주민들의 일상담론을 통해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도 촌락 자생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체에 의해 실천되는 역사적·사회문화적 수행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는 촌락의 구체적 장소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실천, 곧 수행에 집중하여 촌락을 역동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재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촌락성의 수행이 어떠한 의미를 생산하며 공동체의 유지와 고유한 지역성 보존에 영향을 주는지 살폈다. 제주도 촌

락의 수행은 개인적 차원에서보다 대체로 자생단체, 공동체의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어 이를 집단에 대한 소속과 소속감의 차원에서도 해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촌락의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적·물리적 구성물인 경관을 살펴보았다.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한 촌락의 일상생활 경관과 공동체 수행의 장소 변화를 확인하고, 글로벌 스케일의 획일적 변화와 고유한 특성이 공존하는 제주도 촌락 공간 변화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I 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과 면담참여자 구성을 설명하였으며, II 장에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촌락 연구의 동향,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III 장에서는 제주도 촌락 주민 구성의 혼성화를, IV 장에서는 제주도 촌락 수행과 소속감의 혼성화, V 장에서는 제주도 촌락 경관의 혼성화를 문헌과 통계, 주민 면담을 통해 살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요약과 결론은 VI 장에 담았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제주도 촌락 공간의 변화, 특히 주민 구성과 수행, 소속감의 변화를 해석하고 재현된 촌락 경관의 변화 탐구를 통해 제주도 촌락 공간의 혼성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촌락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촌락에 대한 이해 방식으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따라 양적인 자료를 활용한 분석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즉, 작물 생산, 토지 크기, 비료 사용, 농가 소득, 농장 규모, 인구 수, 인구 밀도, 토지 이용, 도시 중심으로의 근접성과 같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수치 지표를 통해 촌락 공간에 대한 표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촌락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의는 주민들의 가치와 행태, 그리고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토대로 촌락과 도시의 구분을 통해 해석되었다. 촌락과 도시 간의 사회적 연대의 차이에 기반을 둔 퇴니스(Tönnies)의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 게젤샤프트(Gesellschaft)’, 뒤르켐(Durkheim)의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 :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의 대비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사회·문화적 정의는 촌락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설정한다는 점, 도시와 촌락 사회의 간극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 도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한 후 이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지역을 촌락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또 촌락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 촌락은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등질의 지역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권상철 외 역, 2014).

1980년대 말 인문지리학과 사회과학은 ‘문화적 선회’(cultural turn)의 흐름 속에서 문화를 담론의 산물로서 새롭게 이해하려 시도하였다. 문화를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문화는 끊임없이 경합되고 재협상되는 구성적 산물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문화지리학자들은 장소의 의미와 공간 관계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정체성, 재현, 소비와 같은 개념들을 선택하였으며, 촌락 연구에서 주민들의 경험을 검토하는 변화가 나타났다(진종현, 2013; 권상철 외 역, 2014). 문화 연구는 사회, 권력, 지배, 저항, 양식(style), 소비, 이념 등을 강조하며 198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리의 변화가 문화 생산 변화의 조건이 되고 반대로 문화 생산의 변화로부터 지리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신문화지리학 분야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탐구하였으며, 문화를 사회적 관계가 구조와 형상을 갖추어 공간과 장소로 구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류제현, 2013). 바꾸어 말하면 공간과 장소 즉, 경관은 지표 위 물리적 구성물인 동시에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적 구성물(진종현, 2013)이며, 경관에 재현(representation)된 문화를 해석하는 것을 신문화지리학 연구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현적 접근은 문화적 실천을 해석하는 도구의 개념을 넘어, 경관 대상의 의미를 고착화하고 해석의 주체에 과도한 담론적 권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판에서 등장한 비재현(non-representation)이론은 1990년대 후반 인문지리학에서 주목을 받았다. 비재현적 접근 방식은 경관의 의미와 가치 해석보다 구체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실천에 관심을 두고 육체적 실천인 표현(expression), 곧 수행(performance)에 집중하였다(진종현, 2013). 이러한 방식은 촌락 연구에서 촌락성에 대한 수행을 검토함으로써 촌락을 공간적으로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려는 사고를 넘어설 수 있게 하였다.

촌락에 대한 일상적 담론은 ‘농촌 사람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사용하고 직면하는 모든 의도적·비의도적 소통방식’으로(박경철 외 역, 2016, 52-53), 이 접근 방식은 촌락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생성하여 농촌을 보다 구체적·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경험에 의해 그리고 주민들의 연령, 성별, 민족, 사회적 계급, 교육, 주거 내력 등을 반영하여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어떤 형태의 재현된 표상보다도 촌락을 해석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자료를 통한 변화 추적 및 검토, 즉 양적 연구와 현지 조사·주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공개된 각종 통계자료와 통계정보시스템, 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였으며 국내외 촌락 연구 논문과 보고서, 행정기관의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지조사와 주민 면담을 실시하여 촌락 공간에 재현된 경관을 살피고 주민의 실천·경험을 검토하고 현재 제주도 촌락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주도 촌락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위하여 기술적, 사회문화적 접근, 재현적·비재현적 접근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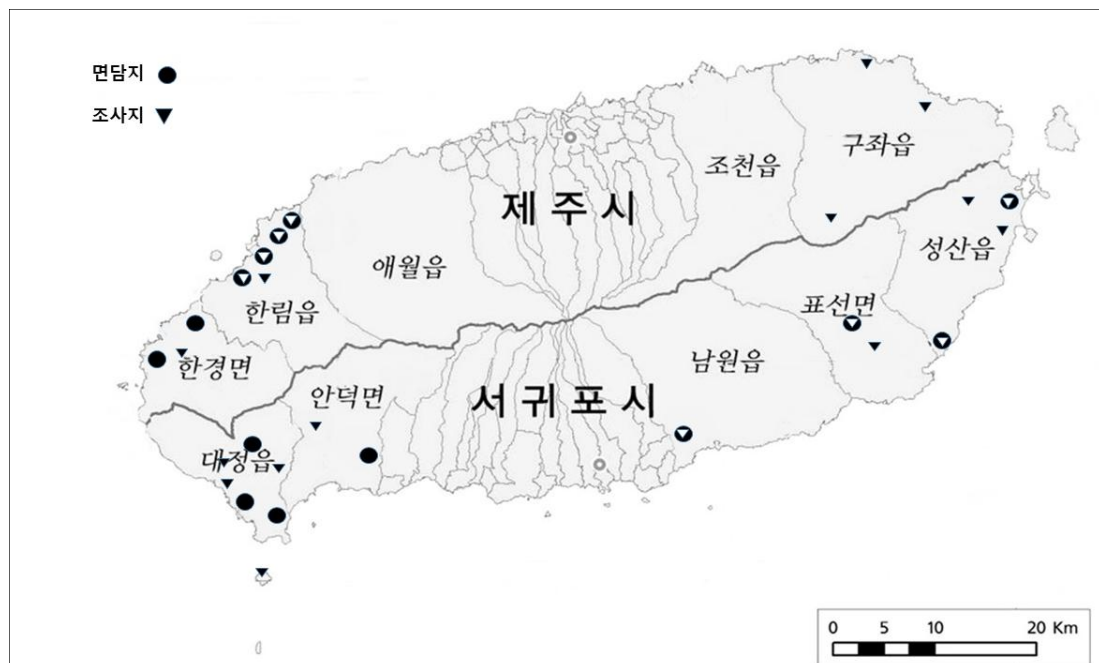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대상 지역

자료: 연구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촌락지역 8개 읍면의 27개 행정리<sup>2)</sup>를 대상으로(그림 2),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비정기적으로 면담과 현지 조사, 경관 촬영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은 제주시 동지역과 인접하여 여건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측면이 많아 조사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면담은 해당 행정리에 실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지 조사는 리 사무소 또는 마을기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마을 정보의 수집과 마을 경관 촬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과 조사를 함께 진행한 마을은 8개 행정리, 면담만 진행한 행정리는 6개이며, 현장조사만 진행한 행정리는 13개 리였다.

면담참여자 선정에는 14개 마을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지역 이장의 추천과 자생단체 활동 경험, 종사하는 생업활동의 종류, 이주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농산물 수확철 등의 상황으로 면담참여자 섭외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앞의 조건을 전제로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면담질문지(부록)는 비구조화되고 개방된 질문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제주도 촌락에 정주하는 주민의 생활 경험, 주민 구성의 변화와 공동체 수행, 경관의 변화, 생활서비스 이용 편의, 정주민족도 등을 질문하였다<sup>3)</sup>. 면담질문지는 면담참여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구술 내용을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면담참여자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1대 1 개별 면담 방식과 1대 다수의 집단 면담으로 비형식적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면담 및 구술자료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 정보 및 민감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다. 대체로 1회 약 2시간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참여자에 따라서는 면담 내용 재확인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 전후 상황 비교를 위해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2) 21개 마을에는 본 연구를 위해 현지 조사 및 면담을 실시한 마을과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지 조사와 면담을 수행한 지역문화컨설팅(문화체육관광부), 제주형 마을만들기 컨설팅(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 컨설팅(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록화 사업(제주학연구센터)의 대상마을을 포함하였다.

3) 질문 중 '삶의 질과 사회서비스'에 관련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과 정주민족도 조사표'(김태완, 2021)를 일부 참고하였다.

표 2. 면담참여자 속성

마을 구분	주민	성별	이주(*) 년차	연령대	생업
A	01	M		60대	농업
	02	F		50대	사무직 / 농업
	03	F	9년차	40대	강사
	04	F		80대	농업 / 어업
	05	F		40대	사무직
B	06	M		70대	어업
	07	F		90대	어업
	08	M		50대	양식장 / 농업
	09	M		80대	농업 / 어업
C	10	F	7년차	60대	자영업
	11	M		50대	농업
	12	M		40대	자영업 / 농업
	13	F	6년차	40대	자영업
D	14	F		50대	사무직
	15	M	2년차	60대	자영업
E	16	F	4년차	40대	사무직
F	17	F	20년차	60대	노무직
G	18	F		60대	노무직 / 농업
H	19	F		60대	농업
	20	M	8년차	50대	예술인
I	21	M	4년차	40대	영상감독
J	22	F	4년차	40대	작가
K	23	F	5년차	40대	주부
L	24	F		40대	농업
M	25	F	9년차	40대	예술인
N	26	F		50대	은행원

자료: 현장조사에 의해 연구자 작성.

면담참여자는 총 26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9명, 여성 17명이고, 이주 여부로는 토박이 주민 15명, 이주민 11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10명, 50대 6명, 60대 6명, 70대 1명, 80대 2명, 90대 1명이었다. 면담참여자의 생업활동은 농업, 어업을 비롯하여 자영업, 사무직, 노무직, 주부, 예술인 등으로 다양하였다(표 2). 본문 중 면담참여자 구분은 기호화하여 제시하였다. 면담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일부 면담의 내용 중에는 면담참여자가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면담

에 동의하고 구술해 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담참여자의 거주 지역, 나이, 성별, 이주 여부, 이주 연차 등 특성 차이에 상황적·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본문 또는 각주에 특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1. 이론적 배경

#### 1) 촌락과 촌락성

한자어 촌락(村落)은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을 의미한다. 촌락에 해당하는 우리말 ‘마을’도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되는데 전통사회에서 마을은 주로 마실을 다닐 정도로 가까운 거리의 촌락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이해되었다(김성균·이창언, 2015).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간이며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웃해서 살아가는 가까운 거리의 물리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현대의 촌락은 이렇게만 정의하기는 어렵다. 도시의 생성과 함께 촌락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도시와 대척점에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랜 역사적 내력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시적인 것과 촌락적인 것, 도시와 시골을 구분짓는 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sup>4)</sup>.

촌락을 상상했을 때, 대체로 촌락은 자연환경과 전통적 가치가 보전되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그려진다. 또 한편으로는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공간으로도 그려진다. 상대적으로 도시는 고층의 빌딩과 대단지의 주거시설, 양질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곳이나 한편으로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삭막한 공간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언론,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일부 촌락의 형상일 뿐, 각 개별 촌락과 도시는 각기 다른 형태와 매력을 가지고 있다.

---

4) 윌리엄스(Williams, 1973)는 도시적인 것과 촌락적인 것의 의미에 대해 “시골과 관련해서는 자연적인 생활방식이라는 관념이 내포되어 왔다. 여기에는 평화, 천진난만함, 소박한 미덕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반면 도시에는 지식, 소통, 빛과 같이 일종의 성취의 중심이란 관념이 내포되어 왔다. 한편 시골과 도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적대감도 형성되어 왔다. 가령 도시는 소음, 세속, 야망의 장소로서, 그리고 시골은 후진성, 무지함, 한계의 장소로서 인식되어 왔다. 근본적인 생활방식으로서 도시적인 것과 촌락적인 것의 대립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권상철 외, 2014: 4-5, 재인용).

촌락은 통일된 기준에 맞추어 인구 밀도나 경제 수치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촌락이라는 용어는 상황적(situated)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촌락은 지리적으로 구획된 공간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고정된 형태의 공간이 아니다. 모든 촌락은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가 다르고 인구 밀도, 정주방식, 생활양식도 다르다. 촌락 주민들의 경제 활동, 의식주 방식, 생활방식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서로 다른 복수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서로 다른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촌락성(rurality) 또한 한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여기서 촌락성은 촌락적인 것, 곧 특정의 지역을 촌락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성질 또는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촌락성은 개인적 경험과 지식, 선입견 등을 바탕으로 생성된다. 누군가는 촌락을 생산의 장소로 상상하고 누군가는 소비의 장소로 상상할 것이다. 그리고 혹자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거주지 장소이면서 당장에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고, 누군가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유토피아적 공간을 촌락으로 상상할 수 있다. 또 개별적인 경험에 따라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해가 충돌하며 비수용적이고 배타적인 곳을 촌락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촌락 또는 시골로 인식하게 되면 ‘촌락은 원래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골이니까’라는 생각에서 촌락의 생활양식에 대한 당위적 관념을 갖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촌락은 개인마다 상이하게 가지고 있는 촌락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재현(social representation)된 구성물로 정의할 수 있다(권상철 외 역, 2014).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담론의 영향으로 촌락은 오랫동안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포착되는 경우가 많았다(정암 역, 2015). 촌락의 기능이라 함은 촌락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근거지를 ‘농촌’이라 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업 혹은 양식업, 수산 가공업, 천일제염업에 종사하는 촌락은 ‘어촌’, 그 외 임업촌, 광산촌 등으로 촌락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촌락이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이전, 2011). 촌락은 먹거리 생산과 환경보전, 여가 활용, 문화적·교육적 가치 보존과 계승의 기능을 전담하는 장으로 그 성격을 부여받았다. 안타깝게도 촌락

을 이러한 기능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보다 상징적, 공간적 차원에서 촌락에 대한 재현이 실제의 촌락을 압도함으로써 지리적 상상으로서의 촌락성을 더욱 중요시되게 되었다(박경환, 2020). 그 결과 촌락의 모습을 고정적으로 재현하여 도시민과 촌락의 주민들에게 촌락이 체제 안에서 기능을 하는 수단적 공간, 역동성이 사라진 곳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일례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촌락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정성 향상, 지역 활성화, 여가 공간 활용, 문화유산 보존·계승, 환경 보전, 경관 보전’을 보기 항목으로 하는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을 질문하고 있다(그림 3)<sup>5)</sup>. 이 조사 항목은 촌락에 대한 국가의 관점이 기능적, 수단적 공간으로 촌락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응답자로 하여금 촌락을 몇 가지 기능에 한정된 공간으로 상상하게 하고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보이게 한다. 더불어 촌락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농민, 촌락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림 3.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복수응답)

자료: 김동훈·박혜진, 2023, 수정 인용.

게다가 각 지자체와 정부 또한 촌락을 도시민들의 소비, 여가, 휴식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촌락을 기능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강화하고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총 2,578명에게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농업인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078명이었으며, 도시민은 제주 포함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하였다(김동훈·박혜진, 2023).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촌락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치 관광, 둘레길 걷기, 농촌체험, 문화유산관광, 지역 축제 등 지역의 자원을 상품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그림 4). 이는 촌락의 경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경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또 촌락공동체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경관을 보존과 보전의 대상으로만 보는 한정적 관점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곧 촌락이 스스로 대내외적 변화의 과정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마련한 다각화 방안이다.



그림 4. 관광 홍보물

자료: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그러나 대체로 촌락성의 상품화 즉, 촌락성을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도록 하는 행위는 촌락의 주민들, 수행의 주체들의 관점이기보다 ‘관광객의 시선’<sup>6)</sup>이란 개념과 잇닿아 있다. 일시적으로 촌락을 방문하여 촌락의

6) 어리(Urry, 2002)는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의 변화에 주목하며,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관광객의 시선이란, 관광객이 특정 지리적 장소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재현하는 과정이다(조아라, 2013).

독자적인 경관, 분위기, 문화, 생산물, 서비스 등을 소비하는 관광객의 시선에 맞추어, 촌락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유자원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통 또는 문화유산 중 일부를 선택하며 장소를 변형시킨다. 이 과정에서 선택된 일부 내용의 전통 유산만을 재현하고 동시에 선택되지 못한 다른 내용들은 외면받으며(이영민 외 역, 2011), 상품화를 위해 선택된 전통 유산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가 온전히 전달되기보다 특정의 제한된 시점과 시기 내에서 상품화가 진행되어 역사의 부분적 재현들을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상품화를 위한 변형 과정에서는 일부 의미의 왜곡 또는 과장이 일어나 전통 유산과 지역성 이해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박경철 외 역, 2016).

촌락은 이러한 외부의 담론과 시선으로 규정된 기능과 역할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공간이다. 현대의 촌락은 상품을 생산하는 공간이면서 소비되는 공간이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경관의 보존과 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상품화 수행의 주체인 촌락의 공동체에게 이러한 수행들은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행위이지, 그것이 촌락 공간의 기능이자 역할로써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촌락은 자연 환경과 생활 경관, 그 안에서 만들어진 고유의 생활양식, 관행, 사고방식 등 고유의 촌락성과 지역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의 맥락 안에서 촌락과 촌락 간, 촌락과 도시 간, 촌락과 국가 간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매우 유동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촌락 공간 안에서 행해지는 구체적 상황과 실제 생활 경험은, 촌락성을 띤 지리적 공간으로 획일적으로 상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르페브르의 이론에 따르면 공간의 생성 자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촌락 공간을 공통되게 정의하기란 한계가 있다. 르페브르는 그의 공간 생성 연구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삼항변증법적 요소로 '공간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 재현 공간(representation space),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을 구상하였다(그림 5). 그는 공간이라는 것은 '인지되고(perceived)', '상상되고(conceived)', '경험되는(lived)' 것들 사이의 삼항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made up)' 것으로 보았다(David et al., 2005; 이영민 외 역, 2011). 여기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의 두 가지 형태는 '공간 재현(conceived)'과 '재현 공간(lived)'이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개입인 '공간적

실천(perceived)'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서우석, 1999; 최병두, 2018). 이에 따르면 촌락 공간은 인지되고, 상상되고, 경험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촌락 공간에서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미 재현된 촌락성에 대한 인지과 촌락성의 재현을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에 의해 촌락 공간이 생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간적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의 요소 중 어느 하나에라도 변화가 나타나면 생산되는 공간의 성격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성격의 공간이 생성될 것이며, 성격이 혼재된 혼성적 공간으로 변화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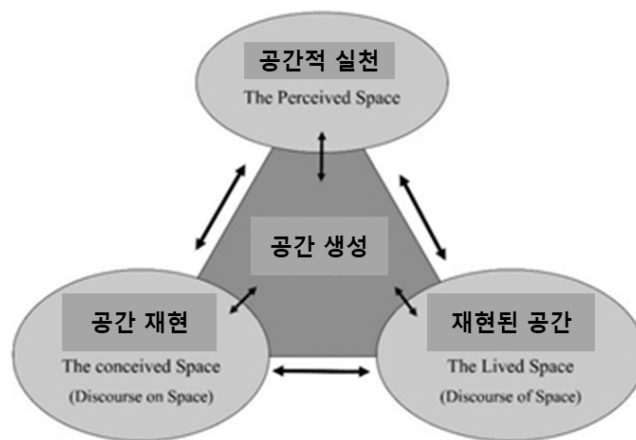


그림 5. 공간 생산 삼항변증법(Lefebvre)

자료: Ahmed et al., 2019: 183.

촌락을 정의하는 것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촌락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특정의 지역을 촌락이라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파크리(Halfacree, 2006)는 ‘촌락 공간 삼중 모델(a Three-fold model of rural space)’을 제안하고 관계적 촌락 공간을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총체성(totality)을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헬파크리는 촌락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촌락 지역(rural locality), 촌락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s of the rural) 그리고 촌락의 일상생활(lives of the rural)를 제시하였는데, 각 요소의 특성은 르페브르(Lefebvre, 1991)가 주창한 공간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헬파크리의 모델은 르페브르의 것과 같이 세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며 어느 한 요소도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그림 6).

헬파크리가 제시한 세 요소 중 ‘촌락 지역’(Rural locality)은 촌락공동체의 일상생활이 영위되고 촌락에 대한 재현, 다시 말해 촌락성에 대한 특정한 시각 그리고 담론이 실제화되는 산물이다. 또 ‘촌락의 일상생활’(Lives of the rural)에서 이루어지는 수행과 실천들은 촌락에 대한 재현 행위이면서 추상적 촌락 지역이 실재하도록 촌락성을 창조해낸다. 또 ‘촌락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s of the rural)은 촌락 지역과 일상생활을 통해 만들어지며 역으로 촌락 지역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촌락성을 획득하도록 한다(Halfacree, 2006). 즉, “촌락 공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분산된 요소들”(Halfacree, 2006: 44), 물리적 촌락 지역과 촌락에 대한 관념 또는 표상, 그리고 촌락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실천의 세 요소를 하나로 결합하여 촌락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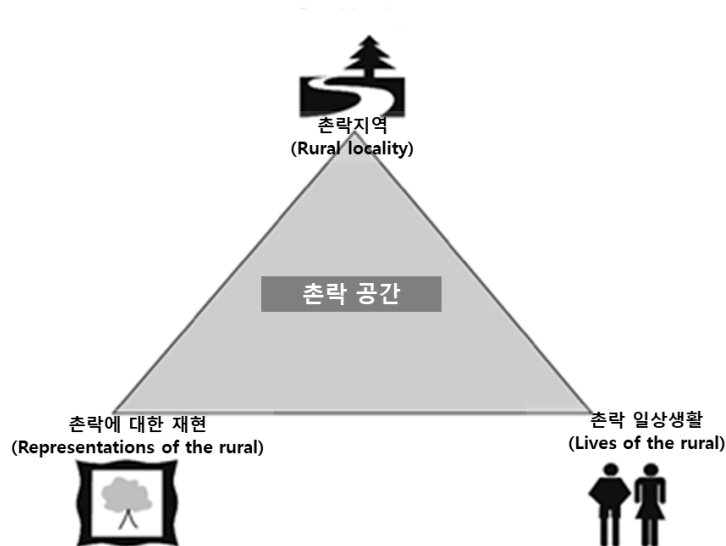


그림 6. 촌락 공간의 총체성(Halfacree)  
 자료: Halfacree, 2006: 52.

불확정적(undecidability)이고 복잡한 관계들로 얽혀 있는 촌락 공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일한 조망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Murdoch, 2003). 그럼에도 헬파크리의 모델은 ‘인지되고(perceived)’, ‘상상되고(conceived)’, ‘경험되는(lived)’ 촌락을 탐구함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촌락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물리적 제주도 촌락 지역, 제주도 촌락에 대한 관념 또는 표상, 그리고 제주도 촌락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행을 탐구하고자 한다.

## 2) 촌락공동체

공동체는 가장 오래된 사회조직이며 인간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다. 이때의 공동체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대 도시 사회에서는 생활 공간과 경제활동 공간, 여가 공간이 분리되면서 생활 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며, 이웃과의 관계를 공동체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졌다. 오히려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대부분은 생활 공간 밖의 경제활동 공간과 여가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공간에서 공동체는 주로 특정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 인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이명호, 2016)

공동체(共同體)의 사전적 의미는 ‘공동사회 내지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집단의 한 유형인 공동체는 특히 이념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집단 중에서도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으로서 인간의 공동체에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영어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communitas’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한 ‘communis’,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에서 파생된 뜻이다(송오식, 2022: 5). 이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마을이다. 사회문화적으로 마을은 여러 집이 이웃해서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와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또는 공동체적 삶이 더해진 삶의 단위로 이해된다(전종한 외, 2020; 송오식, 2022).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며 나아가 주민들의 일상적 배움터이자 학습 나눔터이다(홍은진, 2015; 이재민, 2017). 즉, 마을의 개념은 지역적 경계·물리적 범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생활환경과 주민 상호간의 관계, 주민 간의 가치공유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이 영



위되는 일정 영역의 공간·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마을과 공동체는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촌락 또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볼 때 공동체 생활을 내포하므로 사회문화적인 쓰임에서 ‘촌락, 마을, 공동체’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 상황에서 촌락과 마을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물리적 의미가 강조될 때, 공동체는 주민과 주민 조직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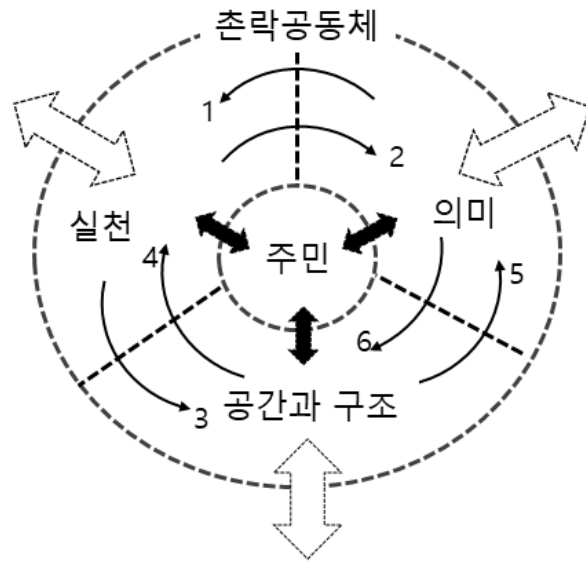
때문에 긴 시간동안 공동체의 개념은 촌락 사회 또는 촌락 생활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1887년 발표된 퇴니스(Tönnies)의 모델에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사회)는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익사회)와 대비되어 혈연, 국지적 접근성, 정신적 결속에 기초한 밀접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Liepins, 2000: 24)이 이루어지며 상호 간 유대, 함께라는 느낌, 집단 목표에 기반을 둔 사회적 그룹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촌락공동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마이클과 로버트(Michael and Robert, 2001)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특성으로 ‘동질적인 사회 구성, 분명히 정의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동의된 공간적 경계, 다수의 공동체 조직, 개인들 간의 비공식적인 상호 작용, 국지적 편의 시설의 높은 이용도, 비교적 작은 지역, 외부 위협의 가능성, ‘우리’와 ‘그들’의 명확한 정의’를 꼽았다(이원호·안영진 역, 2008: 111-112).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촌락공동체는 혈연적·물리적·감성적 가까움(近關係)에 근거한 사회적인 것의 근원적 형태로 간주되었으며(정인모 외 역, 2010), 공간적 관점에서 도시와 구별되는 것으로, 사회적·시간적 관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것으로서 정의되었다. 촌락공동체 개념은 안정성, 일관성, 안전과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왔다.

하지만 촌락공동체 개념에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 전통적인 촌락공동체는 가까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한 결합의 형태이므로 공간에 함께 있지 않은 다른 촌락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공동체 내부와 외부,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의 권력과 배제가 일부 존재한다. ‘우리’ 공동체가 아닌 사람과의 의사소통, 통합은 촌락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앞서 마이클과 로버트(Michael and Robert, 2001)가 전통적인 공동체의 특성으로 외부 위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서도 일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낯선 도덕과 관습, 삶에 대한 다른 표상으

로 발생하는 충돌에 대항하고 고유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외부의 자극을 위협으로 인식했다고도 볼 수 있다(정인모 외 역, 2010). 또 촌락공동체의 내부에서도 긴밀하게 얽혀있는 관계 안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순응을 강요함으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사람이나 일탈적인 성격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배제하기도 한다. 권력 집단은 언어나 행동을 통해 경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배제된 집단을 타자(others)로 구분 짓는다. 경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가시적이지만 타자를 주변화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권력 집단을 ‘정상적’이라고 간주하게 한다(박경환 외 역, 2023: 35).

20세기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은 시공간의 압축을 견인하였고 이로써 촌락은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급격한 지리적 이동을 가능케 하여 촌락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촌락 또는 도시와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촌락을 구성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분리를 조장하였으며, 공동체 내 문화적 결합 관계, 응집력을 약화시켜 집합적 정체성과 공동체 내 개인의 정체성을 분절하여 사고하게 하였다. 한편에서는 외부의 자극에 취약하고 내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공공연한 배제로 이야기되는 촌락공동체의 한계가 근대의 발전으로 낯선 세계로의 출발, 개인의 전통적인 사회관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 시기 공동체의 개념은 낭만적인 사고라는 비판과 점점 더 유동적인 사회에서 한정된 지리적 지역 내의 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논리에서 설득력을 잃어 갔다(이원호·안영진 역, 2008).

문화적 선회(cultural turn)를 계기로, 공동체가 어느 정도는 ‘상상에 의한 것’이며(Anderson, 1991; 윤희숙 역, 2007: 26) 구성원의 실천과 상징에 의존하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촌락공동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촌락공동체 간 경합, 공동체와 정체성 간의 연결고리,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를 촉진했다. 나아가 리핀스(Liepins, 2000)는 촌락공동체의 영역성, 규정과 모임 장소, 실천과 수행 등을 추가하여, 의미, 실천, 공간과 구조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촌락공동체 개념을 제안하였다(그림 7).



1. 의미(meanings)는 기존의 규칙에 부합하는 실천이다.
2. 실천(practices)은 의미를 순환하고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3. 실천 (practices) 은 공간에서 일어나며 구조를 통해서 발생하고 그러한 공간과 구조를 형성한다.
4. 공간과 구조(spaces and structures)는 실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5. 공간과 구조 (spaces and structures) 는 의미의 물질화 또는 실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6. 의미 (meanings) 는 공간과 구조 안에서 구현된다.

그림 7. 촌락공동체의 구성요소와 동력

자료: Liepins, 2000.

리핀스는 무의미한 사람의 집합은 공동체가 아니며 공동체에는 반드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의미들이 공동체의 상징적 구성물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공동체에서 의미는 기존의 규칙에 부합하는 실천이며(1), 공동체의 실천은 의미를 순환하고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2). 또한 실천은 공간에서 일어나며 구조를 통해 발생하며, 그러한 공간과 구조를 형성한다(3). 공간과 구조는 실천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며(4), 의미의 물질화 또는 실체화를 가능하게 한다(5). 또 의미는 공간과 구조 안에서 구현된다(6). 다시 말해서 의미들은 공동체의 공간과 구조, 공동체의 실천 속에 위치하며, 또 실천은 공간과 구조 내에서 일어나고, 공간과 구조를 실제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성원이 모이는 공간과 구조 또한 실천이 일어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의미들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박경철 외 역, 2016: 205). 요컨대 리핀스의 모델에서 의미, 실천, 공간과 구조의 각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 실천과 공간

경험, 의미의 생산이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촌락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촌락 주민의 일상 담론과 공동체의 실천과 수행을 탐구하고, 공식적 공간과 구조가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촌락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동체의 실천 및 수행, 일상 경관 그리고 공식적·비공식적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 3) 촌락의 혼성화

혼성(混成)은 사전적으로 ‘서로 섞여서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영(Young, 1995)은 ‘혼성화는 혼재되어 있지만 분리를 유지하는 이중적 성격의 용어’로, 공존하지만 각각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융합(融合)과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생활·삶(lived) 속에 혼재되어 있지만 권력에 의해 의식적·의도적(intentional)으로 재배치된 담론’으로 혼성화를 개념화하였다.

21세기의 촌락은 상호의존성과 교환이 영역적으로 확장되고 영향력이 강화되며, 원거리의 지역과 연결성이 심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Steger, 2003). 촌락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경험하는 경제, 이동, 문화적 측면의 연결성이 심화되는 사례를 살펴보면(Woods, 2011),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글로벌 시장의 증진, 글로벌한 상품 사슬<sup>7)</sup>, 외국인 직접 투자 및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휘둘리는 촌락 내 분점들, 선진국이 외국의 토지나 농업 관련 권리를 획득하는 글로벌 재산권 체제의 출현 등의 상황에서 촌락의 경제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또 촌락은 관광·역도 시화·노동자 이주 현상, 그리고 농촌 경관과 농촌 경험의 상업화, 선진국과 개도국의 농촌 휴양지들이 발전하는 상황 등에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교환으로 이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관계성의 사례로 미디어에서 촌락에 대해 제기하는 표상들이 단일하게 수렴되어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우즈(Woods, 2011)는 이러한 경제, 이동, 문화적 관계성의 과정들이

7) 우즈(Woods)는 “상품이 한 나라에서 생산되어 두 번째 나라에서 거래되고 세 번째 나라에서 가공되어 네 번째 나라에서 판매되는” 과정을 글로벌한 상품사슬이라 표현하였다(박경철 외 역, 2016: 323)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단 하나의 글로벌한 촌락’이 창조되는 것은 아니며, 촌락의 지리적 특성이 재정렬되면서 ‘새로운 촌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였다(박경철 외 역, 2016: 323-324). 이처럼 촌락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다른 실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촌락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문화적·경제적·정치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Massey, 2004).

관계성(relationality)이란 개인 간, 특정 사회 집단이나 제도 간, 그리고 일상적인 장소, 동네, 도시와 같이 특정한 공간적 맥락의 내·외부 간의 복잡한 쌍방향적 관계들을 가리킨다(박경환 외 역, 2023). 촌락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촌락과 도시의 이분법적 관계에도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한다. 과거 촌락은 도시 환경의 진보적 성격과 대비되면서 모든 면에서 도시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촌락성은 배타적이고 편협한 커뮤니티와 연관되었다. 반면 도시성(urbanity)은 기술적 진보, 개방성, 다양성, 세련된 문화와 삶의 조건 등을 대변하였고 도시는 풍부한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대의 촌락과 도시는 이러한 이분법적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경제, 이동, 문화적 관계성의 과정에서 촌락의 도시화, 도시의 촌락화와 같은 혼성적 형태의 공간들은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다. 촌락은 인구의 이동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변화하고 비농업적 경제활동이 확장되며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도시성을 획득하고 있다. 도시 또한 촌락 인구의 이동으로 촌락 출신의 주민이 거주하며 전원주택과 같이 촌락의 경관적 특징이 도시에 출현하기도 하고, 캠핑과 같은 여가 활동에서 나타나는 촌락 생활양식에 대한 열망과 소비 문화도 도시의 촌락화로 설명할 수 있다. 촌락과 도시 간 사회적·경제적 상호 교류와 교환이 확대되고 촌락 내부의 사회 네트워크 및 활동이 증가되면서, 그 결과 촌락의 전통적인 정치·경제·문화·지리적 경계들이 점점 더 극복되고 있으며 현재의 네트워크와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촌락은 없다(박경철 외 역, 2016: 353).

촌락은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다양한 구성 주체들의 혼재와 네트워크 간 역동적인 문화의 교류로 혼성화되고 있다. 이주를 통한 문화의 교류와 이동성이 강화되면서, 촌락공동체 또한 다양한 사람과 다채로운 문화, 네트워크가 뒤섞여 공존

하는 혼성화(混成化)를 경험하고 있다. 이주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전 요소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과 사회가 조금씩 뒤섞였고 그것은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되어왔다. 촌락에서의 이러한 엉킴, 교차, 연결, 결합, 혼재와 같은 혼성화 현상은 때때로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지만 촌락성을 완전히 소멸하게 한다거나 촌락공동체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다. 혼성화는 촌락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고유성을 없애 획일화시키지는 않는다(박경철 외 역, 2016). 오히려 촌락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호하고 양면적이며 혼합된 상황, 비동질적 네트워크가 혼재된 상황은 촌락공동체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드러내어, 촌락이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유동적 공간(fluid space)임을 증명한다.

혼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촌락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힘에 의해 고유성의 지속과 변화의 수용이라는 다양함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고유성의 지속과 변화의 수용이라는 세계적인 촌락들의 상황을, 머독(Murdoch, 2003)은 ‘혼성적 담론(The discourse of hybridity)’을 가지고 해석하였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위자(actor)로 구성되고 다채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촌락을 혼성적이라 설명하였다. 개별 촌락들은 다양성을 가진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도 포함한 이질적인 행위자로 구성되며, 각 촌락의 성격과 맥락적 특성에 따라 촌락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정들에 때로는 수용하고 포용하지만 때로는 대립적이고 모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 우즈(Woods, 2006; 2007; 2009)는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촌락 공간이 형성되고 주민들이 도전을 경험하지만 촌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촌락을 ‘지역적, 국가적 및 글로벌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재구성되고 혼합된 공간들의 시리즈(a series of reconstituted and hybrid spaces)’로 상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박경환, 2020, 재인용).

매시(Massey, 2005)는 촌락을 ‘뒤섞임·일시적 결합·연결상태(throwntogetherness)’로 보았는데(Massey, 2005; 박경환 외 역, 2016) 즉, 촌락 내에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로컬 행위자와 글로벌 행위자 간, 인간과 비인간 주체들, 지역 및 외부 행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뒤섞이고 일시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원들의 혼성적 참여를 통해 촌락이 재구조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우즈(Woods, 2

005)는 또한 촌락을 다양한 사회적·자연적 실체들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의 총체라 하며 ‘혼성적 공간(hybrid space)’으로 곧 파악하였다. 머독(Murdoch)은 촌락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는 구성원, 예를 들어 인간과 비인간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시장과 공급사슬, 기업 복합체, 국가나 지자체의 규제 등 다채로운 요소들로 구성되는 ‘촌락 자체가 혼성’(Murdoch, 2005)이라 하였다. 혼성성은 기존 담론의 경계에 도전하고, 새로운 문화적 담론을 생산해내며 권력이 내재화된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는 차원에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용어로(Park, 2005), 촌락의 역동적 변화를 잘 설명해주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촌락과 촌락성, 촌락공동체와 촌락의 혼성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의 촌락은 외부의 시선과 그 기능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나 기술적, 사회문화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주관적, 상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별 경험과 인식, 상상에서 촌락 공간은 다르게 정의되었으나 촌락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물리적 촌락 지역과 촌락에 대한 관념 또는 표상, 그리고 촌락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공간적 실천의 세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촌락 공간을 연구할 수 있었다. 또한 촌락 공간의 주 행위자인 촌락공동체는 촌락 주민의 일상 담론과 공동체의 실천과 수행 그리고 공동체의 공간과 구조를 파악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세계적 촌락 공간들이 이미 혼성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제주도 촌락 공간 또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혼재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촌락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물리적·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제주도 촌락 지역, 제주도 촌락에 대한 재현된 관념 또는 표상, 그리고 제주도 촌락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행을 혼성성의 관점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 촌락공동체의 일상을 탐구하는 요소로는 촌락 공간 내에서 행해지는 공동체의 실천과 수행, 공간에서의 경험, 그리고 의미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국내외 촌락 연구 동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적인 식량 공급 위기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역 농업의 보호와 식량 안보, 자급자족 증진과 지역 생산 극대화를 목표로 (Marsden et al., 1993), 농가에 대한 보조금 강화, 농산물 최저가 보장, 관세 도입 등(Albrecht, 2007; Illbery and Bowler, 1998) 성장과 발전, 생산수준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실천했다. 그러나 환경 파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으로 ‘녹색’ 상품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촌락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오는 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생산주의는 1980년대에 이르러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 과정을 농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구조화(Agricultural restructuring)라 하였으며, 정치·경제학적 접근 방식으로 촌락 구조의 변동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박경환, 2020).

농촌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촌락은 농업 수입의 감소와 농업 부채의 증가와 같은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고, 촌락 내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촌락의 소비적 사용 증가와 비농업적 경제활동의 확산 등의 방안이 등장하였다(Cloke and Little, 1990; Lowe et al., 1993; Marsden, 1995; 1999; Marsden et al., 1993; Murdoch and Marsden, 1994; Mackay et al, 2009, 재인용). 이 시기 연구들은 사회지리학적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재화와 용역의 분배 문제, 사회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문제, 사회계층화, 인구의 이동과 변화 등을 쟁점화하여 촌락을 해석하였으며 이는 촌락사회지리학의 출현으로 이어졌다(전종한, 2005).

이러한 전환은 단편적으로 생산주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90년대 후반 생산주의 농업정책이 사라진 후 나타난 포스트-생산주의(post-productivism)는 새로운 변화들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쓰였다. 포스트-생산주의 이념에서 농업은 ‘확장(extensification), 다각화(diversification), 분산화(dispersion)’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구축, 경제적 다각화와 환경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었다(Illbery and Bowler, 1998). 하지만 촌락 내에서는 여전히 생산주의적 사고와 행동방식이 유지되고 있고, 영국과 유럽을 제외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촌락 변화의 동적 성격과 세계적인 촌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요구에 등장한 것이 ‘다기능적 촌락 공간(multi-functional rural space)’이었다(Mackay et al, 2009). 이 시기 유럽에서는 농업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농촌사회문화 보전에 기여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 점이 강조되고 있었다(박경환, 2020: 9). ‘다기능적’이란 용어는 생산주의 담론이 유지되는 동시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함한 변화가 혼성적(hybrid)으로 나타나는 촌락의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었다(Bjorkhaug and Richards, 2004; Burton and Wilson, 2006; Holmes, 2002, 2006; McCarthy, 2005; Smailes, 2002; Wilson and Rigg, 2003; Woods, 2009).

촌락을 다기능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시도에는 ‘촌락성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the countryside)’를 포함하는데, 이 분야의 연구는 사회과학의 문화적 선회(cultural turn), 공간성을 강조한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발전하였다(Cloke, 1997; Little, 1999; 전중환, 2005). 우즈(Woods, 2005)에 의하면 ‘촌락 공간의 상품화’란 관광활동이나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 공예품이나 상품의 마케팅, 농촌의 이미지를 통해 촌락의 자원이 매매되는 것이다. 화폐에 의해 거래되는 물질뿐만 아니라 촌락공동체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험과 실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의 획득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의 소비도 촌락의 상품화에 포함된다고 보았다(田林 明, 정암 역, 2015; 29). 많은 연구에서 촌락이 생산을 위한 장소에서 비전통적인 촌락 상품, 서비스, 생활양식 및 경험을 판매하는 곳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Cloke, 1993; Cloke and Perkins, 2002; Hopkins, 1998; Perkins 2006; S lee, 2005; Woods, 2005, 권상철 외 역, 2014, 재인용). 특히 퍼킨스(Perkins, 2006)는 촌락을 ‘과거와 현재의 생산 기술이 적용되고 발전하며 거주자, 방문객, 관망자에 의해 변화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 보았다(Mackay et al, 2009, 재인용).

1990년대 이후 도시화로 촌락공동체가 도시 지역에 의존하게 되면서 도시의 영향권,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중소도시의 형성, 촌락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주로 연구되었다(Courtney and Errington, 2000; Courtney et al., 2007; Csurgó and Megyesi, 2016; Powe and Shaw, 2004; Powe et al, 2007; Van Leeuwen,

2010; Woods, 2011b; Walford, 2010; Woods, 2005; Woods, 2017: 21, 재인용). 2000년대 이후에는 촌락과 도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주제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 등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으로 접근이 이루어졌다. 촌락과 도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촌락과 도시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지리적 혼성화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데, 촌락과 도시의 형태가 뒤섞이고 완전히 시골적이지 않은 지리적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 ‘도농연속체’(urban-rural continuum), ‘도농공생적 접근’(symbiotic approach), ‘러번’(rurban)과 같이 촌락과 도시를 의식적으로 융합한 용어가 만들어졌다(Woods and Heley, 2017; 정문수 외, 202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외의 촌락 연구는 촌락의 경계, 형성 요인, 지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전통적 연구 방식과 더불어 촌락의 공간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를 세계적 영향력 아래 해석하려는 정치·경제학적 접근 시도로 확장되었다. 한편으로는 촌락의 정체성, 촌락성에 대한 담론을 정리하며 촌락을 정의하고 개별 촌락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탐구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별 촌락에서 나타나는 변동의 양상에만 주목하여 변화의 요인이나 과정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 촌락을 도시와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상상하게 했다는 점, 촌락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대한 담론에 의해 수동적으로 변화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21세기 들어 촌락의 변화와 역동성, 촌락의 혼성화와 촌락과 도시 간 복잡한 상호작용과 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방 이후 국내 촌락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으며 영미의 촌락지리학 연구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박삼옥, 2005). 시대별 주요 연구주제를 보면 1970년대는 가옥과 취락, 촌락의 형성과 발달, 입지와 형태, 구조 및 기능 등(장보웅, 1974; 최영준, 1974; 오홍석, 1975; 이찬, 1975)을 주로 다루었다. 1980년대에 들어 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농촌 경관에 대한 학리적 연구, 공간구조의 파악, 동족촌의 형성과 지리적 발전(양보경, 1980; 김덕현, 1983; 최기엽, 1986) 등을 다루었다. 대체로 특성이 뚜렷한 단일 촌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던 흐름은 1990년대에 들어 신문화지리학의 영향으로 점차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들(류제현, 1994; 옥한석,

1994)로 확장되었다. 일부에서는 공업화, 도시화의 반작용으로, 촌락 인구의 도시 지향 이동이 촌락의 변모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책 등 보다 실용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이문중, 1996).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여가 기회가 늘어나면서 촌락지리의 주제는 관광 및 축제,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불균등, 인터넷과 미디어가 생성한 촌락성 담론 등으로 연구 주제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신문화지리학은 인문지리와 사회이론의 방법론적 결합을 이끌어 경관을 이해하는 분석의 틀로써 사회이론이 활용되었다. 전통지리학의 제조명으로 풍수지리사상(최창조, 1990)과 대동여지도론 비롯한 고지도 연구(양보경, 1998; 오상학, 2005)도 부활되었으며, 지역성 해석을 위해서는 과거 지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연구(김기혁, 1991; 정광중, 1995)도 있었다. 신문화지리학은 학문 간 융합으로 촌락지리학의 내외면을 확장하고 관점의 다양화에 기여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연구 내용이 다소 관념적이거나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응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이문중, 1996; 류제현, 1996; 최병두, 1996; 박삼옥, 2005; 전중환, 2005; 정치영, 2007; 이정만, 2013).

지역공동체 또는 전통 촌락공동체는 국내 지리학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며, 특히 문화역사지리학 고유의 연구주제로서 과거 촌락공동체의 재현이나 현재의 촌락 및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온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는 과거보다는 현재, 촌락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의 내용 또한 공동체 성격에 대한 이론적 토대의 논리보다는 특정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체적 성격을 획득하면서 수행하게 되는 기능과 역할, 즉 지역공동체를 하나의 방법 또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산발적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 관련 요소들을 고찰함으로써, 로컬 거버넌스 구축의 한 요소로서 지역공동체 육성에 실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전경구, 1998; 강은숙, 2003; 배응환, 2003; 이선민, 2004). 이러한 연유로 전통적 형태의 촌락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점차 외면을 받고 있다.

지리학의 촌락 연구에서 촌락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근대화론에 제한되어 있으며 지리에 초점을 두고 촌락의 변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수적으로 적으며,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 간의 관련성, 전체의 통합이라는 관점

이나 일반화·이론화의 방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박경환, 2020: 6; 정암 역, 2015: 25). 또한 촌락성을 사회적 구성물로 다룬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일찍이 촌락 경관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를 위한 개념적 빈곤(conceptual famine)이 극복 과제로 언급되었으나, 아직 사회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촌락 지역의 장소적 성격과 촌락 경관의 해석에 관련한 개념이 채 갖추어지지 않았다(이문중, 1996; 전중환, 2005; 임하결, 2022).

전중환(2005)은 한국 촌락의 장소적, 경관적 특성에 상응하는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을 구상하고 한국 촌락 지역의 종족집단을 사례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한국 촌락의 장소적, 경관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상응하는 주요 개념으로 ‘지리적 사회집단으로서의 종족집단’, ‘사회 집단의 지역화과정’,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촌락권’ 등 세 가지 차원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육지부의 종족 촌락을 대상으로 제시된 개념 구상 연구로 아쉽게도 제주의 지연공동체를 설명하기에는 일부분 다르나 집단의 지역화 과정과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촌락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경환은 이도향 촌과 촌락 인구의 재증가 현상을 역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석하고 개념적 적합성을 고찰(박경환, 2017)하였으며, 촌락성이 사회적 구성물이란 관점에서 담양군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례(박경환, 2018)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촌락성 재현을 연구(박경환, 2020)한 바 있다. 촌락 공간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도는 촌락 공간을 총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박경환의 연구는 귀농·귀촌 현상을 촌락성 담론으로 분석한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촌락지리 연구들은 아직 촌락의 개별 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촌락성 담론과 일반화의 연구가 점차 진행되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 연구된 임하결(2022)의 귀촌 청년들의 촌락 인식과 촌락성 생산에 대한 사례 연구는 주목할 만 하다. 그는 도시 청년들의 귀촌 현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과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귀촌 청년들의 역사적 궤적에 주목하여 도시-촌락 관계적 접근을 통해 고찰하였다. 더불어 현장 조사와 귀촌 청년들을 그룹화하고 면담을 진행하여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와 귀촌 청년들은 도시-촌락 관계적 접근 인식을 보다 맥락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사

레 지역은 청년들의 귀촌으로 인하여 촌락은 새로운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촌락 공간이 도시와 특성이 뒤섞인 혼성적 공간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국내 촌락 연구는 ‘마을 연구’라는 이름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성이 뚜렷한 단일 촌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성을 강조하는 지역 스케일의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전종한, 2005). 그러나 촌락 경관은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촌락의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영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국가적, 세계적 스케일에서 촌락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비교연구도 요구된다. 다양한 층위의 지역단위 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연구주제의 개발과 자료의 발굴을 위한 초학문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정치영, 2007).

## 2) 제주도 촌락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채로운 경관적 특성과 독특한 생활양식, 지연·근린지역 중심의 촌락공동체를 보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제주도 촌락의 고유한 지역성을 보여주는 연구 성과도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촌락지리학 분야에서 종족촌락이 한국 촌락의 전형이며, 수적으로도 절대적이고 동시에 종족원리는 집촌의 형성조건으로 중요하다는 통념이 학계 전반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정옥주 외, 2007) 제주도 촌락에 대한 연구는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법면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지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 특이성을 밝혀 해석하고 성격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고찰되었다.

1970년대 장보웅(1974)의 제주도 민가에 관한 연구와 오홍석(1975)의 제주도 취락의 입지와 형태, 기능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제주도 촌락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주제가 다양화, 세분화되고 개별 촌락의 특성을 부각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특히 오홍석(1975)의 연구는 제주도 취락의 성립과 진화에 관한 발달 과정에 치중하면서 취락의 형태와 입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였다. 오홍석은 연구에서 취락의 기하학적 형태와 가옥의 밀집 상태를 고찰하고 취락

의 입지 요인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규명하였으며, 주민이 종사하는 생업과 취락의 관계를 통해 취락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제주도의 취락이 해안의 용천대 중심에서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고 동쪽 취락이 형성되는 특성을 보였으나 환상(環象)도로의 개통과 4.3사건을 계기로 임해(臨海)취락이 나타나는, 제주도 취락의 변천과정을 밝혔다. 또한 북제주지방에 취락이 밀집하여 입지하고 취락의 형태가 임해지역과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집촌되며, 이에 따라 반농반어, 농목업의 겸업형태로 생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제주도는 정부주도의 관광정책 추진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제주도 촌락 지역의 급격하고 다방면의 변화는 관광학, 지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연구되었다. 송경언(2002)은 제주도 어촌 공간 분석을 통해 산발적으로 형성된 관광어촌 유형을 서로 비교하여 관광어촌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어촌의 관광지화’란 어촌 주민 특히 어업종사자의 생산활동이 관광관련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 어촌 공간에서 관광어촌화가 진행되면서 ‘바다 → 바다·해안 → 해안’으로 어촌 공간 안에서 관광 기능이 실천되는 위치가 변화하며, 해안으로 관광 기능이 완전히 이동한 후에는 동일한 공간에서 시간을 달리 하여 생산활동을 병행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어촌 주민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광활동에 진입함에 있어 위험부담을 점차 완화해가는 방식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관광 수요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관광관련 행위가 욕구에 맞게 다채로 우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제주도 촌락은 선행 연구들에서 연구된 방식으로 검토하기에는 그 특성이 다양하고 일반화가 어렵다. 이제 제주도 촌락에서의 입지는 환경적 제약의 극복과 적응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촌락성의 추구와 부동산 상황, 일자리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다. 또한 취락의 입지와 기능에 따라 생업 활동이 결정되지 않으며 촌락의 환경과는 무관한 생업에 종사하거나 수요와 트렌드에 맞는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대의 제주도 촌락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 ‘제주도 촌락·농촌·마을’에 관한 연구는 간학문적, 융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주도 촌락·농촌·마을’로 검색된 연구는

농촌관광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기후변화, 신품종 육성, 농촌경관의 이슈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제주도 촌락에서의 주요 관심사와 촌락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준다. 제주도 촌락은 관광의 측면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지원사업과 이주의 정책적 이슈와 기후로 인한 농업의 변화, 경관의 재현 분야가 주로 연구되고 있다. 제주도 촌락의 지리학적 특성을 밝히며 아울러 지역적 성격을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주도 촌락 지역의 시기별 인구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거나(정광중, 2013), 공간 변화와 재편 과정을 탐색한 연구(이성용·하창현, 2014)와 더불어 귀농·귀촌인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부혜진, 2015)도 시도되었다. 또 제주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이전, 2016), 개별 마을의 지명 변천 연구(김관철, 2022) 등도 촌락지리의 분야에서 아울러 연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의 경관을 해석하고 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 진중헌(2023)은 제주를 보는 방식(a way of seeing), 즉 외부에서 제주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론적 시선을 통해 제주의 경관을 고찰하였다. 근대 이전 시기 제주를 보는 방식은 ‘경관의 심미성, 풍토의 척박함, 풍속의 소박함’으로 해석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파라다이스, 낙원’ 담론의 출현으로 제주의 경관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맥락에서 산업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재평가되었다고 하였다. 진중헌(2016)은 이전 연구에서도 제주의 대표적 상징 경관인 오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노동의 무대이자 삶과 죽음의 터전으로 인식되던 오름이 1990년대 이후 미학적 시선으로 해석되는 특징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오름 경관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의 출현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고, 오름 경관을 제주의 문화 및 정체성의 구성과 사회변화의 매개체로 살폈다. 또한 송원섭(2021)은 제주의 주거 문화경관 해석을 시도하였다. 제주 전통 주거 문화경관인 안거리-밖거리, 박제된 형태의 민속촌 주거 문화경관, 비오토피아라는 새로운 주거 문화경관의 사례를 대상으로, 각각의 경관을 본질-모방-환상으로 보고 원본과 가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송원섭은 제주도 촌락 경관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관광객의 시선에 의해 경관의 본질이 선택적으로 취해지며, 상품화가 된 경관을 통해 관람자가 얻게 될 환상을 경계하며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재론적 위상을 강조하였다.

오홍석(1987)은 촌락연구의 미래 과제로 마을별로 상세한 개별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개별 연구는 제주도 전체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 귀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주도 촌락 연구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이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더 넓은 스케일에서 지역의 성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 촌락에 대한 연구는 개별 마을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지역 간 비교 연구나 종합적이고 영역적인 접근의 시도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제주도 촌락 공간의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의 모습을 혼성화로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주민의 유입이 급격하게 나타난 2010년 이후 최근 10여 년간 제주도 각 개별 촌락 마을들은 다양한 측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는 획일화의 방향이 아닌 수용과 변용으로 특성이 혼재되어 공존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남단의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특이성으로 다소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제주도 촌락을 대상으로, 주민 구성의 변화, 공동체 수행의 변화, 경관의 변화 등 세 가지의 측면에서 혼성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제주도 촌락 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촌락과 촌락성, 촌락공동체, 혼성화 담론에 지리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주도 촌락의 변동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촌락 공간을 도시와의 구분을 통해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 촌락 공간이 도시적 특성이 혼재된 혼성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Ⅲ. 제주도 촌락 주민 구성의 혼성화

#### 1. 인구 유출과 지속가능성의 위기

오늘날 국내 도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촌락의 절대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국내 총인구의 80% 이상이 국토의 20%인 도시 공간에 거주하고, 국토 면적의 80%인 촌락 공간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채우고 있다. 생산주의 농업 시기 농업 생산의 전문화, 기계화는 촌락 내에서 농업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잉여 노동력을 발생시켰으며 촌락 인구의 도시 유출에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후 농업 경쟁력 약화로 나타난 농업 소득의 감소, 도시와의 소득 격차는 촌락 인구의 유출 가속화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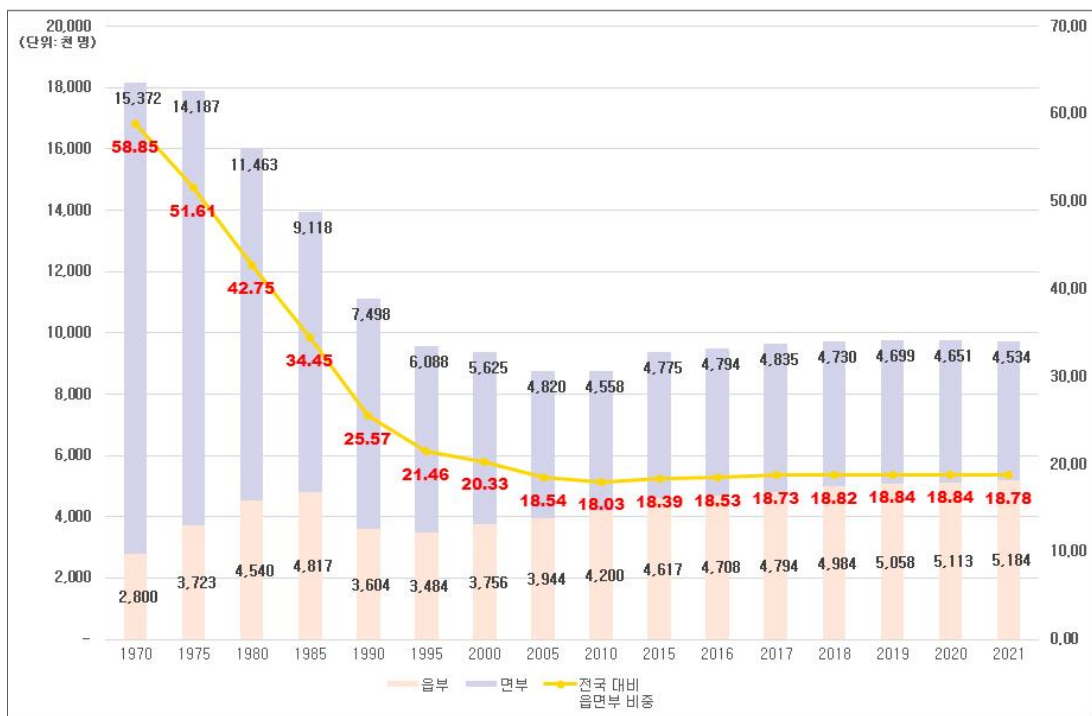


그림 8. 국내 촌락 인구 변화

자료: 통계청 총조사인구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지난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촌락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였다(그림 8). 1970년 촌락 인구는 약 1,817만 명으로 총인구의 58.8%에 달하였으며 해당 인구의 대부분은 면(面)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점차 감소하여 2010년 촌락의 등록 인구는 약 875만 명으로 총인구의 18.2%만이 촌락에 거주하였다. 일부 수도권 및 도시 근교의 읍면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읍(邑)의 인구가 증가하고 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경우가 있으나(심재현·민경찬, 2023), 전국적으로 볼 때 비수도권인 군(郡) 지역의 면(面) 주민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20-2021년 전국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 감소가 나타나는 인구 테드크로스가 발생해 촌락에서도 인구 감소가 나타났는데, 특히 면 지역에서 116,32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감소분의 약 50%에 해당하며 전국의 면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촌락 거주 인구의 양적 변화가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양적 증가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실제 촌락성을 수행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질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0년 국내에는 약 117만 가구, 약 306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2021년에는 약 103만 가구, 약 221만 명으로 10년 사이 농가는 약 11%, 인구는 약 27%가 감소하였다. 촌락 인구의 양적 안정에도 농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은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사회적 이동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귀농인<sup>8)</sup>보다는 귀촌인<sup>9)</sup>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 촌락공동체 구성원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농가의 경영주 연령별 비율을 보면(표 3) 2010년에는 50대 24%, 60대 29%, 70대 26%로, 50-70대의 연령대가 약 81%를 차지하였고 35-49세도 약 14%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 
- 8) 귀농인(歸農人)이란, 법령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뜻하며, 시행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비농업인으로 거주하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한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9) 귀촌인(歸村人)이란, 법령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의미하여, 시행령에서는 '귀농인을 제외하고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60대가 34%, 70대 19%로 나타났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경영주가 4%에서 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국내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율 (단위: %)

연령 (세) 연도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65 -69	70 -74	75 -79	80세 이상
2010	0.01	0.13	0.62	2.05	4.28	7.66	11.63	12.76	14.51	15.43	16.42	10.29	4.22
2022	0.01	0.05	0.14	0.49	1.19	2.87	5.86	9.57	16.58	17.65	16.22	13.25	15.93

자료: 통계청 농어업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국내 농가 수와 농가 인구의 감소 그리고 촌락 주민의 고령화 현상은 제주도 촌락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오히려 제주도 촌락 지역 농가의 인구 구성 피라미드는 촌락공동체 구성원의 질적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그림 9). 2010년 제주 지역 농가 인구는 남성 56,984명, 여성 57,555명으로 총 114,539명이었으며, 2021년에는 남성 38,434명, 여성 37,114명으로 총 75,548명이었다. 2021년 제주 지역 농가의 인구는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약 34%에 해당하는 4만 명의 농가 인구가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사이 10대는 8,684명, 20-30대는 12,907명, 40대는 8,956명이 각각 감소한 반면 75-79세의 농가 인구는 1,701명, 80세 이상 농가 인구는 2,69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40대 유소년, 청·장년층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제주 지역은 이전부터 섬 지역의 특성상 인구의 유출이 꾸준히 나타났으며, 도시화의 흐름에서 보다 나은 생활 환경과 일자리, 교육 서비스를 찾아 제주도 촌락의 주민들은 제주시 동 지역 또는 육지부로 이주하였다. 주민 면담을 통해서도 촌락 주민 10-40대 유소년, 청·장년층의 유출과 고령화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80대 주민의 자녀 세대들, 대략 50-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1960-70년대의 도시화를 청년 시기에 경험하며 촌락을 이탈하였고, 일부 촌락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로의 이주가 영웅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 불우한 촌락 주민의 계층 이동과 신분 상승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서사로 작동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촌락에 남는 것

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낙오자로 인식되는 상황이 나타나 도시로의 이주가 추동되었으며(박경철 외 역, 2016),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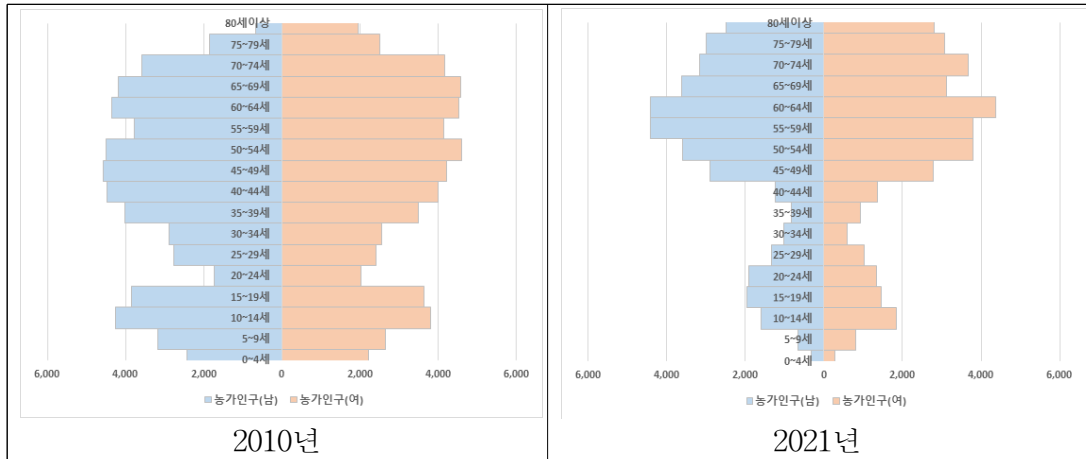


그림 9. 제주도 농가 인구 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농어업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OO리 사람들은 반 엇어(반도 없어). 할망들만 잊지. 아기들은 다 나가고. (면담참여자 A04F)<sup>10)</sup>

우리 둘만 살아. 아들 둘, 딸 하나는 서울 살고, 딸 하나는 제주시 살고. 이 동네에서 나가 아들 서울로 대학 보낸 사람 일호라. 우리 자식 셋, 서울로 대학 갈 때 나 다 강 왓어. (면담참여자 B09M)<sup>11)</sup>

우리 동창들 중에서 여기 남아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한 10% 정도, 그 미만이지 싫어요. 대부분 시내로 나가든가, 육지로 학교 간 사람은 거기서 자리잡고. (제주)시내에 살면서 여기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해요. (면담참여자 N26F)<sup>12)</sup>

인구 유출은 촌락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 감소는 지역공동체를 실천하는 수단인 행사와 의례에 참여하는 절대적 사

10) 면담참여자 A04F는 A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토박이주민으로 노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2021년 경로당에서 노인회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다.

11) 면담참여자 B09M은 B마을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토박이주민으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노인회장을 지냈다. 2021년 자택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12) 면담참여자 N26F는 N마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지역 은행에 근무하며 배우자는 농업, 양마업에 종사하고 있다. 2023년 면담을 진행하였다.

람의 숫자가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용자 수가 불충분해지면서 지역공동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 역할을 했던 학교, 상점, 기타 시설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청·장년층의 유출은 지역공동체의 인구 구성을 왜곡하고 신체적·경제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계층이 사라져 촌락공동체에 크게 영향을 준다(Stockdale, 2004; 박경철 외 역, 2016: 221, 재인용). 실제 제주도 촌락에서는 유소년 및 청·장년 세대의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촌락 내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폐원 또는 통폐합되고 있으며, 도서관, 병원, 문화예술시설 등 각종 생활서비스시설, 편의시설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공동체 수행에서 직접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활동하는 자생단체인 부녀회와 청년회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마을 내 각종 행사, 환경 정비, 농로 정비, 영농폐기물처리 등 공동체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촌락의 청·장년층 인구의 감소로 부녀회와 청년회는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단체의 유지와 활동을 위하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을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젠 일(직장) 다니는 사람도 부녀회장을 해야되는 거예요. 몇 명 없어서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맡아서 해야되는 거, 하겠다고 했죠. (면담 참여자 G18F)<sup>13)</sup>

G마을의 경우 부녀회장 선출 시,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 즉 촌락의 주된 생업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 중에서 선출해 왔다. 촌락의 공통 생업 활동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일상뿐만 아니라 생업활동 또한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며 정보의 공유나 소통이 원활하여 마을의 사정에 밝고 공동체의 수행에 있어서도 시간 활용이 유연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촌락 내 직장 출퇴근 주민은 공동체의 수행에서 배려를 받음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공동체의 수행에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점차 부녀회의 회원 수가 감소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업 종사 주민만을 대상으로 부녀회장을 선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 책임이 주어지고 동시에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하는 자생단체 장(長)을 선호하

13) 면담참여자 G09F은 G마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토박이주민으로 노무일과 농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는 부녀회장을 지냈다. 2022년 근무지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났으며 출퇴근 주민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인식의 변화도 나타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근래에 G마을은 직장 출퇴근 주민을 포함하여 여성 주민 중에 부녀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부녀회원들도 촌락의 상황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 촌락의 청년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촌락에서 청년회는 공동체의 수행에서 직접 행동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회원의 감소는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양의 일 부담해서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감소,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때문에 제주도 촌락에서는 청년회원의 확보를 위해 청년회원 대상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밖 향우 청년회원들의 협력을 대안으로 하고 있다. 촌락공동체의 자생단체는 국지적인 모임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공통의 생업활동에 종사하고 공동체의 수행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자·노인으로 인식되는 연령이 상향되었고, 일·생활 균형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는 제주시내와 읍면과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제주에서 퇴근 후 저녁 시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지역 내 청년회원의 감소를 지역 밖 향우 청년회원들의 협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우리 청년 회원 나이 제한이 성인 20세에서 50세까지거든요. 저희들은 향우회 청년이 많이 도와주니까 그래도 지금 만 50세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는 (나이 제한이) 55세도 있고 60세도 많아요. 지금 (청년)회원은 한 50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거기에서 60%는 다 (제주)시내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시내에 살고 여기(마을)는 그럼 20명 정도. 저희 청년회 행사가 거의 주말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장 안 가는 날에는 와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없이는 저희들이 인원 충원이 안 돼요. 현재 여기 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회원으로는 마을 농로 제초 작업할 때나 그럴 때는 터무니없이 인력 부족이어서. 고향에 살고 계시진 않지만 시내 살면서도 주말에는 와서 자기 고향 일을 열심히 봐주는 선배님들이 아주 많아요. (면담참여자 C12M)<sup>14)</sup>

14) 면담참여자 C12M은 C마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토박이주민으로 지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면담 당시 청년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차기에 청년회장을 맡을 예정이라 하였다. 2022년 사업장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4. 자생단체 회원 수

구분	연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한림읍 귀덕1리	2021	250	60	30
대정읍 인성리	2022	160	33	33
성산읍 수산1리	2022	230	40	20

자료: 각 마을회 『마을발전계획보고서』.

## 1. 기초생활기반조성사업

### 1-① 마을 폭낭 쉼터 정비/조성

#### 가.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마을 곳곳에 위치한 팽나무 그늘을 활용한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집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
- 수산1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과 함께 수산1리 마을 경관을 만끽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나. 기본 방향

-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쉼터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파손 및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한 정비와 개보수 작업을 실시함
- 기존 쉼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풍낭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쉼터를 신규 조성함

그림 10. 촌락 지역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신청 사례

자료: 『수산1리 마을발전계획보고서』, 수산1리 마을회 제공.

반대로 제주도 촌락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자생단체에서 노인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노인회원의 수가 청년회와 부녀회의 회원 수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년회원의 수는 부녀회에 비하여서도 적은 상황이다(표 4). 고령의 주민이 많아지면서 고령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의 이용이 활발해져 경로당을 새로 짓거나 확장, 보수하며 내부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시설 보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sup>15)</sup>, 촌락 내 팽나무 ‘폭낭’을 쉼터로 조성하고 활

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각 마을의 자금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기반조성’의 목적으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0).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관련 기관, 마을회 등에서는 고령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근로 프로그램, 어르신 정보화 교육, 경로잔치와 어르신 나들이 행사, 그리고 그 외 지역사회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11).

요새 뭐 합니까게. 집에 이서봤자, 집에 손주도 엇고 며느리도 엇고, 다 가부니까. 여기(경로당) 나와야 그래도 애깃거리가 뉘난. 밥도 같이 먹곡게, 안마의자에 앉앙 말도 곧고게. (면담참여자 A0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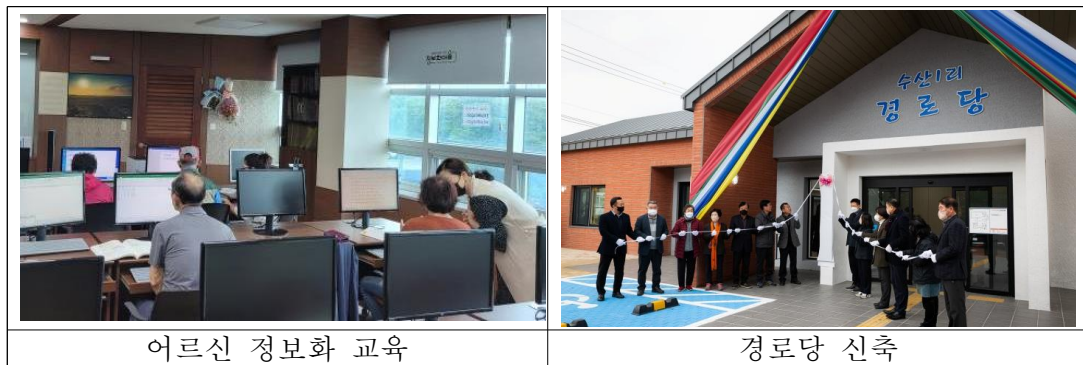


그림 11. 고령 주민 대상 수행 사례

자료: (좌, 우) 서귀포시 수산마을 홈페이지 (2023. 8. 검색)

한편 촌락의 농업 노동 인구 감소는 촌락공동체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의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생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감소는 재배할 작물을 선택함에 있어 생육 기간이 짧고 적은 노동력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선택하고 선호하게 하며, 대부분의 고령 농가가 서로 같은 작물을 동시에 선택하여 해당 작물이 과잉 재배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유발한다. 또 노동력의 보완을 위해 시설화·기계화의 의존도를 높여 시설투자비가 증가하고, 수확기에는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여서 일용 근로자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농업경영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5) 헤드라인제주, 2021년 4월 5일자, “서귀포시, 초고령 사회 진입 앞두고 경로당 시설 확충”,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858> (2023.8.11. 검색)



게다가 일손을 적기에 구할 수 없어 농작물의 수확을 아예 포기하거나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도 늘어나고 추세에 있다. 농업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지만, 여전히 농·어업의 많은 부분은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주도 촌락은 다양한 밭작물과 과수작물이 연중 재배·생산되는 지역으로, 5월 마늘 수확, 10-12월 감귤 수확, 11월-이듬해 3월 월동무·양배추·당근 수확 등에 노동 인력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도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농협과 행정시 관계자들과 함께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주요 작물별 농번기 인력수급 현황과 부족한 인력지원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부족한 일손 지원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림 12). 그러나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가끼리 품앗이를 하거나 민간 직업소개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품앗이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어렵고, 민간 직업소개소는 소개비 명목의 추가 비용이 발생으로 많은 인력이 일시에 필요한 파종, 수확기의 경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단점, 그리고 신뢰와 안전성 등의 문제도 나타난다. 여기에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좋지 않으면 급기야 수확을 포기하고 단적으로 ‘밭을 갈아 엎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림 12. 마을 주도 인력부족 문제 해결 노력

일례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2022년 5월부터 시작되는 마늘 수확 시 6만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농가 자체 인력,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sup>16)</sup>,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고용인력, 그리고 해병대, 법무부 사회봉

사명령 대상자 등 5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7,0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주도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1,624개 농가에 2만 8,00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sup>17)</sup>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인건비, 교통·숙박비, 외국인 계절근로자<sup>18)</sup> 직접 고용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촌락 내 인력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더불어 시장에서 마늘 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서 농가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타격을 입었다.

제주도 촌락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촌락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sup>19)</sup>. 농가는 매년 인력 부족에 고심하며 인력 지원 신청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농업경영비로 인한 부담으로 생산물의 수확까지도 한꺼번에 중간 유통 상인에게 넘겨 판매와 유통을 진행하는 포전매매(圃田賣買)<sup>20)</sup>도 발생하면서 생산물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활동에서도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어촌계의 공동작업을 통해 진행되는 해조류 채취 때에 수확한 해조류를 옮겨줄 인력이 없어 공동작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여러 해안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확을 허젠 해도 사람이 있어사는디. 시에 잇는 아이들신디 매일 오렌 할 수 잇는 것도 아니고. (돈) 좀 못 받아도게 (유통)상인한테 밧데기로 풀아볼믄(포전매매) 알앙 헐 거난. (면담참여자 H19F)<sup>21)</sup>

16)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적기 영농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농인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17)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13년 농협이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34개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안 2020년 192개소로 큰 폭으로 확대운영 하였고, 제주지역에서는 김녕농협과 고산농협에서 운영 중이다.

18) 제주의소리, 2023년 12월 5일자, “제주에 오니 월급이 5배” 감귤 따는 외국인 달라진 농촌 풍경,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691> (2023.12.5. 검색)

19) 뉴스1, 2023년 4월 17일자, “외국인 근로자 어디 없소?”...일당 11만원에도 농촌 일손 '부족' <https://www.news1.kr/articles/?5017692> (2023. 04. 17. 검색)

20) 농작물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전매매의 경우, 관리부실(병충해 방제의 미흡, 시비의 미흡)의 문제,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수거비용의 부담문제,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분명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1) 면담참여자 H19F는 결혼 후 H마을에 거주하는 제주 태생의 60대 여성 주민이다. 배우자 사망 후 홀로 과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자녀들은 제주 시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2023년 자택

툷은 잇는데 바당에서 툷을 허면 위로 꼬집어 올려야 됩니까. 마중헤 줄 사람이 엇수다. 남자가 멧 방울 이수과? 젊은 사람 하나도 엇인디. 툷 안 현 지 멧 년 뉘수 다. (면담참여자 B07F)<sup>22)</sup>

이와 같이 촌락의 노동 인구 감소 이슈는 농가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의 농가 소득은 도시 소득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는 영세 고령 농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으로 구성되며 이를 합한 국내 농가의 평균 소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각 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농업 소득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농외 소득과 이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의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의 비중은 2004년 41.6%의 비중을 차지한 이후 꾸준히 비중이 낮아져 2007년에는 농외 소득보다 적어졌으며, 2019년에는 이전 소득보다도 비중이 작아졌다. 어가의 평균 소득 또한 어업경영비가 계속해서 증가함으로써 어업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겸업 소득과 공적 보조금이 증가하여 각각 어업외 소득과 어업잡 수익, 이전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지역의 농가 소득 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그림 13). 제주의 평균 농가 소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각 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2010년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으로 약 43%를 차지하며 1,796만 원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농업 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5년 771만 원 정도로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이후 30% 전후의 비중을 갖고 있다. 반면 농외 소득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농가 소득에서 50-60%의 비중을 가지며, 이전 소득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3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에서 면담하였다.

22) 면담참여자 B07F는 B마을 태생의 90대 여성 주민으로 마을 내 최고령 해녀이다. 배우자 사망 후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근거리에서 며느리가 거주하여 왕래하고 있다. 2021년 자택에서 면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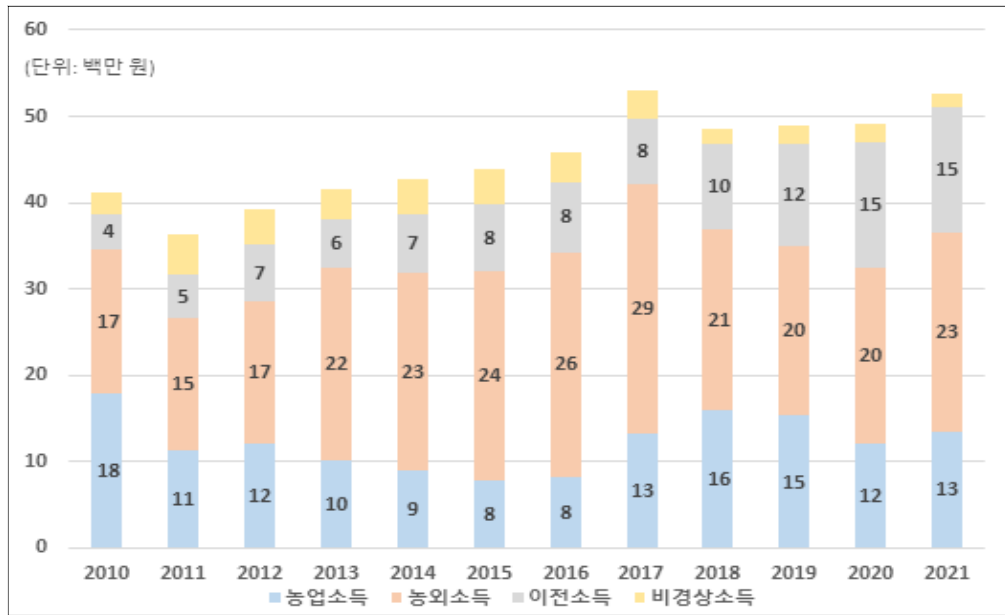


그림 13. 제주 농가 소득 변화(2010-202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물론 촌락 사회의 유지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농업 경제활동의 기회가 늘어나야 하고, 다면적 활동을 통한 농외 소득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촌락의 고령 경영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농업인 연금,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 소득 비중의 증가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오내원, 2020). 그럼에도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 비중의 감소는 농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점차 농외 소득의 몫으로 넘겨주고 촌락의 생업활동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감소시키는 변화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국가 산업 경제에서도 촌락이 차지하는 주요 먹거리 생산 기능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촌락의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력난은, ‘농사 짓지 않는 농촌, 어획 활동이 멈춘 어촌’으로 지역을 촌락으로 인식하게 하는 생업활동의 촌락성을 잃게 하며 결국 촌락의 지속가능성을 우려케 한다. 농가의 제한적 작물 재배와 농가 소득의 감소, 촌락 내 생활 경관 황폐화와 생활서비스의 질적 하락, 더불어 공동체 활동 수행과 공동체 유지의 어려움 등은 촌락 공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또다시 이농현상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이에 각 촌락과 지자체, 국가에서는 노동 인력 부족을 해

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고, 과소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하여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 유치하며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지원과 교육, 커뮤니티 구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촌락은 내국인 이주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으로 주민 구성에 다양성이 나타나고 네트워크가 혼재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와 같이 촌락 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자발적 이주로 인한 촌락의 인구 증가, 주민 구성의 혼성화, 주민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인구 유입과 주민 구성의 변화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이슈들로 꾸준히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었다. 적은 일자리,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 열악한 의료 서비스 환경 그리고 육지에 대한 동경 등은 인구 이동의 강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까지 제주 총인구 대비 읍면 지역 인구는 63.77%로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읍면에 거주하며 촌락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다(그림 14), 그러나 1981년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어 서귀포시로 승격되고,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의 지역 주민이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또는 육지부로의 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후 5년 사이 제주시 동 지역의 인구는 읍면의 인구를 앞섰다. 급기야 2010년 제주도 촌락 내 거주 인구는 총인구의 25%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귀농·귀촌 현상과 ‘제주 한 달 살기’ 열풍으로 표현된 트렌드의 변화로 유입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의 촌락 지역 인구도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제주도 촌락의 인구는 2010년 133,307명에서 2021년 189,470명으로 매년 평균 약 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촌락 인구의 증가에는 특히 청년, 장년 인구의 유입이 두드러지는데, 국내 다른 촌락 지역의 인구 유출 상황,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어 주목할 만하다. 연령대별로 보면(그림 15), 20-30대가 1만 3천여 명, 40-60대가 3만 4천여 명, 70-80대에서도 5

천 5백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앞서 제주도 농가 인구 피라미드(그림 9, p.41)에서 특히 유소년, 청·장년층 농가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던 현상과 비교할 때, 청·장년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주도 촌락 인구 유입의 특징으로 ‘청·장년 남성의 귀촌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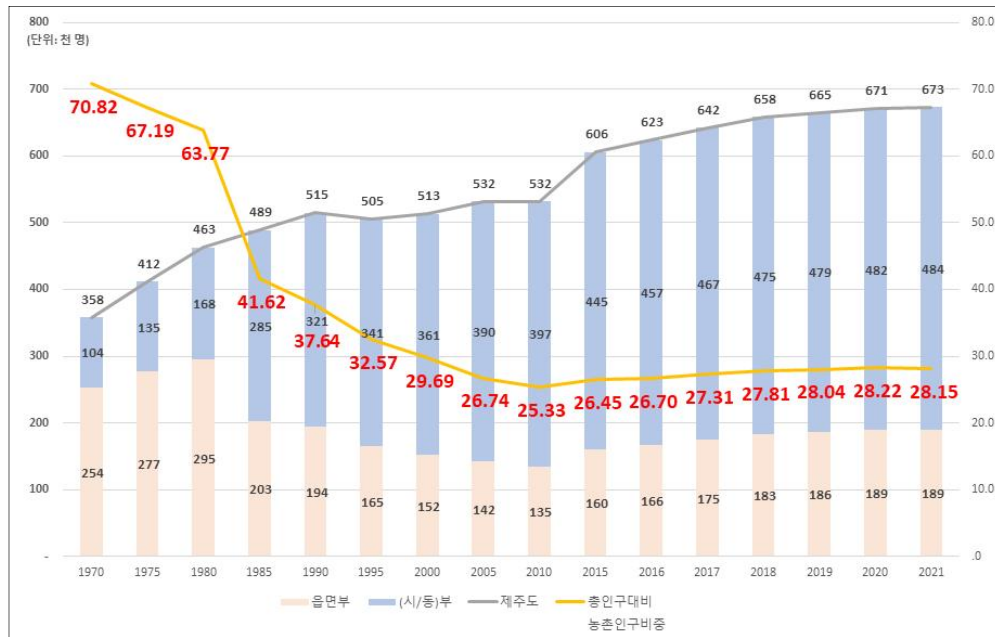


그림 14. 제주도 촌락 인구 변화

자료: 통계청 총조사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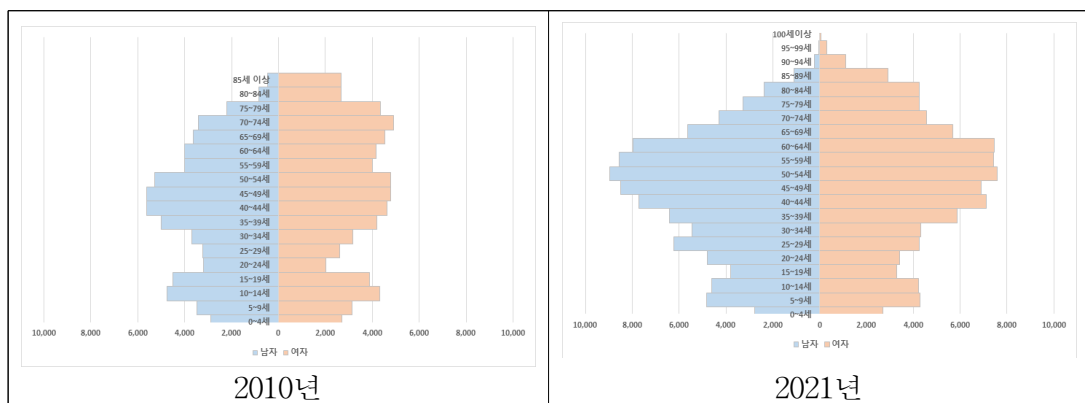


그림 15. 제주도 촌락 인구 피라미드

주: 2010년 통계청 조사에서 고령은 ‘85세 이상’으로 조사됨.

자료: 통계청 총조사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촌락으로의 이주를 추동하는 동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콘트리(Kontuly, 1998)는 2000년대 이전의 서구 선진 산업사회에서 보이는 이주 현상을 특징으로 바탕으로 하여 이주 동기를 연구하였다. 그는 직업·소득과 연관된 경제구조적 요인, 삶의 질 측면에서 갖는 공간적·환경적 요인, 주거 선호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꼽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나타난 촌락으로의 이주 동기는 보다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헬파크리(Halfacree, 2007)의 연구를 보면, “도시를 탈출한 중산층은 이주자를 구성하는 소수집단의 하나에 불과하며, 기피 일자리를 채우는 경제적 이주자,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복지 이주자, 삶의 질과 생활비 때문에 농촌으로 간 은퇴 이주자, 건강 이주자, 귀향 이주자 등”과 “휴양 활동을 위해 농촌으로 간 젊은 ‘삶의 질’ 추구 이주자와 ‘귀농’을 목표로 작은 농지를 구입한 촌락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이주자 등”을 소개하여(박경철 외 역, 2016: 224-225, 재인용), 촌락으로의 이주 동기를 사회구조적인 영역에서 나아가 보다 개별적 상황에서 그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촌락으로의 이주를 나타내는 ‘귀농’과 ‘귀촌’이라는 용어는 촌락으로의 이주에 경제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함을 내포한다. 이는 귀농·귀촌이라는 용어가 각각 촌락에서 농사 일을 하거나 농사 외의 일을 한다는 의미로, 촌락 공간에서 행해지는 생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촌락 이주자에게 경제적 동기는 이주 결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제주로 이주를 결정한 청·장년 세대 중에는 경제적 동기 이외에도 휴양과 생활양식과 같은 기회를 보다 중시하는 이주자도 다수 존재하며, 촌락성 담론에 부합해 보이는 장소를 이주지로 하며 ‘시내(도시)와 떨어져 있고, 더 시골같은’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먼저 이주해 온 친구들이 (제주)서쪽에 있었고 그때만 해도 OO리쪽이 인기를 끌어서 동쪽은 관광지 같은 느낌이랄까. 분위기가 동쪽보다는 서쪽이 좀더 편안했어요. 시골같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으나 공항에서 멀어지지 않고, 일도 해야하니가 유동인구가 너무 없으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읍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시내는 아닌데 교통이 나쁘지 않은 곳. (면담참여자 A03F\*)<sup>23)</sup>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코로나19 덕분’에 제주에서 살게 됐죠. 2019년 12월에 세계 일주를 떠났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하늘 길도 하나 들막히기 시작하고, 당분간은 여행하기 힘들겠단 판단이 서더라고요. 일단 귀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주로 오게 된 거죠. 제주라면 계속해서 여행하는 기분이 들 것 같더라고요. (면담참여자 J22F\*)

이러한 이주 동기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예비 이주자들에게 촌락으로의 이주를 사전에 단기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30대 청년 인구의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정착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생활문화 기반 청년 창업 지원과 같은 지원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워케이션(workation) 센터’ 마련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민간 또는 촌락 주도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우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촌락지역에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하며 촌락의 일상 생활과 일자리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림 16). 이후 도시민의 촌락 이주를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촌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으며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유형을 세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1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양 행정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마을활력과는 귀농·귀촌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관련 초기상담과 귀농·귀촌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실제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 이해, 영농 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와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2회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프로젝트참여형의 경우 만 18세 이상

23) 면담참여자 A03F\*는 40대 여성 이주민으로, 디자인 관련 일을 하다가 제주로 이주 후에는 기획, 강사 일을 생업 활동으로 하고 있다. 2021년 면담 당시 이주 9년차였으며, A마을 내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면담하였다.



-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2023년 하반기에는 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자에게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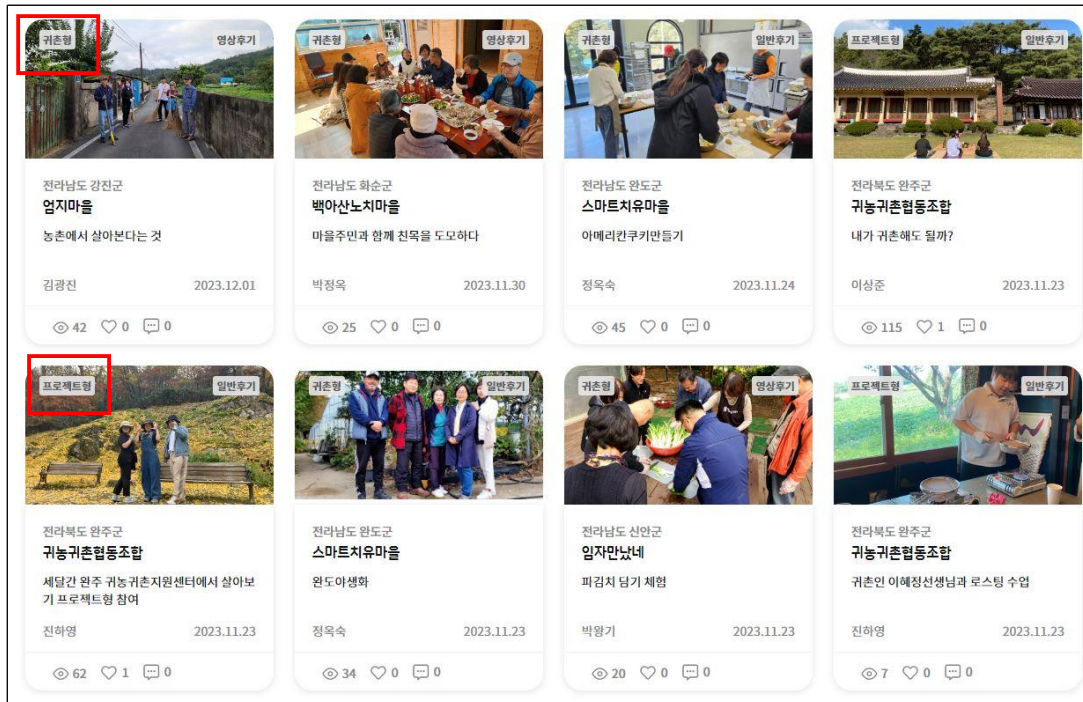


그림 16.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자료: 그린대로(대한민국 귀농귀촌 포털, 2023. 11. 25. 검색)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와 일·생활 균형, 텔레워크(telework)<sup>24)</sup> 등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워케이션<sup>25)</sup>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들 또한 시범 프로그램 도입과 스마트출근시스템이 구축된 공유 오피스 건립 등 워케이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23).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sup>26)</sup>에 따르면 직장인들

24)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 종류는 통근 부담 경감이 목적인 도시형, 지역 활성화가 목적인 전원형, 재해시 통근 수단의 대체가 목적인 재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멀티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근무 스타일로 주목된다(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25)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업무를 보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이 선호하는 워케이션 형태는 산, 바다 등 휴양지에서 업무를 하고 퇴근 후 휴식을 취하는 ‘휴양형(지역체류형)’이 74.9%로 가장 높았고, 도심 호텔에서 부대 서비스를 즐기며 휴식하는 ‘도심형’이 21.2%,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을 병행하는 ‘농촌·전통체험형’이 3.5%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지역은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워케이션 장소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7)</sup>. 2023년 12월 현재 제주도의 민간형 워케이션센터는 총 18곳이며 제주시에 12곳, 서귀포시에 6곳이 있다(그림 17). 이 중 제주시내와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곳이 8개이고 읍면 촌락에 위치한 곳은 10곳이다. 촌락에 위치한 워케이션센터는 공유 오피스와 통신 시설을 갖추어 사무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바다와 오름 등 제주의 대표적 자연환경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촌락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표 5) 워케이션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실제 2023년 제주 지역의 워케이션 참여자는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up>28)</sup>.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추진과 워케이션 환경의 조성은 단기적으로는 촌락 내에 일시적 거주하는 생활 인구<sup>29)</sup>를 늘리는 방법이며, 장기적으로는 촌락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정주 인구를 확보하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로 청·장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직접적으로는 촌락 내 청·장년 인구의 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촌락 내 일자리 증가와 지역 경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농현상의 완화, 농가 소득의 증대 또한 기대할 만하다. 한편으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와 워케이션 참여자가 촌락에 유입되면서 촌락에는 도시적 생활양식이 전이되어 촌락의 생활양식과 도시의 생활양식이 혼재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26)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10-11월 동안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7)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워케이션 선호지로 제주가 31.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원(19.5%), 서울(18.8%), 부산(14.2%), 경기(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8) 제주도는 2023년 도내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업체 16곳을 통해 워케이션 참여 인원을 파악한 결과, 도외 기업 임직원 9,76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사업은 타지역 기업 직원이 제주도 내 민간 오피스 시설을 이용하면 오피스(숙박료 포함)와 여가 프로그램 이용료를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9)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 등록된 정주인구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또는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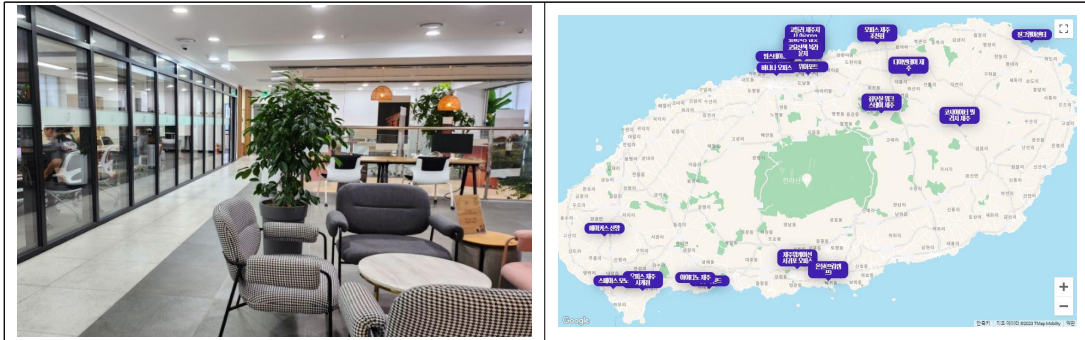


그림 17. 제주도 민간형 위케이션 현황

자료: (좌) 구좌읍 세화리(2022. 11. 촬영), (우) 제주위케이션 홈페이지

표 5. 제주 위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예시

자연체험형	마을체험형	문화체험형
돌고래 투어	선홍마을 바람길 투어	제주로컬푸드 쿠킹클래스
해변 노르딕 워킹	물피마을 치유 여행	힐링팜 농장즐기기
바다낚시	김녕 소도리 마을여행	아트트레킹(미술관+오름숲길)

자료: 제주위케이션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표 6. 2021년 제주 읍면지역 외국인 인구 분포 (단위: 명, %)

지역	전체인구	외국인	외국인 비율	도내 지역별 외국인 비중	
전국	51,738,071	1,649,967	3.19	-	
제주특별자치도	697,476	20,717	2.97	100	
제주시	한림읍	24,291	3,043	12.53	14.69
	애월읍	38,483	951	2.47	4.59
	구좌읍	15,948	551	3.45	2.66
	조천읍	26,032	494	1.90	2.38
	한경면	9,649	354	3.67	1.71
	추자면	1,840	254	13.80	1.23
	우도면	1,721	29	1.69	0.14
서귀포시	대정읍	23,851	1,654	6.93	7.98
	성산읍	16,734	1,234	7.37	5.96
	남원읍	19,248	584	3.03	2.82
	안덕면	12,721	493	3.88	2.38
	표선면	12,739	346	2.72	1.67

자료: 제주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외국인 수 기준 정렬.

촌락에서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유입도 촌락 공간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등록 외국인은 2021년 기준 20,717명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 인구의 약 2.97%로 전국 평균 약 3.19%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계 중국인, 네팔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주로 유입되었으며, 체류 자격별로는 거주(F-2), 비전문취업(E-9), 특정활동(E-7), 영주(F-5), 결혼이민(F-6), 선원취업(E-10) 순으로 자격을 획득하여 제주도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 읍면지역에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한림읍, 대정읍, 성산읍의 순이며, 지역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곳은 추자면, 한림읍, 성산읍의 순이다(표 6).

특히 한림읍은 지역 내 거주 인구의 외국인 비율도 높지만, 제주도 전체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한림읍은 반농반어의 생업 활동과 더불어 일부 지역은 양돈업, 양계업, 양마·목장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농공단지와 항구가 있어 가공 및 제조업, 유통업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구조가 다양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 유형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노동력 공급의 한계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선이 대형화되어 어업 활동에 더 많은 선원을 필요로 하면서 촌락공동체 안에서는 생업 활동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며, 현실적으로 이들이 촌락 경제에 일정 부분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예전에 한국 선원들이 했는데, 이제 한국 선원들은 일당도 비싸고 안 하니까. 한 배에 7~8명 타는데 거의 대부분 외국인, 한 20대 초반 막 젊은 사람들이예요. 중국 인도 많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하여튼 여러 나라 사람. 예전에는 배들도 소형이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거의 외국인들 많이 써요. 참조기, 그 노란 굴 비 잡는 배가 예전에는 한 20척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배가 한 80척. 유자망 하는 배가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금약, 거기 농공단지들에도, 돈사(양돈업)하는 데도 외국인들 많이 있죠. 그 말 하는 데(목장)도. (면담참여자 N26F)

이제 외국인 엿이민 물고기 못 잡아. 누가 이런 일을 허젠 허나게. (나는) 이젠 늙 영 배는 못헤여. 선장은 따로 있어. 우리 선장. 육지서 왕 꽤 뵈주. 나 아래서 삼십 년 헤서. 출항하른 바다에서 한참 사느디, 이젠 늙영 못헤. (면담참여자 B09M)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국인 근로자들을 촌락 공간의 행위자로, 촌락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촌락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촌락 공간 내에서 일상생활과 생업활동을 함께 하고 있음에도, 권력에 의한 무시와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촌락공동체와 구조적·지리적으로 격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나 앞으로 촌락의 생업 활동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점차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촌락 주민 구성·문화·경관의 혼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법령에서 등록된 외국인은 이미 생활인구로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소비층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장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 다양해지고 있다. 제주 촌락 공간의 일상 경관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업 활동 모습, 일상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생활용품점의 수가 늘어나 경관이 변화하고 문화적 교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림에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아시아 음식점들도 많아졌어요. 한림에 양식장 갔더니 직원인 외국인 근로자가 응대하더라고요. 대정(읍)에 해안도로 따라서도 양식장들이 많아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외국인 노동자들 짐 나르는 모습,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는 모습 종종 봐요. 한림이나 한경(면)에도 양식장 많으니 까 저희가 미처 못봤을 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을 것 같아요. (면담참여자 J22F\*)<sup>30)</sup>

외국인들 생활용품 파는 데는 많아진 거 같은데요. 특별히 외국인들 가는 음식점이 많아졌다는 건 모르겠고. 근데 외국인들 웬만하면 (우리나라 음식) 거의 잘 먹는데.회는 안 먹는 것 같긴 하지만. (면담참여자 N26F)

제주도 촌락의 인구 유입은 크게 내국인의 정주 이주, 일시적 생활인구 이주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생활 트렌트의 변화로 제주도에 내국인의 정주 이주가 꾸준히 나타나며 특히 청·장년층의 사회적 이동이 많아 촌락의 주민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또 촌락에서 단

30) 면담참여자 J22F\*는 대구에서 제주로 이주한 지 4년차의 40대 여성 주민으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면담참여자의 직업 특성상 인터뷰의 경험이 많았으며 평소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편이라 밝혔다. 2023년 한경면의 카페에서 면담하였다.

기가 거주하며 촌락을 경험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워케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촌락의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어 촌락 내 주민 구성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는 문화의 주체이자 생산자이고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산물로, 촌락으로의 인구 이동과 유입은 곧 문화의 이동과 유입이며 촌락 공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촌락의 기반 산업이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다양해지고, 자연스럽게 외부의 생활양식이 전달되며 문화적 혼성화가 야기된다. 생활양식면에서도 도시적, 세계적 생활양식이 촌락 내에 유입되어 혼재되면서, 단일하고 고유한 특징을 가진 특정 지역을 촌락이라 인식하게 하는 촌락성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 3. 촌락 주민의 혼성화와 ‘마을 사람’ 정체성

1960년대 도시화가 진행된 이래로 2023년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일자리와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 의료 수혜의 가능성과 같은 도시의 흡인 요인과 더불어 무리한 노동과 빈곤, 자연재해와 같은 촌락의 배출 요인에 의해 촌락 인구의 이동이 추동된 결과이다. 그러는 사이 촌락은 주변 지역, 변두리로 인식되고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능·역할의 마비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지방 소멸을 염려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귀농·귀촌 현상으로 촌락은 전환점을 맞았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촌락 공간 내 인구 구성의 불균형 완화, 토지 이용 및 생활환경 변화 등 촌락의 구조적 특성과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오수호, 2011). 촌락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주민 구성의 양적·질적인 변화는 촌락마다 상황적이지만 촌락 주민 구성의 다변화로 인하여 공동체성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늘날의 촌락공동체는 뒤르켐(Durkeim)이 언급한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의 특징을 여전히 가지면서도 동시에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의 특징을 갖는다. 촌락이라 하더라도 농촌·어촌·산촌의 환경적 차이와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성격은 다양하다. 정도와 상황의 차이로 어느 지역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기계적 연대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지역은 전통 사회가 요구하던 공통의 신념이나 가치가 약화된 유기적 연대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촌락 공간에서 공동체의 성격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이행된다기보다 두 성격이 혼재하며 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촌락 주민 구성의 혼재, 촌락공동체 성격의 혼재는 촌락의 주민의 혼성화를 나타내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촌락지역의 전출입 이주뿐 아니라 촌락주민과 도시민의 이동성 증가 역시 촌락공동체의 혼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촌락주민의 도시 통근, 레저와 쇼핑 목적의 일상적 이동과 교육이나 일자리를 위한 장기 이동, 도시민의 ‘일 년 살기, 한 달 살기’와 워케이션 형태의 일시적 촌락 거주 경험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트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동성의 증가는 촌락공동체에게 변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촌락공동체의 기존 구조와 관행이 주말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되고, 수행에 비협조적이거나 공동체성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 주민도 나타난다. 또 도시적 생활양식을 유지한 상태로 촌락공동체의 공간과 구조를 경험하는 도시민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혼재, 공동체 수행 방식의 변화와 수용 태도의 변화, 주민 사이의 갈등도 촌락 공간이 혼성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촌락 내부에서는 농가 인구의 감소와 귀촌인의 증가로 주민 구성의 변화가 나타나 촌락 공간 내 농민과 촌락공동체의 유대가 약화되고 촌락 생활에서 기존에 농업이 갖던 지배적 지위는 흔들리고 있다. 근대화의 흐름은 촌락 내에서도 2차와 3차 산업의 규모를 증가시켰고 이는 농업이 차지하던 압도적 위치를 위태롭게 하였다. 주민들이 공통의 생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서 농업 인구와 비농업 인구 간의 상호작용 기회는 줄어들었다. 비농업 인구, 도시 이주민에게 기존 촌락공동체의 수행 방식은 경험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며, 촌락에서의 공동체와 도시에서의 공동체의 형태와 그 성격은 차이가 있다.

도시의 생활양식과 촌락에서의 생활양식의 혼재와 그 간극을 좁히는 소통의

기회 부재로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주자들 중에는 촌락성에 대한 기대로 ‘이주한 곳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move-in and join-in)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유연하고 느슨한 유대감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촌락공동체에서 확립된 구조와 관행들을 기피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이 약하고 개인 삶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도 관찰되며, 제주도 촌락공동체의 배타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여기(제주영어교육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주민이고, ‘무슨 리’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여기가 OO리라고 하는 것도 애들 학교 때문에 알았어요. 어떤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OO리 주민들도 몰라요. (면담참여자 E16F\*)<sup>31)</sup>

주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활방식도 존중받고 싶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면담참여자 D15M\*)<sup>32)</sup>

제주도는 육지 사람이 오면 최소 3대가 뿌리내리고 살아야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하던데. 근데 사실 너무나 이해가 되거든요. 정 줄만 하면 떠나니까, 육지사람들은. 그래서 일부러 굳이 막 제주사람들 틈에 끼고 싶진 않아요. 부담을 드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되면, 친해질 사람은 친해지는 거니까. 솔직히 육지에 살 때도 굳이 이웃이나 동네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육지에서든 제주에서든, 그냥 자연스럽게. (면담참여자 I21M\*)<sup>33)</sup>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더불어 지역개발이 가속화되었고 2010년 제주로의 이주 열풍에 따른 인구 유입과 맞물리면서 촌락공동체 내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가 혼재되고 이는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당초 정착주민 지원만을 위해 시행되어 오던 조례를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31) 면담참여자 E16F\*는 경기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지 4년차의 40대 사무직 여성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며 자녀들은 국제학교가 아닌 대정읍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 2022년 근무지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32) 면담참여자 D15M\*은 은퇴 후 2년 전 제주 D마을로 이주한 60대 남성 주민이다. 마을 내에서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의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 2020년 사업장에서 면담하였다.

33) 면담참여자 I21M\*은 제주로 이주한 지 4년된 40대 남성 주민이다. 영상감독으로 제주의 공공기관 사업 영상, 각종 축제와 행사의 스케치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다. 2023년 한림읍의 카페에서 면담하였다.



위한 조례」로 개정하였다<sup>34)</sup>. 타지역에서 전입해 온 이주민들과 기존 주민들 간 경제·사회·문화적 갈등이 커지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정착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적응하도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촌락공동체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김일순 외, 2021).

제주도 촌락은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생활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공통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동작업을 통해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고, 조직을 결성하여 효율을 높이는 등 공동의 경험과 독자적인 공통의 규범을 통해 촌락 사회의 단결성을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였다(부혜진, 2015). 과거 제주도의 촌락은 대체로 다양한 성씨로 이루어진 혼성취락(混姓村) 문화권으로, 문중 조직이 형성·강화될 기반이 약해 타지역과는 달리 친족보다는 공동생활권에 정주하는 주민 모두가 강한 결속을 드러내는 ‘켄당’ 공동체, 즉 근린 지연공동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송성대, 2019).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공동생활권을 공유하는 ‘마을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촌락공동체에게 ‘마을 사람’은 촌락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방식을 습득한 사람이며, 해당 촌락의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고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고유한 지리적 지식 체계를 갖춘 사람이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수 세기에 걸쳐 사용되면서 때때로 검증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제도, 관계 및 의식에 내재해 있으며,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해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토착지식(손명철, 2021)을 아는 사람이 곧 ‘마을 사람’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착지식은 지역민이 특수한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식을 말한다(Warren, 1991; 설병수, 2021). 다시 말해, 그것은 현대의 과학과 기술에 토대를 둔 보편적 지식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 및 인문환경에 적응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체득하고 전승해 온 고유한 지식인 것이다(손명철 2021). 토착지식은 특정 사람들 및 그 영토와 관계된, 세대에서 세대

34)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7년에는 기존 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였다.

로 이어져 오는 모든 지식으로 구성되며,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싼 자연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생성된 지적 유산이며, 그들만의 세계관, 관습,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Battiste and Henderson, 2000; Hart, 2010; Johnson, 1992; 이지혜·신동희 2017: 377, 재인용). 토착은 “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있음 또는 그곳에 들어와 정주함”으로서 전통의 ‘시간’과 향토와 지역의 ‘장소’ 모두를 포함한다(문현식·김민호 2020: 146). 이런 맥락에서 ‘마을 사람’은 마을의 생활 경관을 알고 공동체의 의미와 장소 귀속감을 획득한 사람이다.

여기는 진흙하고 그 까만흙하고 반질이에요. 그니까 유기질 비료라든가 거름이 많이 들어가요. 농사짓기가 영 까다로워요. 딴 데는 쪽파같은 것도 뽑으면 흙이 달달 떨어지는데 여기는 흙이 달랑달랑 붙어 올라와요. (면담참여자 B06M)<sup>35)</sup>

육십 땀, 칠십 년도인가. 이 미신 타파 해가지고이, 그런 당 7땀 것도 막 없애 볼지 안 했냐. 미신 타파할 적에. 당이 세다 해서. (면담참여자 B09M)

하퍼(Harper)는 “시골의 방식을 얼마나 배우고 채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지역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라 하였다. ‘지역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즉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마을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며, 의식과 전통에 참여하고,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박경철 외 역, 2016: 279-280). 이러한 이유에서 귀촌인과 귀농인, 그리고 외국인이 기존의 지역주민에게 촌락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주민 스스로의 공동체 방식 채택과 더불어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토착지식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채택하고 수용하면서 조정되어 온 ‘역동적 아카이브’(dynamic archive)이다(Ocholla and Onyanha, 2005). 이주민의 유입으로 촌락 주민 구성이 혼성화되는 상황은 토착지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동체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주민과 외국인이 ‘마을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에는 기존 주민들의 포용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5) 면담참여자 B06M은 B마을에 거주하는 제주 태생의 70대 남성 주민으로, 어업을 주 생업 활동으로 하며 농사도 겸하였다. 2021년 면담 당시에는 어부 일은 하지 않고 밭농사만 하는 상황이었다. B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어촌계 공동작업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김일순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의 읍·면 지역 마을 146개 마을 중 76%에 해당하는 111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 리민, 곧 ‘마을 사람’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 32개 마을은 주민등록 전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표 7). 이 일정 기간은 촌락 마을마다 상이한데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30년까지 거주 유지 조건을 정하여 부여하고 있다. 즉, 해당 마을 출생자가 아닌 타지역출생 전입자는 마을에 거주하면서 촌락의 구성원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마을의 풍습과 제도를 익혀야 리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마을 소유 공동 재산이 있는 마을은 리민의 청구권 이슈가 있어 리민 자격 부여 요건이 더욱 강한 측면이 나타난다<sup>36)</sup>. 이 마을들은 20년 이상, 30년 이상 거주해야 ‘마을 사람’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김일순 외, 2021).

표 7. 지역별 리민 자격 부여 조건

구분	계	전입 후 실제 거주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규정 없음	준리민
계	146	111	1	6	7	1	5	3	5	2	2	3	27
제주시	89	67	1	5	5	1	5	1	2	0	0	2	13
서귀포시	57	44	0	1	2	0	0	2	3	2	2	1	14

자료: 김일순 외, 2021: 212.

마을 사업 할 때 저희도 (협동조합원) 구좌를 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향약) 기준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었는데, 남편이 딱 9년차일 때라 못 했어요. 돈 벌려고 구좌 넣는다고보다 우리도 마을 사람이니까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면담참여자 C13F\*)<sup>37)</sup>

일부 촌락에서는 향약에 의거하여 리민의 조건을 적용하여 혼성화의 변화 속에서도 공동체의 요건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김일순 등

36) 노컷뉴스, 2016년 10월 24일자, 백종원이 매입한 마을회 재산놓고 주민 갈등, <https://www.nocutnews.co.kr/news/4673227> (2022. 12.20. 검색)

37) 면담참여자 C13F\*는 40대 여성으로 제주 거주 6년차 이주민이다. 제주에 이주한 이후 당시 이주 4년차였던 이주민 남성과 혼인하였다. 두 사람은 C마을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며 지역공동체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사업장에서 면담하였다.

(2021)은 리민의 자격을 갖기 전 마을 공동사업 또는 총회 등에 참여하여 이주민들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공동사업으로 얻어진 이익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주민에 대한 참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주민들이 공동체 적응과 참여의 정도, 기존 지역주민들이 이주민을 수용하고 협조하는 정도에 따라 이주민의 소속감 형성과 마을의 정체성, 촌락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제주도 촌락 주민 구성의 혼성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촌락의 생업활동 인구의 감소는 생업 활동의 제한과 농가 소득 감소, 공동체 수행의 어려움을 유발하여 촌락성을 해쳐 촌락 공간의 지속가능성 염려케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촌락 공간으로 이주자, 생활인구,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이어지며 주민 구성이 혼성화되고 촌락 지역의 산업, 공공서비스, 공동체,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촌락성과 도시성을 보이는 특징이 혼재되고 수용, 변용되는 방식으로 제주도 촌락 공간이 혼성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인다. 한편으로 제주도 촌락 공간의 주민 구성이 혼성화되면서 ‘마을 사람’에 대한 범위와 이주민의 수용의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마을 사람’ 정체성의 획득과 토착 지식의 내재화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향약을 통한 리민의 자격을 유연하게 변경하고 공동체의 수행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제주도 촌락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제주도 촌락성 수행과 소속감의 혼성화

### 1. 제주도 촌락의 촌락성 수행

앞서 촌락 공간의 주 행위자인 주민 구성의 혼성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행위자들은 촌락 공간에서 생로병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생업 활동을 하며 안녕을 기원(祈願)한다. 이와 같이 일상적 행위나 기획·연출된 의례, 촌락적 생활양식 등 주민 개인과 집단을 통해 표출되는 행사·행위들을 수행(performance)이라 하며, 행위 주체의 혼성적 변화는 수행의 혼성적 변화로 연결된다.

촌락 주민들은 일생의례와 세시풍속의 수행 경험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 유지에 동참하였다. 일생의례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 단계부터 출생과 성장, 혼인, 죽음과 사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엄숙하고 성대하게 치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세시풍속은 농경, 어로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촌락에서 행해지는 예축하고 기원하는 의례로, 육지부의 일부 문중에서는 근래까지 한식, 단오, 동지 등에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친척, 공동체의 시간과 정성, 협력과 배려뿐만 아니라 경제적·물질적인 수준의 지원 또한 요구된다(문순덕, 2021).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례와 행사,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된 의미와 표상, 생활양식들은, 여전히 촌락 공간 안에서 전통 또는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다분히 시골스러운 것, 촌락성의 요소로 그려지고 있다. 전통적 생활양식과 활동의 재현은 촌락 공간 구성원의 사회성을 회복하는 일임과 동시에 독특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어렵고 촌락의 정체성을 강화고 주민의 결속을 강화한다. 한편으로 도시의 시선에서는 촌락성의 수행이 경험해보고 싶은 흥미로운 수행 대상이며 희소성이 있는 상품으로 인식된다(정암 역, 2015)<sup>38</sup>).

38) 대외적으로 1980년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농업 구조조정·재구조화(Agricultural restructuring) 정책으로 나타난 개방과 규제 등으로 촌락은 사

촌락의 주민들은 보유한 자원에서 세계적 수준에서의 문화유산 가치를 발견하고 유네스코와 같은 유산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며,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일정부분의 희생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회마을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표 9).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에 기반한 마을의 입지와 출신 인물들의 역사적 업적, 유교적 생활양식의 전승 등에서 동족집단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촌락 공간이다. 특히 고문서와 유교 의례, 마을 신앙, 민속 놀이 등 양반문화와 마을 문화의 가치, 인류 역사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과 건축적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안동하회마을 홈페이지). 하회마을은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며 국내외 관광객과 국민, 유명 인사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이에 하회마을 공동체는 관광객의 촌락성 경험이 가능하도록 고유의 자원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촌락의 장소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표 8. 하회마을 체험프로그램

구분		내용
의례	전통상례	전통방식의 상여놀이 시연과 체험
	전통혼례	전통적인 신행행렬(가마행렬) 시연과 체험
교육	서원스태이	병산서원 체험, 유교문화길 걷기
	강학	하회 특강
민속	세시풍속	선유줄불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마을장인체험	짚 공예장, 짚 활용 전통 생활물품 공예 체험
	전통 생활양식	접빈다례·예절교육, 가훈쓰기, 다듬이질, 맷돌, 절구 체험, 하회병풍도 만들기

자료: 안동하회마을 홈페이지(2023. 5. 검색)

회적·경제적 위기 속에서 기능을 다각화하였다. 촌락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상업적 수행은 촌락성의 상업적 활용 성장을 유도한다(Kneafsey, 2001; Mackay et al., 2009, 재인용). 레이(Ray, 1998; 1999)는 지역 내 유·무형의 고유자원(endogenous resources)을 '문화 표식(cultural marker)'이라 하였으며, 고유자원의 가치를 통해 촌락의 장소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함으로써 독특한 장소 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Mackay et al., 2009). 이렇게 창출된 장소 상품은 관광객들에게 촌락성의 경험으로 제공되고 관광 개발로 이어져 문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Butler, 1998; Butler et al., 1998; Gill, 1999; Moon, 2002). 선진국의 촌락에서는 이미 지역의 농업, 자연, 경관, 문화, 생태적 특성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상품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정환 외, 2017).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광객의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전통 유산은 선택과 배제를 통해 명료화, 상품화되고, 외부 관광객은 전통 유산의 일부, 촌락성의 일부만을 소비한다. 또 이 과정에서 촌락성의 수행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것, 공간적으로는 촌락의 것을 수행하는 행위로 인식하며, 현대의 것, 도시의 것은 촌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절되게 생각된다. 하지만 촌락의 수행은 일생의례, 세시풍속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들이며 촌락 내의 변화에 맞게 수행의 종류와 방식 또한 변화되고 있다.

표 9. 제주도 촌락공동체 수행 연간 일정 예시

구분	구분	시기	장소	비고
의결	정기총회	1월 15일 - 20일	마을회관	마을회
	임시총회	수시	마을회관	마을회
	예산총회	11월 중	마을회관	마을회
	결산총회	12월 중	마을회관	마을회
	자생단체 총회	12월 - 1월 중		각 자생단체
제의	포제	음력 1월 일주일 전후	OO당	마을회
	풍어제	음력 1월 15일	포구	어촌계 어부회
	영등굿	음력 2월 13일	OO당 /포구	어촌계 잠수회
경로	신년하례 /합동세배	음력 설 이튿날	마을회관	노인회/부녀회
	경로잔치	아버이날	마을회관	부녀회
체육대회	리 단위	작수년도 4월 말	초등학교	청년회
	읍 단위	홀수년도 4월 말 - 5월 초	지역 체육관	지역연합청년회
환경정비	마을청소	분기별, 명절(설, 추석)		마을회
	농로·하천 풀베기	분기별		청년회
	화단꽃심기	봄, 가을		부녀회
	영농폐기물 수거	연중 (비료 살포, 농산물 수확 시기)		부녀회
마을사업 관련	현장포럼	4회		마을회/지자체
	선진지견학	1회		마을회
	추진위원회의	수시		추진위원회

주 1: 면담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시임.

주 2: 마을사업과 관련된 수행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만 수행함.

제주도 촌락 공간에서 촌락공동체의 수행은 일생의례와 세시풍속과 더불어 주민 화합, 소득 증대, 환경 정비, 공동체 돌봄 등과 같이 다양화되어 연중 이루어지고 있다(표 9). 성인인 주민은 연령과 성별, 목적과 역할에 따라 구성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소속되고, 각 자생단체는 촌락공동체의 수행을 주도하여 실천한다. 대체로 주민 의견 수렴과 의결을 위한 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 경로와 단합을 위한 의례와 체육대회, 마을 경관 정비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 사업 관련한 수행들이 1년 내내 진행된다. 때문에 제주도 촌락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수행은 일상에서 시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배려와 협력, 금전적 지원도 필요한 일이다.

촌락 공간에서 출생하고 정서적, 문화적 기반을 두고 성장한 주민들의 경우, 촌락공동체의 수행을 당위적으로 수용하고 마땅히 함께 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마을의 의례, 마을에서 행해지는 공동체의 모든 행위는 마을 사람의 역할이자 시간과 정성, 협력과 배려가 당연히 요구되고 응당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촌락성 수행과 같은 사회적 상호관계 및 상호의존성의 창조·확대·강화의 경험은 주민의 의식 발전도 수반한다. 스테거(Steger, 2003)는 공동체의 수행을 통해 마을, 지역, 공동체를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체성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촌락공동체의 수행은 감감적, 정서적, 본능적인 방법으로 촌락 공간에 개입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제주도 촌락에서 이러한 장치는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의·민속과 관련된 수행들에 대해서는 특히 보수적인 측면을 보인다. 대내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촌락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하며 공동체 수행의 혼성적 측면을 보여준다. 일부 촌락의 주민들은 외부에서 촌락을 바라보는 기능적 관점의 측면에서 촌락공동체의 수행을 환경·경관의 보전과 전통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식하기도 하며, 세속화되고 탈제의화(脫祭儀化)되는 과정에서 간소화되거나 혼성화되고 수행 자체가 중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고유성에 따라 외부의 변화가 도내로 유입되는 시간차가 일부 존재하여 타지역에 비해 변화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제주 지역 유교식 제례 문화를 통해 드러나는데, 오늘날 제주



지역의 제례문화는 타지역에 비해 유교적인 형태를 많이 보존하고 있다(신승배 외, 2018). 특히 매년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포제<sup>39)</sup>는 촌락에서만 아니라 제주 시내 동 지역의 자연마을 단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례로 여겨지고 수행되고 있다(그림 18). 공동체의 수행에 대해 날짜나 장소, 복장과 절차, 순서나 금기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통적 행동 관행, 복장, 대화법, 움직임은 지역공동체·경관·주민에 대한 감각화된 지식을 통해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의례 문화의 유지는 자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공동체의 결속과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포제는 날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날을 봐요. 새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날을 잡았는데 '영장(장례)이 났다' 그러면 날을 다시 봐요. (면담참여자 D14F)<sup>40)</sup>

우리 마을은 바닷가라서 상어, 새끼 상어고기 올리고, 닭도 올리고, 소고기도 올리고. 근데 돼지고기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들여서도 안 돼요. 마을 포제 2, 3일 전부터는 아예 돼지고기를 건들지 않고요.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마을회관에 오지도 못해요. 저는 돼지고기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포제 3, 4일 전부터는 가게에 안 나와요. (면담참여자 C12M)



그림 18. 포제

주: (좌) 표선면 가시리, 2021, (우) 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 2014

자료: 제주학아카이브

39) 포제(酬祭)는 논밭의 충해가 심할 때에 그 피해를 물리치기 위하여 지내던 제사로, 제주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유교식 마을 제사를 이른다. 동제(洞祭), 리포제(里酬祭), 별포제, 리사제 등의 이칭이 있다. 포제(酬祭)의 대상은 포신(酬神)으로 마을의 제반 일을 관장하고 보호해 주는 신이며 마을에 따라 다른 신을 함께 제사하기도 한다. 포제는 대부분 정월에 지내고 드물게 7월에 지내기도 하는데, 정월에 지내는 경우 입춘이 지난 뒤에 날을 택하여 벌이는 것이 보통이다(강정식,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40) 면담참여자 D14F는 D마을회 사무장으로 50대 여성 주민이다. 농사도 짓고 10년 이상 마을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부녀회원이기도 하다. 2022년 마을회관 사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촌락공동체는 지역 안에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며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는 사이,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신앙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공통의 신앙은 주민의 가치관과 관습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한다. 또한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 특성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유사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이해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며 혼성화를 가져오기도 한다(송오식, 2022).

제주도 촌락에서 행해지는 유교식의 포제는 남성 주민에 의해 주도된다면, 당제, 당굿, 풍어제, 영등굿, 마불림제 등의 민간신앙 의례는 예식을 주도하는 심방과 수행의 주체가 되는 당골, 대체로 여성 주민에 의해 수행된다(그림 19). 신앙 의례는 정성을 들여 기원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는 사고가 강하게 작동하므로 신앙공동체의 수행에서는 권력과 금기와 경계, 배제가 내재하게 된다. 일부의 제주도 촌락에서는 제상(祭床)에 올릴 전복과 소라는 해녀회의 지정된 해녀가 직접 잡아온 것을 사용하며, 제물의 장만과 진설은 원칙적으로 해녀회에서 지정한 사람만 하도록 하는 사례도 보인다(고은솔 외, 2021).



그림 19. 송당본향당제(2019)

자료: (좌, 우)제주학아카이브

제물 꺾는 것도 제물 멘들아난 사름만 제지낼 거 꺾곡. 차롱더레 꺾곡. 차롱에 행강은에 사라에 올리는 거. 나도 시지근히 제지내는 디 뎡것주마는. 난 작년부터 늑언 안 뎡기켄 허연, 안 뎡겨.(제물 꺾는 것도 제물 만들었던 사람만 제지낼 거 꺾고.

채룽에 괴고. 채룽에 해 가서 접시에 올리는 거. 나도 질리도록 제 지내는 데 다녔지만. 난 작년부터 늙어서 안 다니겠다고 해서, 안 다녀.(고은솔 외, 2021: 157)

옛날에는 삼제관을 성씨 별로 ○씨, ○씨, ○씨 한 사람씩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요즘에는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어촌계, 수리계, 제주시 향우회 등 각 단체에서 한 사람씩, 꼭 장(長)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추천해서, 다섯 명이 제관을 하죠. (면담참여자 C11M)<sup>41)</sup>

현실적으로 촌락공동체 내 수행 주민의 고령화와 감소, 참가자 제한, 생업 환경의 변화와 사고 방식의 변화와 같은 한계로, 공동체의 수행은 점차 형식보다는 수행의 지속과 의미 전승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보다 대중적이고 탈제의화(脫祭儀化)된 행사인 마을 잔치와 축제, 체육대회, 환경정비 등을 통해 공동체가 실천되고 있다. 이전 형태의 공동체 수행이 사람들을 한데 묶고 공유된 지식과 경험을 전승하는 장이 되었다면 근래의 관행들은 사회적 자본의 구축에 필요한 접착제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잔치나 축제,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들은 모든 세대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모두에게 잘 알려지고 공개된 공간에서 수행된다. 게다가 주도자와 참여자의 경계가 제의식 수행에서보다 특정적이지 않아 권력과 배제의 요소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이주민들은 촌락으로의 이주를 염두하였을 때 공동체의 전통 유산 보전 행위 등 공동체의 행사에서 촌락성을 기대하였을 것이나, 실제 촌락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행 참여는 여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촌락에서 촌락성이 수행되는 방식은 배타적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배타적으로 촌락의 정체성을 실행하는 의례의 중요성과 지식 형태를 자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촌락공동체의 일원으로 촌락성을 수행하는 것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한 촌락의 표상을 뛰어넘어 체화된 방식으로 주민과 촌락 공간을 연결하는 행위이다. 촌락의 정체성과 촌락의 실재를 구성하는 관행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실행은 표상의 형식만 큼이나 중요하다(박경철 외 역, 2016). 이주민의 수행 참여는 ‘마을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마을에 대한 소속감 획득과 더불어, 마을의 실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

41) 면담참여자 C11M은 50대 남성으로 토박이 주민이다. 농업에 종사하며 C마을의 이장을 지냈다. 2022년 마을회관 사무실에서 면담하였다.

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에서 배제된 개인은 촌락의 소속감 획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촌락 정체성의 획득 또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박경철 외 역, 2016). 때문에 보다 비격식적이며 다수에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형태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정비, 체육대회나 축제, 잔치, 콘테스트 참여는 비격식의 행사로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됨으로써 공동체의 수행에 동참하고 공동체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그림 20). 특히 이주민에게는 이러한 비격식의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시간과 정성, 협력과 배려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며, 주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 및 상호의존성의 창조·확대·강화의 경험이 된다. 일부의 이주민들은 물질적인 지원 또는 재능 기부를 통해 공동체의 수행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0. 제주도 촌락공동체 행사

자료: (좌) 제주학아카이브

저희 남편도 청년회 활동을 하고 행사나 체육대회 때 가서 드론 띄워서 촬영도 한두 번 해드리고 하더라구요. 이번 체육대회에는 찬조하고 식사도 하고 왔는데, 건강이 좀 회복되면 저도 같이 출전해보고 싶어요. (면담참여자 C13F\*)

체육대회나 연초에 포제에 참석해요. 기부금이라고 해야하나, 부조들고 가죠. (경조사에) 부조하거나 명절에 선물이라도 챙겨드리면 꼭 인사 오시고 굴 딸 때는 굴도 주시고, 생선 잡으면 주고 가시고, 고구마도 한 상자씩 주시고. (면담참여자 C10F\*)

처음엔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문화로 접촉하다 보니까 뭐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

니까. 이주민들도 이제 스스로없이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행복마을콘테스트에 나갔어요. 거기 나가기까지가 정말 치열하잖아요. 2천여 개 마을을 심사를 하고 실사 나오시고, 또 그리고 브리핑도 해야 되고. (육지) 올라가서 퍼포먼스도 하는데 그 당시 올라갈 때 저희가 관광차 한 대 빌려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했고. 그 때 정말 많이 화합이 됐어요. (면담참여자 K23F\*)<sup>42)</sup>

제주도 촌락공동체의 수행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시간적으로 큰 비중과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며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각 개인의 생로병사와 안녕, 자연공동체를 형성한 마을 사람과의 관계와 촌락의 발전까지도 수행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행은 정성을 들이고 금기를 경계하는 일이며, 주민 모두의 참여와 공감의 요구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촌락공동체 내 수행 주민의 고령화와 감소, 참가자 제한, 생업 환경의 변화와 사고 방식의 변화로, 공동체의 수행은 점차 형식보다는 수행의 지속과 의미 전승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보다 대중적이고 탈제의화(脫祭儀化)된 행사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공동체가 수행되고 있다.

## 2. 제주도 촌락의 자생단체와 소속감

촌락공동체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 강한 장치의 하나가 심리적 결속, 바로 소속감이다. 사회집단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공통 관심과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관심을 수행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 실천에 참여하며 함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주고 받는 경험의 반복을 통해 구성원 간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고 ‘우리’라는 의식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성원 상호 간에 정서적인 일체감이 형성되고 집단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성원은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공동체의 수행은 이러한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하며 역으로 구성원 간 심리적 결속은 촌락공동

42) 면담참여자 K23F\*는 40대 여성 이주민이다. K마을의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지역주민과 교류하였다. 작은도서관의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작은도서관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체의 수행을 활성화시키는 정신적 바탕이 된다(이창기, 1991). 특히 지역공동체 차원의 책임과 돌봄과 같은 이타적 실천과 사회적 활동은 보다 높은 차원이 수행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촌락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을 청소와 같은 환경 정비 활동과 지역의 어르신 돌봄 활동 등을 공동체의 수행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적 사고에서 환경 정비 활동이나 어르신 돌봄은 국가 또는 사회에서 행정·복지차원의 이행이 필요한 일이거나 특별한 인식을 가진 개인이 수행하는 의지적 활동의 영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도 촌락에서 이와 같은 일은 공동체의 수준에서 댓가나 보상 없이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의무적 행위이자 동료 구성원에 대한 호의와 배려로 수행된다. 촌락공동체에게 마을이라는 촌락 공간은 단순 주소지가 아니라 자연공동체의 생활 장소이자 고향이므로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공동체의 터전을 가꾸고 유지하는 행위이다. 또한 어르신을 공경하고 돌봄을 수행하는 일은 이타적 행위이며 공동체에게 책임을 다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행은 이러한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장치이면서 또다른 수행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청소한다고 전날 방송하면 반장님들이 또 집집마다 가서 청소 안내해요. 다음날 되면 집집마다 한 사람씩은 꼭 나와요. 반별로 최하 10명에서 15명은 나와요. 이주민도 다 빗자루 들고 나와요. (면담참여자 D14F)

마을의 80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김장김치 나눔해요. 100통 정도 담으니까 포기로는 하면은 150에서 200포기 정도죠.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 드실 것도 필요하구요. 처음에는 마을에서 직접 배추를 농사 지어서 김장을 담궜는데, 이후에는 이장님께서 사비로 배추를 사주시기도 하고, 기관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적도 있고. 부녀회에서 벌써 15년 정도를 했죠. 코로나 때도 꾸준히 했어요. (면담참여자 D14F)

촌락에서 공동체는 그 유지와 존속을 위해 지켜내야 할 최상위의 보살핌 대상이다. 마을은 주민의 모든 수행에 대한 맥락뿐 아니라 존재의 토대이며 개인과 집단에 대한 안전과 정체성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렐프(Relph, 1976)는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

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오스카(Oscar, 1951)의 “마을은 그가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모든 인류와 그의 관계를 알게 되는 확고한 지점이었다”는 언급은, 주민이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으며,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마을과 얼마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마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사람은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이고, 장소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김덕현 외 역, 2019: 88-104). 그러기에 마을의 위기, 해체, 소멸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근본, 뿌리를 잃는 상황으로 다가온다.

동양의 문화는 서양과 비교하여 관계지향적 문화로, 개인보다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와 관계의 결합체로서 집단·사회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관계 속에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역할·의무·규범이 개인의 행위와 사회 운영의 원천이라는 관계중심적 인간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스스로를 네트워크 속에서 타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상호의존적인 가치관도 형성된다(이명호, 2016).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는 물론이고 교육과 문화, 여가, 종교 행위도 촌락 내에서 행해졌다(송오식, 2022). 생활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 대체로 촌락 내에서 목적과 기능, 주민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자생단체가 조직되었으므로 지역 외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비자발적, 정기적·비정기적, 국지적·산발적 네트워크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촌락의 전통적 공동체 안에서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 촌락의 각 마을은 마을의 화합과 안녕, 질서 유지,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마을회를 조직하고 향약 또는 규약으로 그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있다. 마을회는 마을총회를 통해서 향약 개정, 마을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승인 등을 논의·의결하며 각 자생단체의 운영을 총괄한다(그림 21). 마을회 내의 자생조직으로는 주민의 연령 및 성별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계층 조직과 공통의 생업을 행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생업 조직, 그리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기능 조직이 있다. 이 단체들은 국지적으로 마을회 내에서 결성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주민 개개인은 복수의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각 촌락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계층 조직에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속하며, 생업조직으로는 어촌계, 농지수리계, 작목반, 공동목장조합 등이 속하고, 기능조직으로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자금관리위원회 등이 조직된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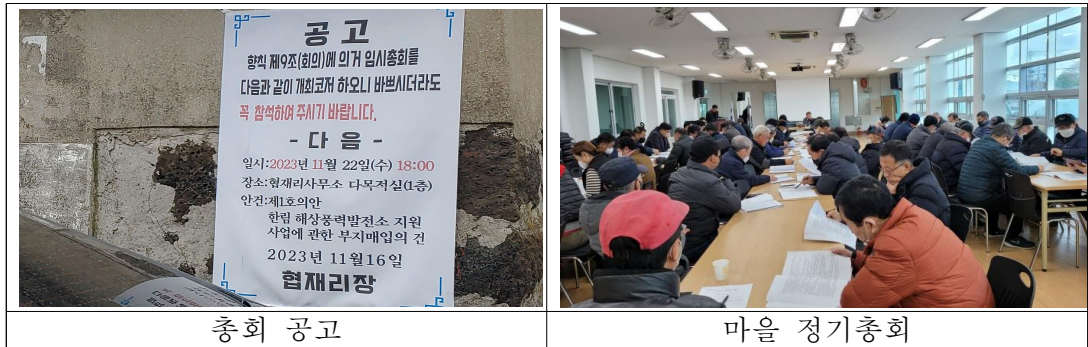


그림 21. 마을회의 수행

자료: (좌) 한림읍 협재리(2023. 11.), (우) 서귀포 수산마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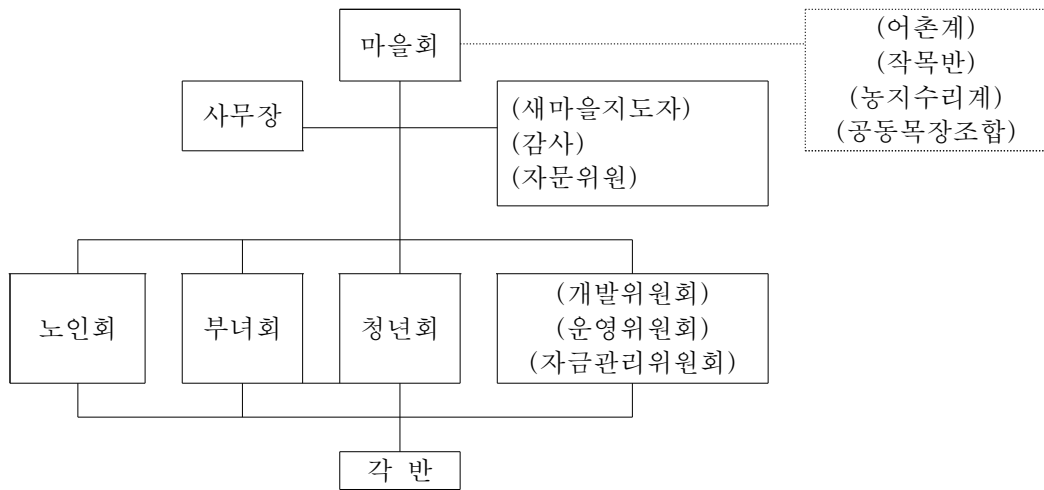


그림 22. 제주도 촌락의 자생단체 구성

주. ( ) 안의 대상 또는 조직은 각 마을의 상황에 따라 유무, 명칭, 위상이 다를 수 있음.

자료: 연구자 작성.

촌락공동체 내 65-70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노인회는 마을 운영의 자문을 수행한다. 거점 공간인 경로당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맡으며, 노인회원의



복지 증진 및 친목 도모의 활동을 수행한다. 부녀회는 기혼 여성으로 구성되며 각종 공동체 행사 때에 음식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또 주민의 생활개선 사업 및 주민 돌봄 활동을 비롯하여 마을 화단 가꾸기, 도로변 꽃 심기, 영농폐기물 수거 등 경관 개선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그림 23). 청년회는 20세 이상 성인으로 대체로 남성 주민이 주를 이룬다. 농산물 출하시 야간 방법과 방역 활동, 농로와 우수로 정비, 도로변 가지 치기 등을 수행하며 특히 마을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것을 중요 수행으로 여긴다.

청년회에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농로나 도로에 가지치기, 잡초제거를 하고요, 노인회에서는 마을 청소, 화단에 잡초 제거를 주로 하시고, 부녀회에서는 농약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해주세요. (면담참여자 C12M)



그림 23. 자생단체 환경 정비 활동

자료: (좌, 우) 서귀포 수산마을 홈페이지.

제주도 촌락의 기능조직에는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자금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개발·운영위원회는 마을회의 수행을 대표하며 지자체와 중앙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동체의 공동 재산이 있는 경우 자금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 창출과 분배를 논의한다. 촌락의 생업조직에는 농지수리계와 작목반, 어촌계, 공동목장을 가진 마을의 공동목장조합이 있다. 제주의 촌락은 하천을 경계로 하여 산간부터 해안까지 길쭉한 형태를 이루며 대체로 반농반어의 생산활동을 하여 농지수리계와 작목반, 어촌계, 목장조합과 같은 생업조직이 공동체 내에 공존하고 복수로 가입할 수 있다. 농지수리계는 평소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용수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작목반은 작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조직된다. 어촌계 역시 촌락 내 어업종사자의 조직으로 어부회와 해녀회로 구성되며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 공동 어장의 관리와 전용 등의 권리를 가진다. 공동목장조합은 공동목장을 운영·관리하는 조합원들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우마를 방목하거나 숲길을 조성하여 체험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들 생업 조직은 자체의 규정 또는 정관을 근거로 운영되며 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한다. 관련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무조건 해당 조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미가입시 공동 사업의 실시와 공동 재산의 관리와 분배에서는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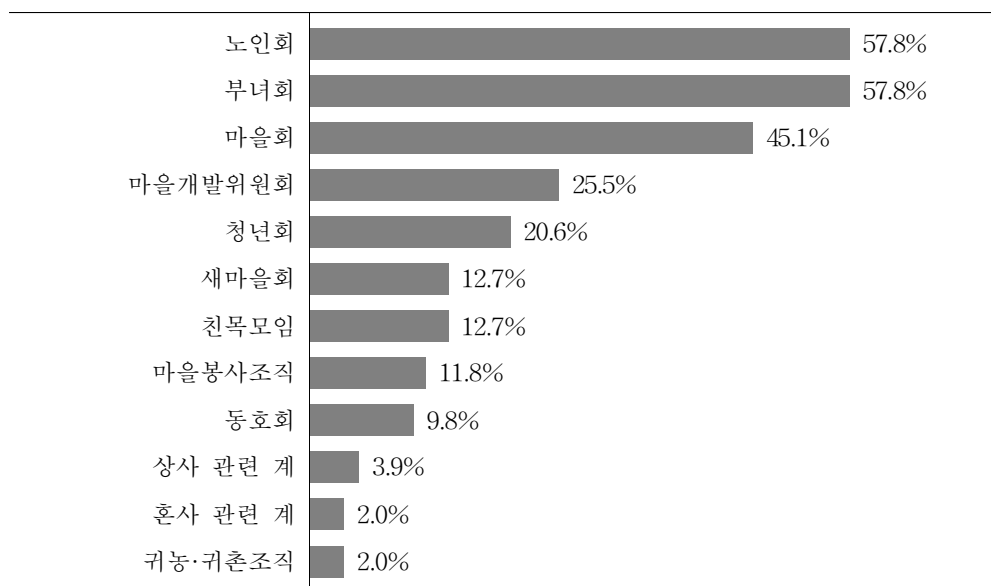


그림 24. 전국 마을 내 활성화된 공동체 조직 현황

주: 전국 102개 패널 마을 이장 조사결과로, 조직별로 마을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을 집계함.

자료: 송미령 외, 2021.

촌락 내 고령 인구의 증가와 청장년 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촌락의 주민 구성이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촌락공동체의 전통유산 보존과 계

승이라는 촌락성 수행에 있어 노인회의 역할은 매우 크게 작용하며 그 활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그림 24). 반면에 촌락공동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주민의 관심도가 낮은 귀농·귀촌 조직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촌락 내에서 목표와 신념을 공유하는 귀농·귀촌인의 자발적 조직 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존 촌락 자생단체의 형태와 성격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인회를 비롯한 촌락의 자생단체들은 마을을 단위로 촌락사회가 갖는 촌락성(ruralism)에 기인하고 있는 반면, 귀농·귀촌인의 조직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지만 마을의 범위를 뛰어넘으며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활동 영역에서도 촌락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경험하는 도시성(urbanism), 유기적 연대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부혜진, 2015: 236). 이러한 이유에서 촌락 내에서는 귀농·귀촌인 조직의 활동이 기존의 주민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저기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이주민인데, 특별히 이주민 모임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북카페도 이주민인데 거기는 오며가며 들러요. (면담참여자 C13F\*)

촌락의 환경은 생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내용은 가족의 형태와 조직, 사회관계의 패턴에 영향을 준다. 주민들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과 접촉하며 사회적 행동에 관한 공통적 가치와 규범을 획득한다. 연령과 성별에 의해 자연스럽게 계층 조직에 속하며, 생업의 내용에 따라 생업 조직에 가입되고 지역의 발전과 존속을 위하여 기능 조직에서 활동하게 된다. 즉, 촌락공동체가 보이는 생활양식의 특성, 촌락성을 갖는데(부혜진, 2015), 마을회를 비롯한 촌락의 각종 자생단체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비자발적이며 운명적인 촌락성에는 특정 성별, 특정 세대,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가 내재되어 있다.

촌락에서 여성 주민은 권력 관계에 의해 역할이 규정되고 일상적 수행 안에서

위치로써 집단 내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농업을 남성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오랜 문화적 관습으로, 촌락에서 여성 농민의 노동은 공식적인 담론 속에서 주변화되었다. 제주도 촌락의 경우 분산된 경지에서 밭농사나 목축을 행하고 어업 활동이 활발하여 타지역에 비해 여성의 생업 활동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송성대, 2019), 촌락공동체의 수행 안에서 여성의 공식적인 위치는 문화적으로 구분되었다. 일례로 가족농으로 이루어지는 생업의 현장에서 성별 분업에 따라 일의 강도 차이가 중요도 차이로 받아들여져, 여성의 일을 남성의 일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 또한 민주적인 방식보다는 남성 중심, 남성 연장자 결정 우선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강하게 나타나며(손태주 외, 2021), 마을 내 자생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도 의사결정권이 전반적으로 남성에게 편중되는 모습을 보인다(이해웅 외, 2021). 반면 여성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마을의 어르신, 아이들을 돌보며 마을의 미적 경관을 가꾸는 일을 함으로써 다소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남성 주민은 힘을 쓰는 일을 하고, 앞에서 대표성을 가지며, 대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여성 주민은 주방, 뒤쪽, 마을 안으로 한정된 영역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촌락공동체 안에 성별화된 지리가 존재함을 보인다.

버틀러(Butler, 1990)는 이와 같은 현상을 ‘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젠더화된 정체성은 일상적인 실천 위에서 구성되며 ‘어떤 표현적 행위라기 보다는 수행적(performative)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간에 따라 섬세하게 구성되고 양식화된(stylized) 행위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이 제도화된 모습으로 인식된 것이라 설명한다. 즉, 촌락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배제는 배제의 의도가 표현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된 수행의 결과물이다. 이는 한편으로 또 다른 수행을 통해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만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불변의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나, 젠더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면 정치적 변화의 여지는 충분할 것이다(이영민 외 역, 2011).

이러한 인식변화를 위한 새로운 수행으로 제주의 몇몇 촌락공동체 내에는 ‘성평등마을규약 시범사업’<sup>43)</sup>을 2019-2020년 시도하였다. 이 사업은 향약에서 세대

주 혹은 세대를 대표하는 1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참정권 제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촌락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과소대표성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에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마련하고 마을에서부터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등 일상적 구조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손태주 외, 2021: 4). 이 사업은 향약 상에 여성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촌락공동체 내에서 여성 주민의 역할과 위치를 새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시도이며, 일정 연령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소 폐쇄적일 수 있는 촌락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5. 제주도 촌락 내 참여권 확대 사례

자료: (좌, 우) 서귀포 수산마을 홈페이지.

이와 함께 참여권의 확대는 청소년과 이주민 등 특정 세대와 특정 집단을 배제한다는 인식을 극복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촌락의 청소년들과 이주민에게는 요구를 할 소통의 기회가 없으며 창구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일부 향약에 따라 청소년이나 이주민은 리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 이주민의 경우 촌락의 창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촌락의 청소년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인원이며 미성숙을 이유로 배제를 당하

43)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여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와 추진사업단을 만들어 마을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성평등마을규약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 조항’을 마련하고 2019-2020년 성평등마을규약 시범마을 8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TF팀 등 참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및 자치회원 등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에서의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손태주 외, 2021)

는 경우도 많아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권의 확대는 촌락에서 청소년과 이주민의 배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일례로 서귀포시 수산1리는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들, 특히 어린이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마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공동체로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그림 25).

‘마을 총회 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안내문을 주세요. 시간이 맞을 때는 체육대회나 마을 행사에 참여하죠. 안내문 왔는데 가능하면 가봐야죠. 이장 선거 때 투표도 해요. 아무래도 우리 마을이란 생각이 들죠. (면담참여자 A03F\*)

나아가 마을총회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제주도 촌락에서는 세대주, 회원, 리 운영비 납부자, 나이, 전입 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 등 마을마다 다양한 잣대로 총회 참여권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으며(김일순 외, 2021), 이는 청소년과 이주민 같은 특정 세대와 집단을 배제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마을총회는 마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논의 되는 기구이다. 연 1회 개최하는 마을총회를 청소년을 비롯하여 누구나 참석하여 지역복지·청소년·이주민 문제 등 촌락공동체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총회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연령·성별·거주 기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촌락공동체 내 세대와 집단의 통합과 소속감의 획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촌락 공간을 구성하는 행위자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은 네트워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인 주민은 연령과 성별, 목적과 역할에 따라 구성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소속되고, 각 자생단체는 촌락공동체의 수행을 주도하여 실천한다. 공동체의 수행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이타적인 행위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행위이다. 공동의 수행 경험은 각 개인의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하는 장치이면서 이후의 수행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촌락 공간 내의 특정 성별과 집단의 배제의 극복하려는 시도도 마련되며 촌락공동체가 스스로 개방하고 포용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3. 촌락성의 도시적 수행과 혼성화

공동체라는 용어는 대체로 좋은 것,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절화되고 이기주의, 고립을 의미하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공동체는 소속감과 협력, 공유,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구성원의 결속이 보장된 것으로 여겨진다(이원호·안영진 역, 2008). 이 때문에 도시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공동체라는 용어는 대체로 도시보다는 촌락에 호응한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도시 주민에 비하여 촌락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주민 간 연대를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인식을 조사<sup>44)</sup> 결과를 보면, ‘마을 소속감, 지역 소속감, 이웃과 관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 존재 여부’의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평가가 도시 지역 주민의 평가보다 높았다(김태완, 2021). 이는 촌락의 구성원들이 한 지역 내에서 공통의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며 장소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강한 소속감을 얻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촌락 주민은 각 개인보다는 상위에 공동체를 두고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의 특성을 가진 운명적 조직으로 공동체를 받아들인다. 한편으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같은 촌락성을 도시적인 것과는 상대적인 것으로 이미 촌락에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촌락에서는 주민 구성의 변화로 새로 유입된 네트워크나 행위자들이 기존의 주민들과 결합·융합하여 새로운 혼성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도시에서 이주한 주민, 도시에서 돌아온 귀향 청·장년들은 기존의 지역공동체와 통합되며 기존 공동체의 성격을 혼성화한다. 이 공동체는 촌락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존재하던 방식과는 다른, 도시적 기표와 촌락적 기표가 서로 뒤섞인

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6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표본 수는 3,183명으로 도시지역 738명, 읍면지역 주민 2,445명으로 구성되었다(김태완, 2021).

새로운 형태의 수행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던 초기에는 촌락 속에 도시의 구조와 수행을 일방적으로 이식 또는 주입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행의 변화가 강요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기존 주민의 참여 부족, 수행 역량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촌락의 구조를 특성면에서 도시의 구조에 더 가깝게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갈등이 표출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각 촌락이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수용·융합하고 사례들을 학습하면서 공동체의 촌락성 수행에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제주 한림읍 귀덕1리는 2019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겨울철 영등곶에 활용되던 마을 공원을 활용하여 여름철 방학과 휴가 기간에 ‘귀덕밤마실’이라는 주민 축제를 열었다(그림 26). 이 축제는 플리마켓<sup>45)</sup>과 공연, 토크콘서트가 결합된 형태로 도시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방식에 보다 주민 참여가 강화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촌락성을 도시적인 방식으로 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귀덕1리 주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귀덕1리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귀덕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공연에 참여하여 주민 주도의 축제를 기획하였다. 특히 마을 어르신과 이주민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여 각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는 ‘마을 사람’, ‘이주민’을 대립적 집단으로 생각하던 인식을 해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인간으로써 이해하고 심리적 간극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민들이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큰 움직임도, 사건 사고도 없이 무난하게.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토박이와 이주한 주민들 간에, 또 이주한 사람들 사이도 조심스럽고 서먹했죠. OO씨가 마을사람들이 함께 하는 플리마켓을 한 번 열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어요. 시원시원한 이장님께서 흔쾌히 준비해 보라고 하셨대요.(홍OO, 1974년생; 양지혜·고은솔, 2023: 126, 재인용)

45) 플리마켓(flea market)은 서구에서 안 쓰는 물건을 공원 등에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 등을 하는 시민운동으로 벼룩시장이라고 한다. 프리마켓(free market)은 핸드메이드 작가, 창작자,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또 벼룩시장인 플리마켓과 작가, 예술가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시장인 프리마켓이 결합된 플프마켓이란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각 내용과 방식에 따라 플리마켓, 프리마켓, 플프마켓의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대체로 플리마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목적과 방식이 혼성화되어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유행 판로가 적은 소상공인, 소기업, 문화예술인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귀덕밤마실’이랜 허영으네, 우리집 아래난 다 구경 헛주게. 할망들 이제 가그네 그 나무 밑에 앉아그네 구경허여. 노래들도 부르곡.(김OO, 1937년생; 양지혜·고은솔, 2023: 126, 재인용)



그림 26. 촌락성의 도시적 수행

자료: KBS 제주 7시 뉴스(2019. 07. 25. 방영)

투박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직접 준비하고 또 주인공이 되어 모두와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만들자던 다짐은 끝까지 잘 지켜졌습니다. 다른 플라마켓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토크콘서트>라는 문화 행사를 테마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내려 애썼죠. 겉으로 보여지는 방문객의 수이나 판매 수익보다는 밤마실이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서쪽 마을 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평소 별다른 볼거리 없는 조용한 마을에서 사람 구경만으로도 흥겨워하셨던 동네 삼촌들의 반응이 정작 큰 의미를 만들어주었구요.(귀덕향사 블로그 발췌, 2021년 12월 검색)

귀덕밤마실 프리마켓은 빵집, 서점 등 인근 상점에서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작은 마을 잔치 느낌이라 친근했다. 10팀 가량의 셀러들과 공연하는 팀도 서로 오래 아는 사이인지 편하게 즐기는 흥이 있는 잔칫날. 나 같은 방문자 티가 나는 사람에게도 눈이 마주치면 친근하게 웃어준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동네 사람들 모여서 소박하지만 그날 하루 즐거운 날. 이런 게 제주의 매력 아닐까.(그림글임 브런치 발췌, 2021년 12월 검색)

한림읍 귀덕1리의 사례와 비슷한 축제는 제주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M마을에서 진행되는 마을 축제 역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기획·준비·진행 등의 전과정을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의 축제가 기획사에 의해 준비되고 시민은 일부 참여 또는 향유하는 방식인 것과는 다르게, 제주도 촌락의 축제는 촌락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적인 방식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전개

되고 있다.

저희 축제 콘셉트는 외부인을 향해 관광 목적으로 만든 느낌이 아닌, 마을의 잔치 같은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부스라던지 노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현수막을 만드는 것도 빈 천을 가져다가, 쓰고 그리고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요. 밤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외부인들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요. 마을 사람이 시 낭송하고, 이장님 토크 콘서트도 하구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전부 마을 자원으로만 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진수식을 한다고 다리에서 끈으로 내리기도 하구요. 마지막 순간은 시니어 밴드가 연주하면 춤판으로 끝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창의 바위 위에서 춤을 추시는데, 첫 회 때는 정말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 안에서 문화가 생기고 재미있게 놀다보면 이것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요. (면담참여자 M25F\*)<sup>46)</sup>

제주도 촌락에서는 마을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주민이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을 향약에 명시하고 있다. 리민의 의무는 향약 준수, 마을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자치 운영에 필요한 리 운영비 납부, 리 개발을 위한 동원 부역 참여, 마을재산 보호 등 마을마다 하나의 의무만 정하여 지키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많은 10개 이상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등 마을별로 다양하게 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다. 김일순 등(2021)의 연구에서 제주의 촌락 마을의 향약에 명시된 리민의 의무를 종합해보면(표 10), 조사된 146개 마을 중 가장 많은 마을이 정하고 있는 의무는 리 운영비 납부로 전체 마을의 69.2%에 해당하는 101개 마을이 리 운영비 납부를 리민의 주요 의무 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이어서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94개 마을, 향약 준수 77개 마을, 동원 부역 참여 60개 마을, 마을사업 적극 참여 32개 마을 순이었다(김일순 외, 2021).

리민의 의무는 마을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부여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리 운영비 납부,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 이행, 향약 준수, 동원 부역 참여, 마을사업 적극 참여’와 같은 리민의 의무 중에는 지금의 마을 여건과 시대에 맞지 않는 사항이 일부 존재하며, 변화 흐름에 맞춰 의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마을이 14개 마을이나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김일순 외, 2021). 그러나 향약

46) 면담참여자 M25F\*는 40대 여성 이주민이다. 예술인으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프로그램 거점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에서 언급하는 의무 사항은 주민들이 마을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주민들은 경제적 여건과 의견의 합의, 실천을 마을의 존속을 위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촌락뿐 아니라 도시와 여느 조직에서도 강조되는 항목으로, 촌락에서 촌락성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항목임은 분명하다. 촌락의 주민들이 이러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마을을 보살피는 행위이며 소속감의 표현이고 주민 자신의 근본을 지키는 행위이다. 때문에 촌락공동체 내부에서는 의무사항의 미준수에 대해 마을을 돌보지 않고 소속감이 부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0. 지역별 리민의 의무 부여

내용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항약 준수	77	61	16
회의 의결사항 이행	94	55	39
총회 참여	12	4	8
동원 부여 참여	60	39	21
리 운영비 납부	101	59	42
환경 보호	26	20	6
향토문화 보존	14	12	2
검소한 생활	5	5	0
마을발전 도모	14	10	4
화합 단결	12	10	2
행정지시 사항 이행	7	7	0
마을발전 저해행위 금지	5	4	1
마을 사업 적극 참여	32	11	21
미풍양속 수호	17	6	11
주소지 실제 거주	5	4	1
마을재산 보호	16	13	3
기타	10	7	3
의무규정 없음	14	12	2

자료: 김일순 외, 2021.

당연히 공동체는 갈등 없이 존재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일관된 실체가 아니다. 일부 엄밀하게 정의되고 제한적이며 권력화된 공동체는 완고함과 편협성, 공격성,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가치를 표출할 수 있다(이원호·안영진 역, 2008). 또한 소속 관념은 촌락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역공동체가 집단적으

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역으로 소속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과 행동에 대한 배제를 함축하고 있다.

특정 지리적 장소에 대한 소속감에서 비롯된 촌락공동체는 거주와 실천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자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지역공동체 생활의 공간과 구조에 대한 통제로 소속감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행위 규제도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속감은 주민 간 심리적 결속을 기반으로 하며 이 심리적 결속의 감정을 지속시키는 일상적 실천은 이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지, 돌봄, 사회적 활동과 같은 보살핌 수행을 통해서 주로 형성된다. 지역공동체 경계선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보살핌을 위한 경계(caring watchfulness)의 수행은 공동체 구성원 소속감의 또다른 표현일 수 있다(박경철 외 역, 2016).

이러한 거주와 실천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소속감을 요구하는 상황은, 촌락으로 이주한 주민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가 부재하거나 상황적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선입견 또는 즉시적 판단에 의한 의도적 배제는 이주민에게는 편협하며 기회를 박탈당하는 행위로 다소 공격적으로 이해되어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 사시데 카즈마사는 ‘카카와리시로(關わりしろ)’,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백’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이가 지방의 커뮤니티를 보고 자신이 파고들 여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양지혜·고은솔, 2023: 127). 즉, 이주민에게 참여할 기회를 개방하고 지역의 일에 참여하고 관여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주민은 조금이라도 지역에 공헌하거나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소속감을 획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희가 해드렸다기보다 마을에서 꺼주셨죠. 마을에서 문화니 생태니 하는 것(마을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협업할 수 있고요. ‘우리랑 이거 같이 할래?’ 하면서 저희를 꺼주셨죠. (면담참여자 M25F\*)

이주민에게는 일상적으로는 다소 어색할 수 있는 만남을 공식화하고 개방함으로써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 간 유대를 형성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주

민을 마을총회에 참여하여 마을의 상황을 공유하고 발언할 수 있게 일부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마을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기존 마을주민과 어우러질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운영규약인 향약의 내용 및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소개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대한 ‘리민 자격’에 개방성을 확보하여 이주민을 배제하기보다 가급적 마을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과 포용의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앞서 리민의 의무 사항은 촌락에서 촌락성의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며 촌락뿐 아니라 도시와 여느 조직에서도 강조되는 항목이라 하였다. 향약을 소개하고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안내하는 선수행은 리민의 의무를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데에도 수월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리민의 의무는 리민의 권리와 상응하는 규정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한다. 즉 리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이행하는 자에게는 리민의 자격을 가진 자가 획득하는 마을총회 참여 및 의결권, 청구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약에 명시된 해당 권리의 자격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와 면담, 김일순 등(2021)의 연구에서 확인된 향약의 선거권과 청구권 부여 자격 요건은 지역 거주 기간에 있어 일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146개 자연마을 중 39개의 마을에서 청구권의 부여 조건을 두고 있으며,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마을 출생자와 전입자의 구분’이 있으며 ‘전입 후 일정 기간 경과자’라는 조건을 두고 있다(표 11). D마을 사례를 보면 ‘전입 후 30년 이상 거주’, ‘외지인은 30년 이상 주민의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하여 30년의 기간을 상정하고 있다(그림 27). 아예 전입자에게는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마을도 있으나 104개의 마을에서 청구권에 대한 명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공동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재산에 기여한 주민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민을 규정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향약에서는 기존 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거주를 조건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다양한 시도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마을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리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주민에게 리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 부여 자격에서도 배제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려는 노력이 이주민의 소속감의 획득과 마을 정체성 획득,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표 11. 지역별 청구권 부여 조건

지역	계	청구가능				청구불가		명시안됨
		마을거주자	일정시점 이전 거주자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자	해당마을 출생자와 전입자 구분	마을거주자	전입자	
계	146	1	8	12	8	7	3	107
제주시	89	1	6	9	4	4	3	62
서귀포시	57	0	2	3	4	3	0	45

자료: 김일순 외, 2021: 214.

**제13조 선거권**  
 OO리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권리와 의무를 다한 세대의 세대원, 단, 선거관리위원 규정에 준한다.

**제22조 재산에 대한 권리**

1. (재정에 대한 권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액을 주민에게 분배 시는 OO리 전입 후 30년 이상 거주하며 주민권을 행사한 자로 한다.
2. (재산에 대한 권리) 마을재산을 매도하여 주민에게 분배 시는 마을 운영비를 제외하고 OO리에 거주하며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 주민에게 분배하며, 외지인은 30년 이상 주민의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
3. 단, 본리 출신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의 의무를 수행한 주민에 한하여 재산권을 갖는다. \*본리 출신이란,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초본)의 등록기준지가 000로 되어 있는 주민을 말한다.

그림 27. 향약 명시 리민의 선거권, 청구권 부여 자격 내용

주: 면담을 통해 조사된 내용, D마을의 향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시임.

저도 (마을협동조합)한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혼자 쉽게 생각하기에는, 제주도 마을들이 마을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을 사업에 일부 자부담이 들어 갈테고 그럼 그 마을 재산을 일부 쓸테니까. 사실은 제가 끼어 들어가는 것도 그 분들이 보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쉽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면담참여자 C10F\*)<sup>47)</sup>

제주도 촌락 공간의 수행은 기존의 방식이 유연해지는 방향으로, 또 새로운 도시적 수행이 가미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촌락 공간의 이주민들이 기존의 주민들과 교류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시도도 나타나 공동체 수행의 형태가 혼재되어 가고 있다. 이미 제주도 촌락공동체를 운영하는 데에 연령, 성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주민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약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무사항을 정하여 명시하고 주민 간 합의와 통합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

47) 면담참여자 C10F\*는 서울에서 이주한 60대 여성으로, 제주 거주 7년차의 이주민이다. 수필가이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면담 당시 제주 해녀에 관한 수필을 집필 중에 있어 어촌계 해녀들과 교류가 잦아 마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고 있었다. 2022년 사업장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 V. 제주도 촌락 경관의 혼성화

### 1. 일상생활 경관의 변화

촌락의 경관은 촌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밀접하게 얽힘으로써 생성되고 지속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양가적인 속성을 가진다. 내부 행위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점차 쓸모가 없는 경관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는 경관도 있다. 동일한 경관을 ‘보는 방식’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도 있다. 앞서 살펴 본 촌락 내 주민 구성의 변화와 촌락성 수행의 변화는 경관의 변화를 유발한다.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경관은 재현되며, 요소들의 변화에 의해 경관 또한 변한다. 촌락의 경관 변화에는 촌락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외적 변화들, 즉 국제사회의 정책 트렌드,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와 규제 또한 영향을 준다. 외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시적인 경관의 변화를 통해 촌락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촌락의 주민과 수행의 혼성화는 대부분의 비관련자들에게는 미디어와 통계적 수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이슈로, 사실 직접 촌락의 일상을 경험하지 않고는 외부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제주도 촌락 경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촌락의 일상경관과 공동체의 수행 장소 등에서 혼재되어 있는 촌락성과 도시성을 추적하고 경관에 내재된 의미 변화를 고찰하였다.

제주도 취락의 입지는 섬이라는 환경적 특성에 따라 생활용수의 이용 편의, 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대체로 제주도 마을은 생활용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해안 지대에 입지한 후(그림 28), 인구 증가와 농경지 확보의 목적에 따라 점차 내륙으로 취락 입지가 확산되었다(오상학, 2017, 향토문화전 자대전). 제주도 촌락의 일상 생활 경관은 1970년대를 전후로 크게 변화었는데, 산업화 이후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농촌개발 정책과 대



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 상품화 그리고 인구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촌락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1970년대 새마을 운동<sup>48)</sup>으로 제주도 초가의 가옥 경관은 양옥으로 개축되었으며, 일주도로의 확장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를 내놓으면서 토지 이용이 변화하고 도로는 확장되었다. 또 1970-80년대 국가 주도의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에 따른 산업 기반·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주도 촌락의 경관 변화가 두드러졌다. 사회간접자본의 기반시설이 급속히 확충되어 도로·항만·공항을 포함한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고지대와 해안지대의 용수 개발, 통신시설의 개선 등이 국가의 주도와 투자에 힘입어 이루어졌다(이상철, 1995). 이 시기 제주도 지역의 상수도과 전기의 보급은 전국에서 매우 앞선 수준이었으며, 그 외 도로의 연장과 포장, 자동차의 보급, 전화의 보급 등의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표 12, 그림 29).



그림 28. 제주도의 취락 지구 분포

자료: V-WORLD 디지털 트윈국토. (2023. 12. 15. 검색)

48)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 지시(指示: 지방장관회의 지시)에서 제창되었고, 그 해 전국 행정리동(行政里洞)에서 일제히 시작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생산 기반 부문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도로 개설, 그리고 복지 환경 부문의 주택 개량, 취락 구조 개선, 안길 정비 및 포장, 마을 문화 복지 시설 건립 등을 통해 전통적 촌락의 공간 구조 또는 경관을 크게 변화시켰다(이전, 2011: 58).

표 12. 1960-80년대 제주지역 사회기반시설 구축 수준

구분	단위	1960	1966	1973	1979	1982	전국평균 (1981)
도로연장	인구 천 명당 km	3.1	5.6	5.2	4.2	4.6	1.3
도로포장률	%	-	3.9	16.4	28.9	34.5	34.1
자동차대수	인구 천 명당	0.9	1.5	4.7	11.8	15.5	14.7
상수도 보급률	%	12.2	34.5	88.1	97.9	98.6	55.0
전화율(電化率)	%	12.4	16.5	65.1	99.9	-	-
전화보급율	인구당 %	0.2	0.7	2.3	6.2	16.7	11.2

자료: 이상철,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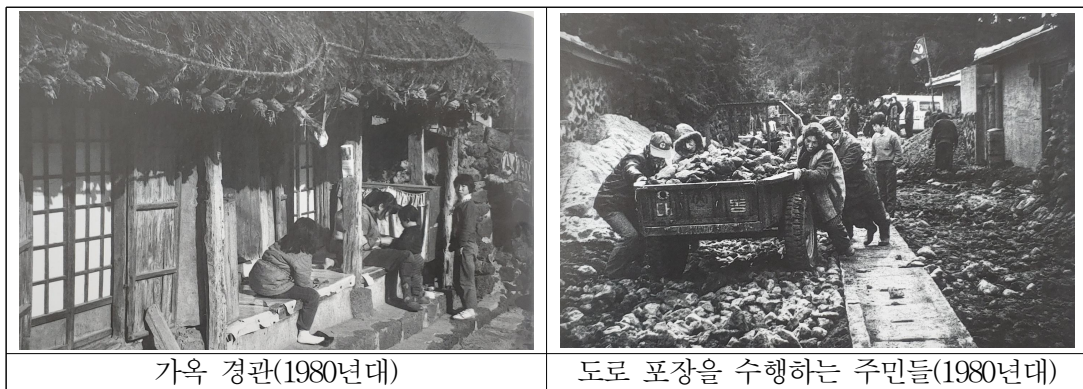


그림 29.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1)

자료: (좌, 우) 김종현, 2019.

제주도 촌락은 도시화·개방화의 상황 속에서도 고립, 고용기회 부족, 순응에 대한 압박, 필수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의 환경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제주도 촌락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대규모의 개발 사업의 추진과 관광지의 개발로 토지 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의 제주지역 토지 이용 변화에서도 촌락성을 보이는 자연경관 요소인 임야, 목장, 전, 답의 면적은 감소하고 대지와 주차장, 공원, 유원지 등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표 13, 그림 30). 이는 대단지 택지개발 사업과 단지형 타운하우스 건설, 풍력발전 시설과 같은 대규모의 건설 사업이 대체로 제주 중산간 지역, 촌락에서 진행되면서 꽃자왈, 목장 용지, 밭 등을 대지로 전환하여 주거, 관광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제주지역 토지 지목별 변화

(단위: 천㎡, %)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2010	368,473 (19.93)	7,272 (0.39)	164,827 (8.92)	163,580 (8.85)	887,528 (48.00)	56,072 (3.03)	2,988 (0.16)	5,988 (0.32)	643 (0.03)
2021	354,076 (19.14)	6,278 (0.34)	160,001 (8.65)	150,409 (8.13)	862,919 (46.64)	79,765 (4.31)	3,696 (0.20)	6,797 (0.37)	1,807 (0.10)
증감율	-3.9	-13.7	-2.9	-8.1	-2.8	42.3	23.7	13.5	181.0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 용지
2010	355 (0.02)	1,907 (0.10)	79,938 (4.32)	24,034 (1.30)	271 (0.01)	3,380 (0.18)	2,485 (0.13)	1,990 (0.11)	961 (0.05)
2021	409 (0.02)	4,465 (0.24)	90,000 (4.86)	25,392 (1.37)	415 (0.02)	3,826 (0.21)	3,727 (0.20)	2,570 (0.14)	1,339 (0.07)
증감율	15.2	134.1	12.6	5.7	53.1	13.2	50.0	29.1	39.3
	공원	체육 용지	유원지	종교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합계	
2010	1,621 (0.09)	30,557 (1.65)	1,496 (0.08)	949 (0.05)	64 (0.00)	16,806 (0.91)	24,643 (1.33)	1,848,848 (100.0)	
2021	3,961 (0.21)	32,449 (1.75)	3,907 (0.21)	1,257 (0.07)	581 (0.03)	16,582 (0.90)	33,637 (1.82)	1,850,278 (100.0)	
증감율	144.4	6.2	161.2	32.5	807.8	-1.3	36.5		

주. ( )안은 해당년도 전체 면적에 대한 비중임. '증감율'은 2010년 면적 대비 2021년 면적 증감의 비율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각 년도 통계 연보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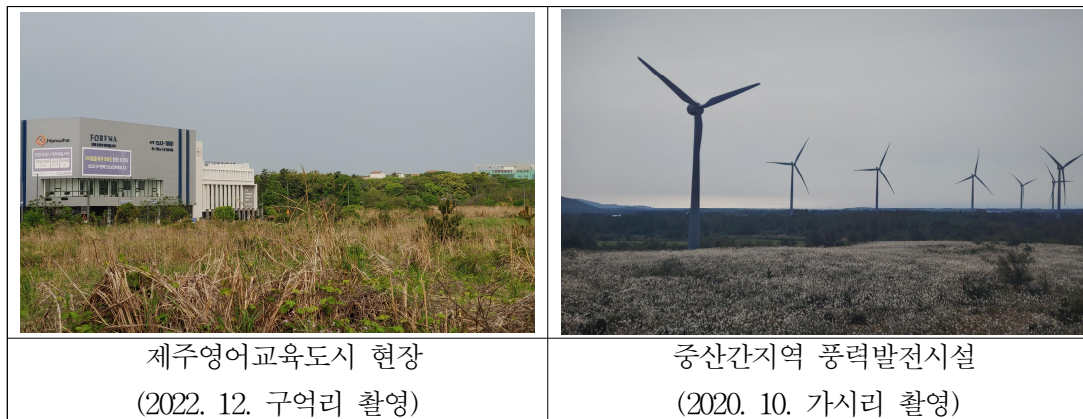


그림 30.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2)

이러한 경관의 변화를 개발과 환경보전의 대립적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

쉽스러울 수 있다. 촌락공동체의 내부 행위자에게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관을 쓸모 있게 활용하는 일은 경관을 정비하며 경제적 가치를 재고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동 합의에 이르러 경관을 생산하는 것은 공동체의 실천이며 공간과 구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공동 목장을 (마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이용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면담참여자 L24F)<sup>49)</sup>

우리 목장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중략)...목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고 해서.(장혜원 외, 2017, 재인용)

가옥 형태의 변화는 경관 변화와 더불어 주민 간 소통의 기회가 단절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촌락 내 가옥은 골목을 공유하며 마당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층의 개방된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제주도 촌락의 경우 가옥과 마당을 돌담으로 두르고 대문을 둔다 하더라도 대체로 담의 높이가 높지 않아 가옥 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였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 관심을 공유하는 것, 이야기 나눌 이벤트의 발생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촌락에 지어지면서 폐쇄적인 가옥의 형태로 마당이 없어지고 주차로 인하여 골목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지며, 주민들 간에는 서로 간에 마주칠 이벤트의 발생이 줄어들어 소통이 단절되고 일상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그림 31).

OO리에서는 동네 삼촌들과 교류가 있었는데, □□리에서는 없어요. 이게 동네 분위기가 달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OO리 집은 동네 골목 안에 위치한 마당 있는 집이었고 지금 집은 빌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OO리 집은 동네 삼촌들이 마실 다니시다 보면 돌담 너머로 저희 모습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특히 마당에서 뭘 하고 있으면, 동네에서 못 보던 젊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사 온 거? 어디 살다 완? 몇 년 살 거? 아이는 몇 개라? 여기 연세는 얼마 주고 들어온 거?”

49) 면담참여자 L24F는 40대 여성 토박이주민이다. 공동 목장을 활용하여 진행된 마을사업과 이후 사업의 운영을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20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면담하였다.

이렇게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대답해드리고, 그렇게 얼굴 익히고 나서는 오가다 마주치면 인사드리고, 어떤 삼촌은 삼촌네 집 마당에 상추 많으니까 뜯어다가 먹으라고도 하시고, 그런 최소한의 교류는 있었는데. 빌라는 마당이 없으니까, 주차하고 나면 집으로 곧장 들어와서 생활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동네분들이랑 마주칠 일이 없는 거 같아요. (면담참여자 J22F\*)



그림 31.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3)

촌락 내 토지 이용과 생업 경관의 변화에는 글로벌 스케일의 농업 생산 경쟁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촌락의 농업 생산은 규모의 한계로 글로벌 스케일에서 경쟁이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상 기후, 자연 재해의 증가로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활·산업 전 분야에서 국가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제재를 경고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농업 생산·유통·소비 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외 경제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이명현 외, 2022), 국내 촌락의 농업은 이러한 대외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촌락의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생업 활동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토지를 휴경지화하거나 축사 또는 태양광 시설 설치, 소규모 공장 및 환경 오염시설 등으로 변경<sup>50)</sup>하는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송미령 외, 2021b). 또 홀로 사는 고령의 주민이 요양원 등의 돌봄시설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촌락을 이탈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 세대가 촌락의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50) 제주위소리, 2023년 11월 7일자, 금악주민·천주교 “제주 중산간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반대” 반발, <https://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831> (2023.11.8. 검색)

서 빈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촌락 주민 구성의 질적 변화는 촌락의 낙후도를 심화시키며 경관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그림 32).



그림 32.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4)

안 버는(농사 짓지 않는) 밭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막 우거져 가지고. 어수선하니까. 큰 길은 깨끗해보일 건데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안 버는 밭들이. 쓰레기도 막 버려져 있고. 빈집도 많아요.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자식은 안 살고. 팔 생각도 없는 거 닮아. 조상님이 준 집이니까. 낡으면 뭐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 옆집도 비었는데 그냥 있어요. 밖거리 있잖아요, 밖거리. 안거리엔 사람 살고 밖거리는 비어 있고 한 집도 많아요. 집이란 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데. (면담참여자 G18F)

여기는 태양광 패널 설치 많이 했던데. 농사 안 짓는 밭에는 다 태양광 패널 설치한 것 같아요. 돈이 되나 보죠? 농사 안 짓는데 그냥 두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냥 두면 풀 많이 자랄텐데 보기도 그렇고. (면담참여자 E16F\*)

또한 국가 산업의 성장과 도시화·산업화로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는 촌락을 여가 선용의 공간이자 소비의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잃은 농업을 정리하고 레저시설, 숙박시설의 마련을 위해 농경지를 전용하면서 촌락성을 내포한 경관이나 토지 이용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더욱이 제주도 촌락은 197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관광상품화가 진행되어 촌락의 일부 공간은 관광객과 방문객을 위한 소비의 무대로 변화하였다. 방문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관광객을 상대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업체가 설립되며, 자연공원이나 마을 도보길 조성, 상업 시설 마련, 역사유적지의 관

광지화가 진행되어 경관이 변형되었다. 게다가 제주도 촌락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의 경우 촌락의 기존 민가나 폐공장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카페와 레스토랑,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등 대다수가 비농업분야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며 각자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부혜진, 2015; 염미경, 2019). 이에 방문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골목길 또는 잣길 주차문제, 주차장 조성, 쓰레기 발생과 처리의 문제 등 촌락의 주민들은 경관의 변화와 더불어 일상생활 경험들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제주의 관광지와 해수욕장, 바다 경치로 유명한 해안 마을은 대부분 경관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전에는 관광객이 몰리는 휴가철 같은 특정 시기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시설과 몇 개의 상업시설 운영으로, 관광지 주변의 경관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여름 휴가철 이외의 기간에도 꾸준히 관광객이 찾으며 숙박시설, 상업시설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안에 바로 인접하여 또는 해안도로에 접하여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코로나19 이후 상업시설의 규모도 대형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경관을 사유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촌락 경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림읍의 해안마을은(그림 34-1, 34-2) 2010년 이후로 리조트와 타운하우스의 규모가 있는 단지형 시설이 건설되고 관광객과 주민의 증가로 차량의 통행이 늘어 도로를 확장하는 등 경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도 촌락 대부분의 해안마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안 경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증가로 마을 내 상업 시설이 증가하는 변화도 보인다(그림 35-1, 35-2).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해안도로 및 마을 골목 안 주차 시비로 인해 관광지와 유명 상업시설에서는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공터 임대 또는 휴경지 임대를 통해 새로이 주차장을 신설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민가가 집중되어 있는 마을 안에도 상업 시설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대체로 구옥을 수리하여 카페나 음식점으로 이용하면서, 촌락의 기존 주민들은 이전의 촌락의 일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불편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교통정체, 주차시비, 쓰레기무단투기, 범죄 및 안전의 문제로 인하여 상업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과 거주민들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거주지 주변으로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표지판,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판, 주차 차단봉의 설치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촌락을 찾

는 방문객 수의 증가, 마을의 관광지화는 촌락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촌락의 분위기를 혼성적으로 변화하게 하였다(그림 33).

마을이 유명해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한동안 그 테이크아웃 쓰레기 그거, 커피 먹은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주민들이 줍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민들이 지나가는 소리로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말도 하구요. (면담참여자 C12M)



그림 33.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5)

자료: 2023년 11월 한림읍 협재리, 귀덕리 촬영





그림 34-1. 한림읍 해안마을 경관 변화(2008)

자료: Daum지도(2023. 11. 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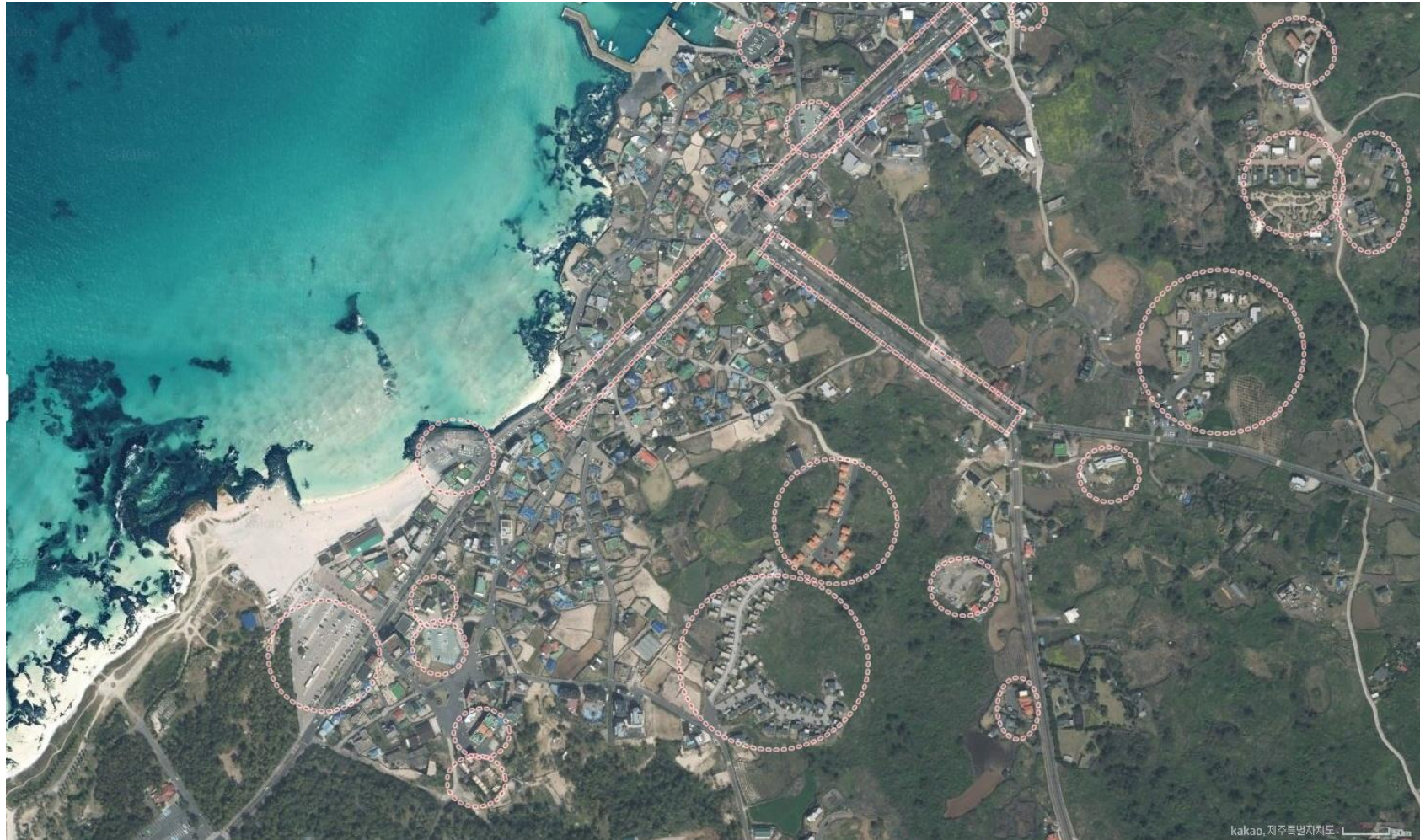


그림 34-2. 한림읍 해안마을 경관 변화(2023)

자료: Daum지도(2023. 11. 20. 검색)



그림 35-1. 구좌읍 해안마을 경관 변화(2008)

자료: Daum지도(2023. 12. 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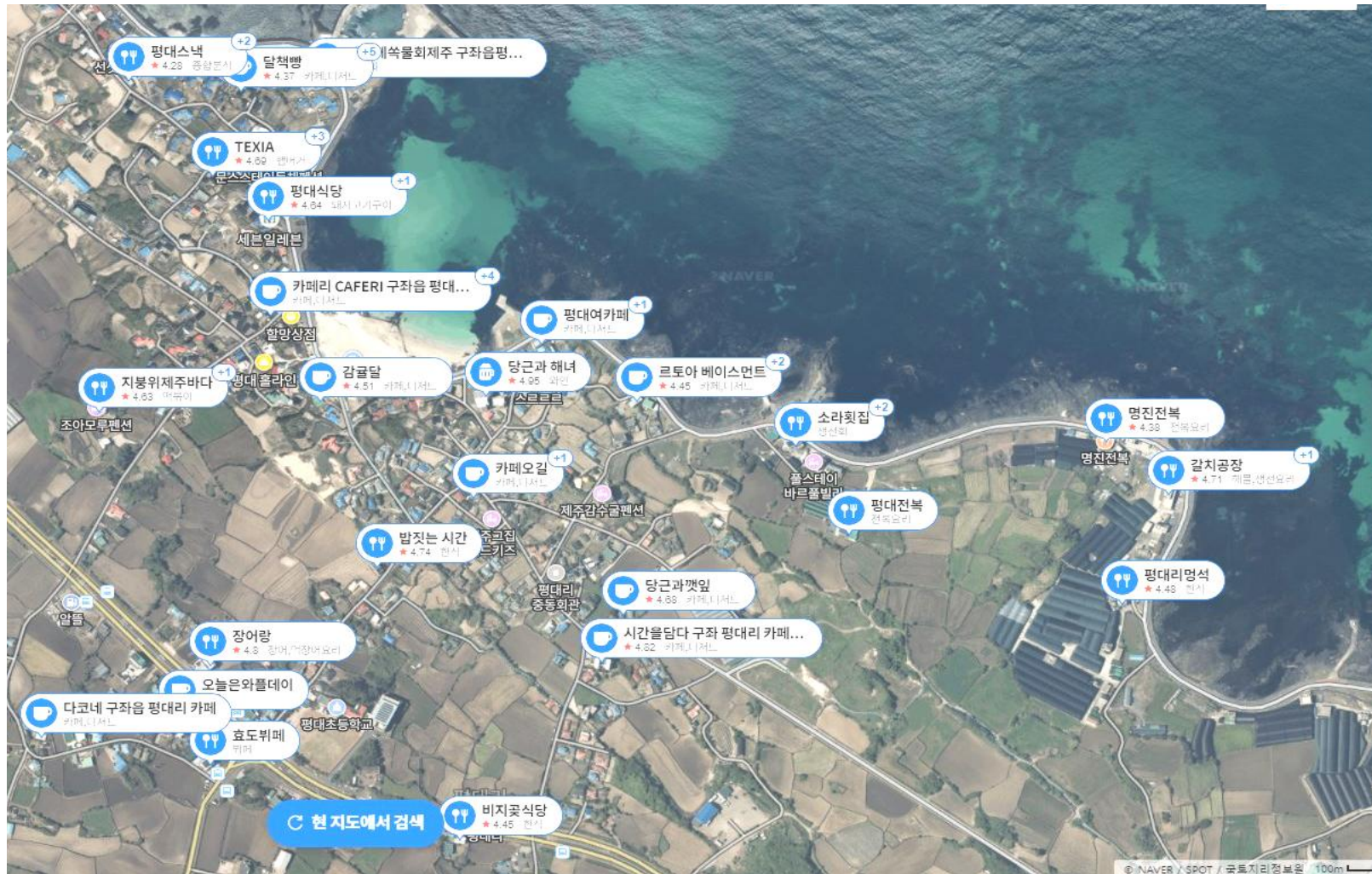


그림 35-2. 구좌읍 해안마을 경관 변화(2023)

자료: Naver지도(2023. 12. 2. 검색)

한편으로 촌락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서비스 이용자 수가 불충분해지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여가, 소매, 일자리 등 각종 생활서비스<sup>51)</sup> 유지에도 영향을 주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은 감소하고 경관이 변화하며 촌락에서의 정주 만족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sup>52)</sup>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도시 주민보다 정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락의 주민들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모든 부문에서 도시 지역보다 만족도 점수가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으로 ‘분만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범위’ 항목이 도·농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완, 2021).

제주도 촌락 주민들은 대부분의 생활서비스를 해당 읍면 내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여건은 취약하고, 주로 차량으로 이용하며 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은 인근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의 차원뿐만 아

51) 생활서비스는 ‘농어촌서비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기반시설’ 등의 용어로 법률과 정책에서 사용된다. 생활서비스 개념은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라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2008)은 “삶을 영위하고 일상적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 즉 정주환경 또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로서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송미령 외(2009)는 생활서비스를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일정 정도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로 정의하였다(한이철 외, 2022: 16).

<농촌 생활서비스 분류>

서비스 분류	세부 서비스
보건·의료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의원,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19구급서비스
사회복지	이동지원시설, 공공·공동급식, 도시락·반찬배달, 공동생활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교실, 학원(보습학원), 예체능학원(태권도, 피아노 등), 평생교육기관, 학습모임공간(독서실, 교육실 등)
여가	PC방, 노래방, 도서관, 체력단련시설(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소매	은행, 이·미용업, 세탁소, 편의점, 마트·슈퍼마켓, 목욕탕, 제과점, 카페·다방, 음식점(식당 등), 주유소, 주점, 방문택배서비스
일자리	직업소개소, 공공 일자리 지원센터

자료. 한이철 외, 2022.

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표본 수는 3,183명으로 도시지역 738명, 읍면지역 주민 2,445명으로 구성되었다.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지역은 보건·복지 7.0 교육·문화 6.4 정주기반 7.1 경제·일자리 5.6의 만족도를 보였다. 농어촌지역은 보건·복지 5.8 교육·문화 5.4 정주기반 6.4 경제·일자리 5.3의 만족도를 보였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정주만족도 격차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컸으며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차이가 적었다(김태완, 2021).

나라 보건·의료의 경우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로 촌락의 정주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그림 36).

우리 마을에는 병원이 없어요. 약국도 없고 보건지소도 없어요.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읍에 가야 되는 거죠. 동네 어르신들 90프로가 버스로 병원에 가시는 것 같은데. 마을에 병원이 있으면 좋아하시긴 하겠죠. 지금은 읍에 있는 병원 가면 되고, 더 아프면 시에 있는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면담참여자 A03F\*)

읍에 내과는 있는데,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런 건 없어요. 대형병원이 없으니 응급실도 없죠. 한 선생님이 두루 보는 의원이 있죠. 여기 엄마들도 감기 정도나 읍 병원에 갈까. 아니면 여기 병원 안 다녀요. 다 (제주)시로 가요. 서귀포로도 안 가요. (면담참여자 F17F\*)

나이 들수록 병원 찾을 일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동쪽, 서쪽엔 병원이 많이 없으니까. 제일 아쉬운 건 병원인 것 같아요. 제주시내로 가든 서귀포시내로 가든 1시간은 가야 되거든요. 20분 거리인 한림에도 몇몇 병원들이 있긴 하지만, 시내에 비하면 병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유명한 병원은 다 시내 쪽에 있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나이 더 들면 최소 애월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면담참여자 J22F\*)



그림 36. 제주도 촌락 경관 변화(6)

또한 유아, 청소년 주민의 감소로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초등학교, 학원, 상점 등 지역공동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의 수가 줄어들거나 폐원, 폐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청·장

년층은 촌락에서의 이탈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이탈은 촌락공동체의 인구 구성을 왜곡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계층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 조사<sup>53)</sup>에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농어업 외의 직군에 종사할수록 촌락 이탈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 9%만이 이주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바와 다르게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응답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무려 74.9%였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6.6%에 불과했으나 다른 직군의 주민들은 60.7%가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김민석 외, 2020).

그러나 촌락에서 이미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청장년층 농가의 수작 적고, 응답의 결과에서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응답에 차이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청·장년층의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적으로 '역량을 더 키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은 도시가 아무래도 좋죠. 역량을 키운 이후에 (역량을) 활용하게 되는 건 농촌이나 다시 이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면담참여자 A03F\*)

촌락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촌락 주민의 복지 증진, 촌락의 개발과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주도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sup>54)</sup>을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5년 단위의 법정 계획(표 14, 표 15)을 수립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고, '농촌 3·6·5 생활권 계획'<sup>55)</sup>에 기반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 정책이 정책 수혜자를 농어업인, 노인 등 특정 인구 계층을 위주로 추진되어 오면서 청년, 여성,

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표본 수는 3,012명으로 동 지역 793명, 읍·면지역 2,219명으로 구성되었다(김민석 외, 2020). 또한 2021년에는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문항은 삭제되었는데, '귀농어·귀촌인통계' 등에서 유사항목을 포함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삭제 이유로 밝혔다(김태완, 2021).

54) 2004년 3월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55) 농촌 3·6·5 생활권 계획은 30분 이내에 보육·보건·소매 등 기초적인 서비스로의 접근을 보장하고, 60분 이내에 문화·교육·일자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로의 접근, 5분 이내에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계획이다(한이철 외, 2022).

어린이 등 다양한 성별, 생애주기별 수요 대응에는 대상적 한계를 보였으며,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교육, 보건·의료 부문에서 관련 부처 예산의 비중이 축소<sup>56)</sup>되고 범부처 정책으로 실행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또한 여전히 지자체 삶의 질 향상 추진 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이 미비하고 농정부서 외에 삶의 질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하다(송미령 외, 2021). 때문에 제4차 계획(그림 40)에서는 각 전략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등 생활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전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이철 등(2022)은 이 정책들이 현재 촌락공간의 생활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촌락의 생활서비스 확충 정책은 인구와 기초생활서비스의 양(量)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기초생활서비스의 축소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서비스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이철 외, 2022).

표 14.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기간	2005 -2009	2010-2014	2015-2019	2020-2024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칠레 FTA 체결</li> <li>농업·농촌 종합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괄 보조금 도입</li> <li>기초생활권 정책 재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순 유입 증가</li> <li>지방 소멸 위험</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의 각종 인프라 확충</li> <li>정주여건 개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인프라 및 복지 기반</li> <li>경제 활동 다각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복지 확충</li> <li>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용적 공동체 육성</li> <li>농어촌다움이 있는 정주기반 및 지역 순환경제 구축</li> </ul>
	133개 과제	133개 과제	133개 과제	178개 과제
평가 및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W 중심</li> <li>중앙정부, 공급자 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서비스 기준</li> <li>농어촌 영향 평가 등 선진 제도 신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들의 관심 부족으로 정책 조정 성과 미흡</li> </ul>	추진 중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송미령 외(2021)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56) 제1·2·3차 기본계획 기간별 부처 예산 중에서 농식품부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타 부처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행정안전부(소방청, 국민안전처 포함)의 예산 비중은 40.9%에서 6.0%로 감소하였고, 교육부는 7.4%에서 1.0%로, 복지부는 8.2%에서 4.2%로 감소하였다(송미령 외, 2021).



표 15.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li> <li>•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li> <li>•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li> </ul>	
전략	생애주기별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li> <li>2.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li> <li>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li> <li>4.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li> </ol>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li> <li>2.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li> <li>3.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li> <li>4.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li> </ol>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li> <li>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li> <li>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li> <li>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li> </ol>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li> <li>2. 농어촌 관광 활성화</li> <li>3.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li> <li>4.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li> </ol>
추진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 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li> <li>• 농촌협약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li> </ul>	

자료: 송미령 외, 2021.

우리나라 장래 인구 감소의 상황은 촌락 공간의 차별성으로 인해 촌락 인구의 불균등한 분포는 더욱 심화하고 촌락의 지속가능성도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적 역량 및 지역 서비스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촌락지역이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 유치 전략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촌락의 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도시와 같이 모든 생활 서비스를 촌락 지역 내에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촌락의 주민들 또한 촌락 내 거주 불편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생활서비스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촌락의 생활양식에 대한 당위적 관념을 갖게 되어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생활서

비스 시설의 양적인 충족보다는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시골이라. 버스도 40분에 한 대씩 오는데 뭘. (면담참여자 F17F\*)

자차 없이는 이동이 힘들니까 '시골 또는 촌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마켓컬리, 이마트 쓱 배송, 쿠팡 로켓프레시' 이런 신선식품 배송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면담참여자 I21M\*)

목욕탕 없어요. 읍(내)에 가야하는데. 그런데 마을에 생겨도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다닐 사람 없어서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들하시던데. 마을 총회에서 개선·지원 같은 거 논의할 때 보면 목욕탕 필요하다는 의견은 꼭 올라오긴 하더라구요. (면담참여자 A03F\*)

근데 지금 저희가 사는 OO리에는 뭐가 없어요. 근데 감수해야죠 뭐. 모든 동네가 다 변화하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특히 제주 동쪽, 서쪽은 제주시내나 서귀포시내랑 달리 시골이나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 (면담참여자 J22F\*)

따라서 촌락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일상 생활서비스 등은 최대한 읍·면 단위로, 이용 빈도가 적은 고차서비스는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중심지 및 서비스가 수준이 높은 타 시·군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통망 개편 및 확충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 대중 교통서비스 체계의 협력과 전략적 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또 촌락의 말단부까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동형·방문형 서비스, ICT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또한 촌락 주민공동체 주도 서비스 공급<sup>57)</sup>,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과 의료서비스의 연계<sup>58)</sup>도 대안이 될 수 있다(심재현·민경찬, 2023).

57) 남해군 상주면의 동고동락협동조합은 마을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아이돌봄,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확충해 가는 사례를 보여준다(심재현·민경찬, 2023).

58) 완주군 구이면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안덕마을은 폐업한 한의원을 인수하고 한의사를 고용하여 체험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관광 프로그램(한증막)과 연계되어 체험객의 만족도가 증가하여 방문객이 증가하는 한편, 마을 내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심재현·민경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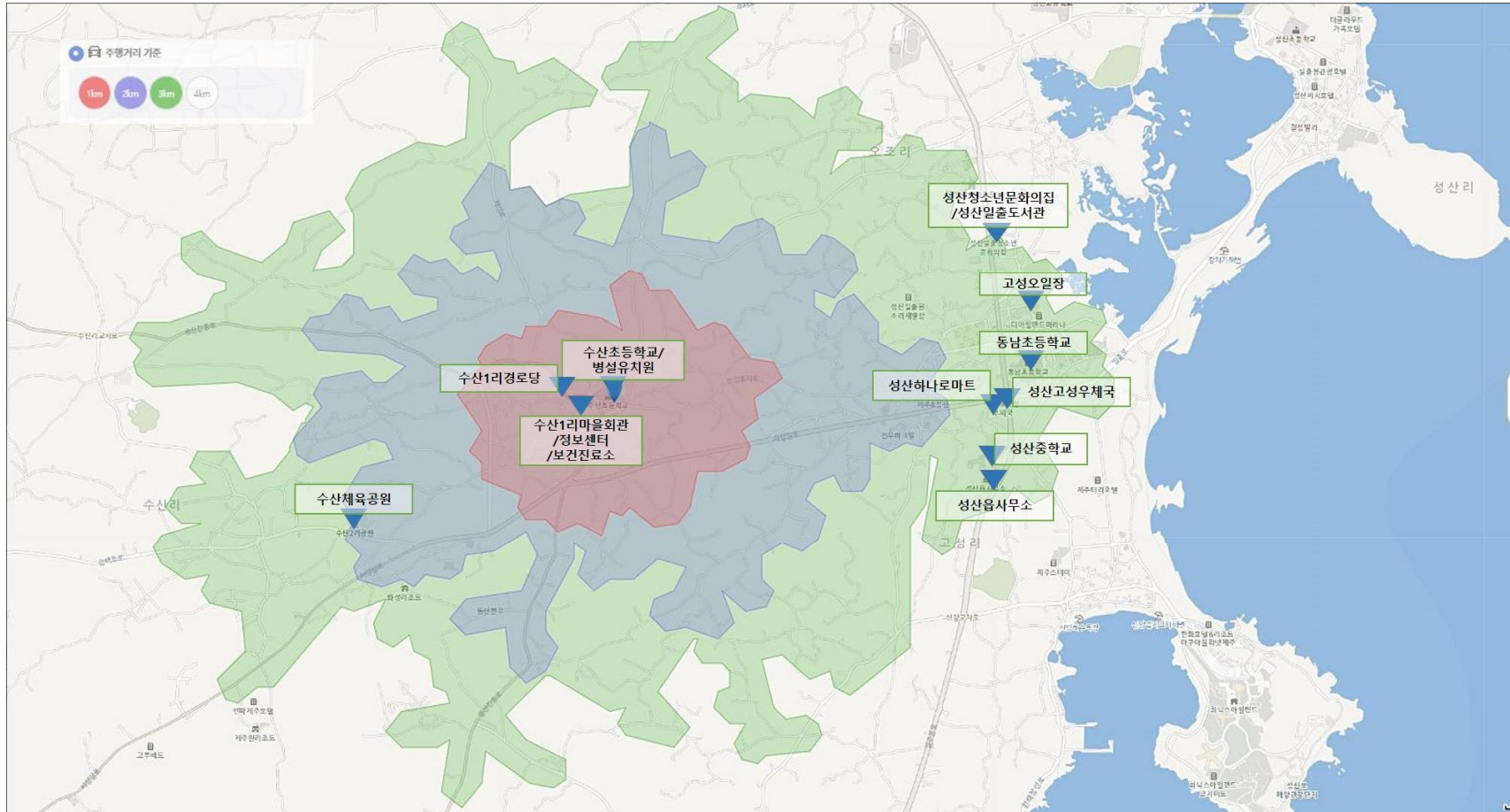


그림 37. 성산읍 중산간마을 생활서비스 여건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23. 07. 28. 검색) 및 연구자 작성

성산읍 중산간의 마을은 성산읍 14개 행정리 중 인구 규모가 6번째인 중산간 마을로 2010년 이후 꾸준한 인구 증가세에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인구는 1,031명이다(그림 37). 2012년 소학교 통폐합의 이슈로 소학교 살리기 활동을 하며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마을공동주택을 건립, 학령아동이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상황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마을 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외에는 보육시설과 기타 교육시설이 전무하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제외하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문화·복지시설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은행이나 ATM기기와 같은 금융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공서나 우체국 등의 행정서비스 시설도 없다. 마을 입구 큰 도로변에 몇 개의 음식점이 있고, 편의점이 2개 있으며 슈퍼마켓이나 마트는 없다. 보건·의료시설로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으나 병원은 없다. 이 마을 내 생활서비스 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근의 다른 마을에 있는 생활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내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고령의 주민들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른 마을의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한 시간에 2대 있는 간선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마을 입구로 걸어가야 하고 그나마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한 시간에 2대 있으나 급행 버스라 일반 버스에 비해 요금에 차이가 있다.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도 생활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마을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미흡한 서비스 환경과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 취업 등을 이유로 전출이 꾸준하다.

촌락에서 살아가는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다. 전원적 촌락 담론에서 상상되는 유토피아적 생활양식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촌락 주민들은 생업과 가정 생활, 건강, 범죄와 안전, 외로움, 소외와 같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사안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촌락에서의 삶의 질과 사회서비스 혜택의 문제는, 촌락의 주민들이 촌락을 어떤 곳으로 정의하는가에 영향을 주며 촌락은 불편과 부재가 당연한 곳, 서비스의 혜택이 부족한 곳으로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보건, 교육, 교통, 사회복지 등에 관한 정책은 촌락공동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결정함으로써 촌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주 촌락의 일상 생활 경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주의 촌락 마을은 용수를 구하기 쉬운 해안에서 취락이 발달하여 점차 내륙으로 확장되는 입지

를 하였다. 가옥은 자연에서 구하기 쉬운 돌과 새로 지은 초가에서 1970년대 이후 가옥 환경이 개선되어 양옥, 공동 주택의 형태가 등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제주의 촌락에는 타운하우스, 분양형 리조트가 건설되며 거주 경관이 변화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광지 개발로 제주 촌락의 토지 이용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전, 답, 과수, 목장, 임야와 같은 이용은 감소하고 주차장 용지, 유원지, 공원, 창고와 같은 이용이 크게 늘어나 촌락성을 보여주는 경관이 줄어들고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경관이 증가하고 있다. 또 촌락 농가 인구의 감소와 주민 구성의 변화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점차 생활 경관은 낙후되고 있으며, 이용 수요의 감소로 생활서비스 또한 양적·질적으로 감소하며 촌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 2. 공동체 수행의 장소

장소는 개인의 경험 속에서 정의되는 위치 또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 명명하고 그 사회적 공간과 관련된 특정 활동과 상상하기를 통해 창조되는 공간이다 (Soja, 1996; 이영민 외 역, 2011: 99, 재인용). 일상에서 장소는 울타리를 친 또는 경계가 있는 것의 내부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물상적 형태의 유무, 경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수행과 경험을 통해 특정 공간이 장소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경험에 의해 장소가 생성되는 것이라 할 때, 장소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은 장소가 무엇인가보다 그곳에서 어떠한 경험과 행위가 일어나는가일 것이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연구는 이미지, 상징, 은유뿐만 아니라 체현(embodiment) 및 수행(performance)의 개념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제주도 촌락에서 수행이 일어나는 장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의미와 상징의 생성,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혼성화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공동체의 수행은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결속, 소속감의 강화로 조직의 발전을 견인하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행이 이루어지

는 공동체의 장소는 집단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표출되며, 사회적 규범이 재생산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들에게 특정 장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 역으로 특정 장소가 공동체에 대해 동일한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장소와 공동체의 관계는 경관으로 재현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경관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모든 경관 요소들이 메시지·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렐프(Relph, 1976)는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경관의 상징이나 메시지는 “집단적으로 규정된 장소 의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김덕현 외 역, 2019: 86-87). 따라서 장소에 대한 연구는 장소에서 어떤 수행과 경험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고, 경관이 주는 메시지 또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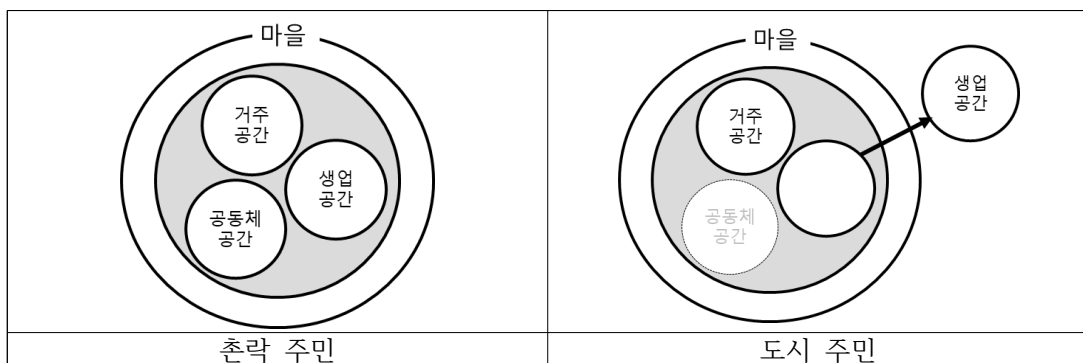


그림 38. 마을 공간 인식 차이

자료: 연구자 작성.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 촌락 주민과 도시 주민 사이에는 마을 공간을 인식하는 차이가 생겼다(그림 38). 도시에서는 산업의 분화로 생업 공간이 마을 안에서 분리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필요와 그 의미가 약화되면서 공동체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적어졌다. 그러나 촌락의 주민들은 여전히 공간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을이라는 지리적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함으로써 각 공간에서 의미와 실천이 생성되고 있다.

집, 가옥을 제외하고 촌락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수행하고 경험하는 공동체의 장소는, 생업 활동 관련 장소와 시설 그리고

마을의 일을 하거나 처리하는 장소일 것이다. 대체로 촌락 공간 안에서 주민의 일상이 생업과 공동체의 수행으로 구성되므로 이와 같은 장소에서 주민 상호 간에 잦은 관계맺음이 발생하고 경험을 통한 상징과 메시지의 생성이 주로 이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의 인구가 증가하는 촌락의 상황에서 경로당은 촌락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는 공간이며 공동체의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소이다. 앞서 주민 구성의 변화와 수행에서 현대의 촌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생단체는 노인회이며, 고령의 주민을 위한 경로당의 신설과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촌락의 변화를 살폈다. 근래 제주도 촌락에도 경로당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축의 경우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여 보다 고령의 주민을 배려하고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은 매일 경로당을 찾으며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고 개인의 대소사를 공유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한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유희를 즐기며 소일거리를 하는 등 여가를 공유하는 장소이다. 또한 은퇴 이주자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여러 주민이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의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고 권력에 의한 배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촌락의 경로당은 고령의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써 기능하며 고령 주민들의 공동체 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그림 39. 제주도 촌락공동체 장소(1)

촌락의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은 마을의 지리적 경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며 공동체를 주관하는 마을회의 거점 장소로, 촌락 내에서 마을회관은 대체로 취락의 중심에 위치한다. 마을회관 시설에는 부녀회와 청년회의 사무실, 경로당을 두어 각 자생단체의 상황을 마을회가 파악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국가가 강력하게 촌락의 변화를 이끌던 근대화시기에, 마을회는 국가 권력과 행정의 최전방 실천 조직으로 각 자생단체와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과 참여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것에서 점차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경제적 성장을 꾀하는 등 봉사과 협력, 기획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존 촌락의 주민들은 마을회라는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에 적응이 되어 있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의 경우 조직이나 장소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으며 특별한 장소감을 갖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마을회관은 촌락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구별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장소로서 차별과 배제의 장소로 기억될 수 있다. 장소들은 수행하는 기능이나 공동체적,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가 그 자체로 사물의 속성을 가진다고 볼 때, 장소는 대개 고정된 위치를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김덕현 외 역, 2019). 그러나 본질적으로 장소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곳이며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점이라 볼 때, 개인의 장소 경험에 따라 공동체의 장소 경험에 따라 마을회관의 정체성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마을회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공동체의 단결, 참여일 수도 있지만 권력과 차별, 배제, 무관심일 가능성도 있다.

마을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주민이 어떨 때 찾으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주방문객이 아닐까, 추측만 하는 정도. 동네 식당에서 이장님이랑 지인 분들도 술을 한 잔 드시고 계셨는데, 어찌다가 대화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 저희도 OO리 주민이고, 여기서 2년 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장님이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대환영이라고. 그러면서 리사무소 놀러오라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면담참여자 I21M\*)

어떤 분이 이장을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해엔 마을



회관을 계속 드나들고 마을회관 마당에서 공연 같은 것도 있었어요. 밤에 프로그램도 많이 하구요. 어느 이장님이 계실 땐 아예 갈 일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면담참여자 A03F\*)

촌락의 농산물의 집하와 유통, 수산물의 공동작업과 유통에 관여하는 작목반과 어촌계는 생산조직의 장소로, 공동체의 협력과 생산물에 대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생산물의 상품성과 시장의 가격, 거래자의 상황에 따라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로의 정체성을 갖는 곳이다. 사건과 행위가 장소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만, 장소의 성격에 의해 사건과 행위가 윤색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Relph, 1976; 김덕현 외 역, 2019),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의 성격이 그렇다. 즉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에 따라 작목반, 어촌계의 장소 성격이 규정되고, 장소의 성격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 장소의 성격이 윤색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물건(수확물) 하영 한 날은 좋지. 풀 때야 더 좋고. 공동으로 헨 거는 똑같이 나누 곡, 따로 헨 거는 저래 망사리레 담았당 풀 때 (어촌계에서) 무게 제영 돈 주매. (면담참여자 B08M)

해녀탈의장은 이용 대상과 기능, 목적이 명확한 장소이다. 오직 해녀 공동체가 생업인 물질을 준비하고 물질을 마무리하는 장소이다. 물질에 쓰이는 작업 도구를 보관하고 정비하는 곳이며, 탈의장 내에는 작업장을 마련하여 성계와 해조류 등을 손질하는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녀탈의장은 기다림의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물질은 물 때에 맞추어 진행되므로 해녀들은 해녀탈의장에서 물 때를 기다리고, 고령의 해녀는 혼자 물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짝이 되는 해녀가 올 때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다. 해녀탈의장은 위계가 분명한 곳이다. 물질의 실력, 수확량, 경력 등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해녀의 위계가 있으며, 이는 물질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안전을 위한 해녀공동체의 오랜 질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해녀탈의장 건물은 구조적으로 특이점이 있는데, 건물의 형태가 어떻든, 주출입구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해녀들이 바다로 나가는 물길이 있는 방향에 미단이의 큰 출입문을 낸다는 것이다. 물질을 나가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다에 나고 늪에 출입이 편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과거 해녀탈의장의 역할을 했던 불턱이 바람을 막기 위해 바다와 반대쪽으로 출입을 하도록 했던 것과는 달라진 장소의 구조적 특이성을 갖는다(그림 40).



그림 40. 제주도 촌락공동체 장소(2)

장소는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함께 하고 관련을 맺음으로써 생성된다. 또 주민들의 생활양식, 공동체의 수행 그리고 생업 활동의 결과물들, 여기에 사회적 맥락과 주민들의 사고 방식, 의미 등이 응집되어 만들어진 경관을 문화경관이라 하는데, 상징과 의미, 경험을 통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장소와 완전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제주도 촌락의 문화경관에는 자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생성된 것도 있지만, 몇몇의 장소들은 고도의 심상성(imageability)을 가지고 공동체에 의해 수행되고 의미를 갖으며 창조된 것도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원담, 발담과 같은 경관을 들 수 있고, 후자에는 포제단, 당과 같은 의례의 장소를 예로 들 수 있다.

제주도 촌락의 발담은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지역성과 깊게 연관된 경관으로,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를 구분 짓는 경계 기능을 통하여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한다. 발담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생육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수행으로 만들어진 경관이다(강성기, 2011). 원담 또한 자연의 현상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어로활동을 수행해 온 주민들의 장소 경험이 생성한 문화경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관은 과거 기능적 필요에 의해 생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현대에 와서는 그 기능이 과거에 비해 중요하게 요구되지 않으면서 경관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 심미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그림 41).

한편 당과 포제단(그림 42) 같은 신앙과 의례의 문화경관은 촌락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수행의 장소이자 공통된 믿음과 가치가 표출되는 장소이다. 정기적으로 실천되는 당제와 포제 외에도 주민들은 수시로 당을 찾아 심리적 안정을 찾고 안녕을 기원하는 수행을 한다. 렐프(Relph, 1976)에 따르면 장소의 본질은 위치에서 오는 것도, 장소가 수행하는 사소한 기능에 있는 것도,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오는 것도,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들 모두가 장소의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원한 중심으로 정의하는 대체로 무의식적인 의도성에 장소의 본질이 있다’고 하였다. 제주도 촌락의 당, 포제단과 같은 장소는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하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다(김덕현 외 역, 2019: 104).



그림 41. 제주도 촌락 문화경관(1)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가 할망당이라. 그때는 기계선도 아니고 풍선으로 나가니까, 손을 안 빌 수가 있다. 지금도 아이들 복잡하면 지나갈 때도 빌고 그러는데. 육십이년도부터 할망당이 가기 시작한 지금, 떨어져보질 아녜어. (면담참여자 B09M)



그림 42. 제주도 촌락 문화경관(2)

제주도 촌락에서는 예부터 ‘바당밭’이라 하여 바다를 소유와 거래가 가능한 생업의 장소로 인식하였다. 해녀들의 물질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바다를 많이 가질수록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의 양과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다를 ‘밭’으로 인식하였다. 바다의 어업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다를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의무도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양쓰레기의 관리와 처리, 해안의 경관 관리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해양 사고를 당한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해당 바다를 소유한 마을의 몫이었다. 현재는 마을어장이라는 이름으로 각 해안마을의 어촌계를 통하여 일정 영역의 해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마을이 지금 이만큼인데, 마을을 나눌 때 이 바다를 땅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안마을이니까, 그때는 바다가 넓을수록 좋은 거였죠. (면담참여자 C12M)

이러한 과거의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는 집단은 기억 공동체(memnoric community)를 구성한다. 기억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재현과 상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지은, 2013). 최근에는 촌락의 혼성화로 촌락 공간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서로 중첩되어 존재하면서, 때로는 상호작용과 실천의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소를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바당밭’이라는 제주도 촌락의 촌락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안에서 단순 채집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저지하는 어촌계원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바다를 ‘밭’으로 인식하는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는 기억 공동체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으나, 이를 지식과 정보로 이해해야 하는 외부의 행위자들에게는 권력적이고 방어적인 저항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지점이다.



공동목장  
(2022. 12. 신천리 촬영)

마을어장  
(2023. 4. 일과리 촬영)

그림 43. 제주도 촌락 문화경관(3)

### 3. 촌락 경관의 혼성화

카스텔(Castells, 1996)은 장소가 공간에 의해 소멸됨에 따라 지역적인 생활방식, 장소적 정체성 등은 지구적 자본축적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가정, 촌락, 국가 등의 경계가 있고 의미가 생성된 장소들로 구성된 세계가, 속도와 이질성 그리고 흐름에 의해 폐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은 '비장소(non-places)'의 세계인데, 슈퍼마켓, 쇼핑몰 등과 같이 초근대적이고 가속적으로 글로벌화되는 사회의 징후가 나타나는 곳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영민 외 역, 2011: 102). 이보다 앞서 렐프(Relph, 1976)는 장소 상실(placelessness)이라는 개념으로, 근대적인 계획과 건축물들이 어떻게 사람과 장소 사이에 진정한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상실적인 경관을 창출해내는지를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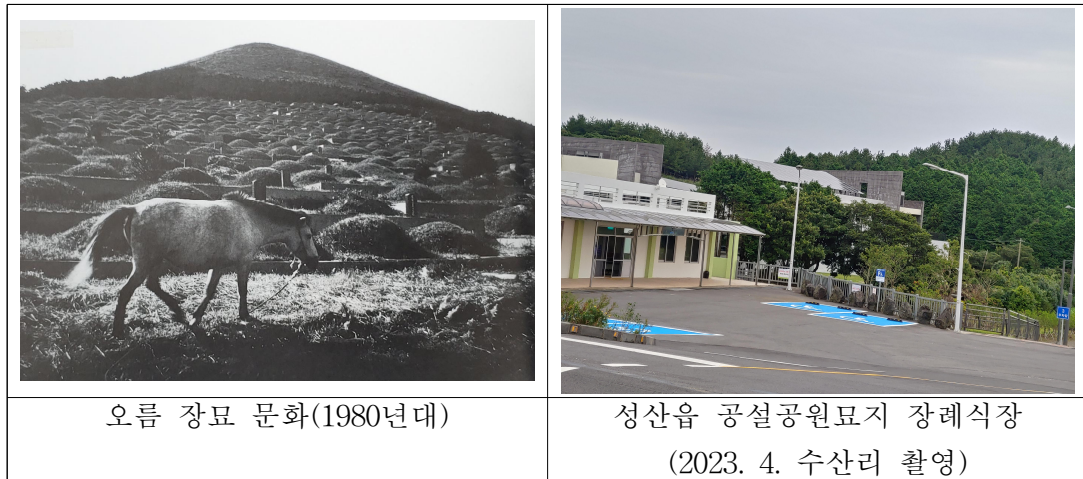


그림 44. 제주도 촌락 경관 혼성화(1)

자료: (좌) 김종현, 2019.

촌락에서 공간을 촌락으로 인식하게 하는 촌락성의 요소들은 점차 혼성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촌락의 경우 동 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멀지 않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교류가 활발하여 촌락성의 요소들이 도시적 요소와 결합하는 상황은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도시적 생활양식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촌락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주면서 촌락 거주자의 생활양식과 도시 거주자의 생활양식 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촌락 공간 내에도 대형마트와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 있으며, 대형 카페와 편의점, 다소 세련된 형태의 매장이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다 (그림 44, 45). 또 귀촌인들이 기존의 가옥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어 카페, 음식점, 농어촌민박 등을 운영함으로써 경관에 있어서도 고정적으로 상상 되어 온 촌락의 모습과는 변화되고 있다.

마을에 편의점 2개 있어요. 가까운 마트는 차로 5분 정도.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 마트는 차로 20분 정도 가야죠. 크게 불편하단 생각은 안 들어요. (면담참여자 A03F\*)

동네에 작은 슈퍼는 없어졌고 큰 마트 생기니까 다른 데는 잘 안 가요. 퇴근길에 농협(하나로)마트 들르면 되니까. 포인트도 쌓이고. (면담참여자 G18F)



그림 45. 제주도 촌락 경관 혼성화(2)

촌락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1차 산업 경관 또한 농업 수행 방식이 다각화되면서 촌락 경관 혼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촌락의 1차적 기능인 먹거리의 생산과 촌락의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변화를 용인하며, 촌락이 다기능성 (multifunctionality)을 가진 공간으로 변화하는 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법령<sup>59)</sup>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기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에서는 ‘1차×2차×3차=6차’로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되었다는 의미에서 6차산업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은 농산물 또는 특산물의 생산과 기타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하며, 2차 산업은 1차 산업 생산물의 제조와 가공의 단계를 의미한다. 3차 산업은 체험, 관광, 축제, 교육 등 1차와 2차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단계이며, 6차 산업은 지역과 추진 주체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단계를 융복합하여 ‘1×2×3, 1×2, 1×3, 2×3’의 융복합으로 진행하게 된다. 제주에서도 2014년 조례<sup>60)</sup>를 제정하여 농업인의 경영개

5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4.6.3.)

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에는 2023년 기준으로 총 163개소의 사업체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디렉토리북, 그림 46), 2015년 50개소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시작으로 한 해 평균 23개소의 신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안순화 외, 2020).



그림 46. 제주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현황(2023)

자료: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디렉토리북(pdf)

촌락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유연하고 분화된 형태의 새로운 체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주도 촌락 공간의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는 관광객의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면서 촌락의 새로운 상품이 되고 있다(그림 47). 초기 농촌관광의 형태였던 체험농원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직접 요리로 만들어보는 체험의 형태와 결합하고 있으며,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픈 주방, 교육장과 같은 형태의 시설이 촌락에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가공 상품의 제조를 위한 공장 시설이 건설되고,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판매가 가능한 판매장도 마련되고 있다. 이에 촌락의 경관

60)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14.4.21.)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17.12.29.)로 전부 개정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혼성화되고 있다. 반대로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촌락성의 실질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원래의 매력과 점점 거리가 먼 상업시설의 경관을 목도하며 ‘촌락스러운, 시골스러운’ 경험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박경철 외 역, 2016: 126).



그림 47.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운영

자료: (좌)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우) 프로젝트그룹 짓다 인스타그램

또한 촌락 주민들도 변화를 포착하고, 마을 내로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을 내 경관을 정비하며 농수산물 직판 시설과 휴게·상업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득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촌락사회로 하여금 “다수의 비농업 방문객에게 농업을 보여주는 무대감독의 능력을 갖추게 해줌으로써”(Holloway, 2004: 320), 촌락의 혼성화와 더불어 점차 촌락을 외부지향적으로 발전하게 한다(박경철 외 역, 2016: 260).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촌락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촌락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일부 목적이 있으며, 각 촌락 마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특산물 판매와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경관 개선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문순덕, 2021).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표 16)은 산림청에서는 1996년부터 산촌생태마을을 추진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하며 마을만들기는 주로 농산

어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마을만들기·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촌락공동체에게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이는 촌락 경관의 혼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촌락에는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게 되고 시설과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기획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맡기면서 공간은 유희화되고 일부 주민의 전유물이 되기도 하며, 촌락의 경관은 지역별 특이성을 잃고 매력을 잃게 된다.

한편 지원사업을 통한 촌락 지역의 경관 개선 사업은 촌락성을 가진 공간을 도시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혼성화의 경향을 갖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통의 재현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의 형식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여 촌락 경관의 혼성화를 가져온다. 도시적 문화에 대한 로망과 시골이라는 이미지의 극복을 위해 마을 카페, 농산물 판매장을 마련하기도 하나, 반대로 이미 현대화하여 다른 마을과의 경관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관을 다시금 복원하여 촌락성을 회복하고 외부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관으로 보이게 하겠다.

지금 다른 마을은 농산물 직거래 하는 데가 거의 다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었는데, 이제 OO항 근처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주차장 옆에다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면담참여자 사18F)



그림 48. 제주도 촌락 경관 혼성화(3)

표 16. 정부 부처별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사업

부처	사업명	추진년도
산림청	산촌생태마을(산촌종합개발사업)	1995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2002
행정안전부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시범사업	2001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001
	소도읍 육성사업	2003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2006
	희망마을만들기사업	2010
	마을기업 육성사업	2011
농림축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	2002
	전원마을조성사업	200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0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사업	2013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2013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15
	문화역사마을가꾸기	2004
	생활문화공동체 조성사업	2009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2010
환경부	문화마을 조성사업	2014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2010
	저탄소녹색마을사업	2010
문화재청	전통문화마을(시범문화마을)	2010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지원사업	2011
	새뜰마을지원사업	2015

주: 농어촌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정리함.

자료: 김향자(2011), 이명호(2016), 제주학연구센터(2020)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제주 한림읍 중산간 재릉지구에는 2011년 11월, 75만 4천 324㎡에 전체 934가구의 거주형 복합 리조트<sup>61)</sup>가 준공되었다. 기존에 밭과 과수원, 꽃자왈이 있던 곳을 개발하여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상업시설, 쇼핑을 위한 명품관, 골프장 등을 갖춘 대규모의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중산간에 완전히 새로운 경관이 만들어졌다. 또한 임야가 대지로 개발되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주변에 리조트와 타운하우스들이 동시에 건

61) 거주형 복합 리조트는 레저와 휴식의 기능을 갖춘 휴양시설을 말한다.

설되었다. 이는 제주의 세컨하우스 열풍, 국제학교 열풍 등의 이슈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 부동산 시장에 법인 회사, 이주민이 영향을 주면서 고가 주택, 국제학교 인근의 공동주택들이 인기를 끄는 등 제주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sup>62)</sup>. 한편 대규모 리조트와 타운하우스의 건설로 그 외곽에는 농경지에 폐자재를 버려놓은 곳도 있으며, 건설이 중단된 버려진 건물도 있어 경관의 양극화가 나타남과 동시에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곳과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 있어 경관의 혼성화가 나타난다(그림 49-1, 49-2).

사우어(Sauer, 1963)는 경관을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자연 경관은 문화 집단에 의해 문화경관으로 변형된다’고 하였다(진종현, 2013: 47, 재인용). 문화경관은 주민들의 생활양식, 공동체의 수행 그리고 생업활동의 결과물들에 사회적 맥락과 주민들의 사고 방식, 의미 등이 응집되어 만들어진다. 경관은 공간 속에 재현된 기호로 주민이 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주민은 타지역과 구별되는 감각적인 경관을 통해서도 지역에 대한 자부심, 장소 애착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박승규, 2013). 그렇지만 경관은 시각 및 촉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상화된 대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경관은 지표 위의 현상과 질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르페브르(Lefebvre, 1991)는 경관을 결과물이자 절대적인 공간으로 보는 시선을 경계하고, ‘경관은 읽혀지고 해석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를 가진 인간들이 자신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생산된다’고 하였다. 그는 경관을 인간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실제의 것이며 상대화되고 역사적인 것이라고 보았다(David et al., 2005; 이영민 외 역, 2011: 115, 재인용). 공간 내부에 있는 행위자에게 경관은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을 연구하는 외부자는 경관을 읽고 해석해야 하며, 또 경관에 재현된 다양한 의미들의 경합을 발견해야 한다.

경관은 외부 세계를 구조화하여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이기도 하다(Cosgrove, 1985; 진종현, 2013: 51, 재인용). 즉 경관은 토지의 외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토지를 바라보는 특수한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관에 대한

62) 해럴드경제, 2023년 7월 20일자, “서울·부산도 아닌 이곳 집한채가 53억?”…한라산 중턱 매매가 '경충', <https://v.daum.net/v/20230720152731798> (2023.12.06. 검색)

독해는 경관을 생성하는 주체들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사회적 맥락도 파악하는 방법이 된다.

제주도 촌락의 경관은 국가주도의 정책과 관광산업의 발달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슈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거단지의 개발 영향으로, 제주도 촌락의 경관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변화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들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각 공동체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촌락성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실천과 생성되는 의미도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촌락 주민들의 일상경관 또한 대부분 도시적인 특성이 유입되어 촌락의 외형은 도시적 특성과 촌락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1. 한림읍 중산간 경관 변화(2008)

자료: Daum지도(2023. 11. 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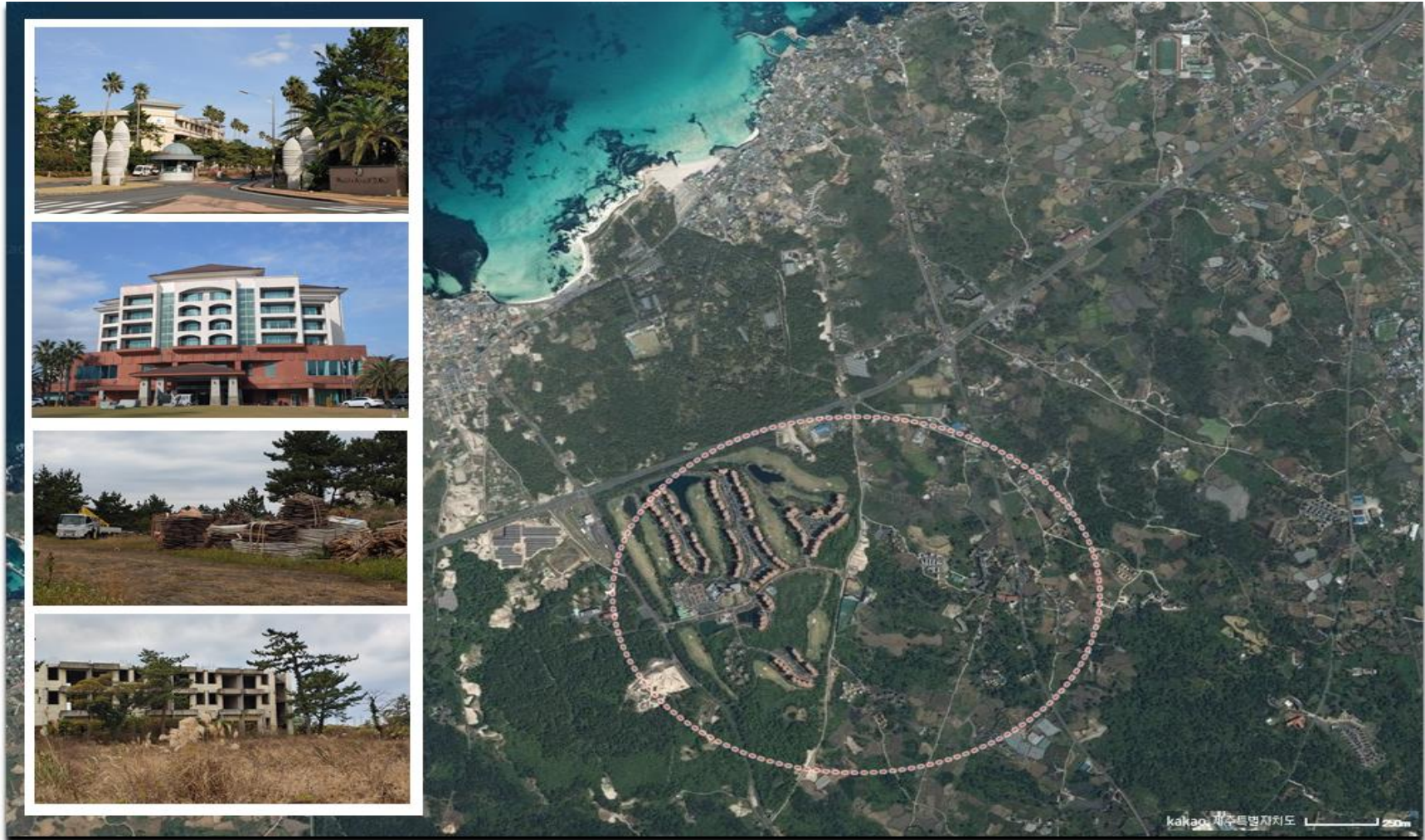


그림 49-2. 한림읍 중산간 경관 변화(2023)

자료: Daum지도(2023. 11. 20 검색)

##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촌락을 대상으로 하여 근대화 이후,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제주의 촌락 공간이 어떻게 혼성화 과정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문화적 선회 이후 서구에서는 촌락성이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고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 촌락지리 연구들은 아직 촌락의 개별 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촌락성 담론과 일반화의 연구가 점차 진행되는 추세에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촌락 연구의 동향과 제주도 촌락 연구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주도 촌락 공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지리적 한계와 존재적 특이성으로 다소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제주도 촌락을 대상으로 촌락·촌락공동체의 혼성화 과정을 살피고 재현되는 경관의 혼성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 촌락을 대상으로 하여 근대화 이후 변화상을 추적하고 제주도 촌락 공간은 혼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재현되는 경관 또한 혼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촌락 공간의 주 행위자인 사람의 이주를 통하여 제주도 촌락 주민 구성이 혼성화되는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둘째로 제주도 촌락의 자생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체에 의해 실천되는 역사적·사회문화적 수행, 촌락성의 수행이 어떠한 의미를 생산하며 공동체의 유지와 고유한 지역성 보존에 영향을 주는지 살폈다. 또한 수행에 필요한 소속감에 대해 고찰하고 이주민의 소속감 획득을 위한 시도를 제안하였다. 셋째로 제주도 촌락의 일상생활 경관과 공동체의 장소 변화를 확인하고 경관의 혼성화를 파악함으로써 제주도 촌락 공간의 혼성화를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글로벌화의 흐름 안에서 제주도 촌락공동체는 강력한 결합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독특성을 보인다. 동시에 글로벌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상황적으로 배제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제주도 촌락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촌락의 ‘뒤섞임·일시적 결합·연결상태(throwntogetherness)’를 촌락의 혼성화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촌락의 혼성화를 추동하는 한 요인은 인구의 이동이다. 인구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시에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산물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오랜 시간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공동체의 주요 해결 과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촌락공동체 주민의 감소는 생업 활동에서 투입되는 노동력의 감소이며 촌락 농가에게는 소득의 감소로 직접 연결되고 농업경영비 증가와 농가부채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한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업외소득에 대한 비중 증가를 야기하며 점차 농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제주도 촌락 공간은 2010년 이후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며 주민 구성이 혼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촌락에 대한 공간 인식이 변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는 형태로 사회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제주도로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유입도 증가하면서 제주도내에는 제주 태생의 주민, 타지역 출신의 내국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등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주민으로 혼재되었다. 인구의 유입은 제주도 촌락 공간의 성격을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다. 갈등이 전면에 드러나기도 했지만 수용과 포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마을의 오래된 향약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촌락공동체 안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를 경험하고 있던 구성원에 대해 새로운 시도도 가능케 하였다. 촌락의 먹거리 생산의 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점차 이들의 역할이 촌락의 성격을 촌락답게 유지할 수 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 근로자에 대해서도 촌락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주도 촌락 주민의 혼성화와 고령화로 촌락공동체의 주요 수행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민의 수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촌락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생단체의 조직에서 노인회원은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부녀회, 청년회의 회원 수 감소가 진행되며 촌락성의 실천이 가능한 촌락 주민 구성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촌락의 공동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각 자생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주민들은 공동체 수

행 경험을 통해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수행에 대해 전통의 유지와 보전이라는 기능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당위적이고 운명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촌락 공간의 혼성적 변화는 공동체의 수행 또한 점차 변화하게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형식이 점차 도시에 준하는 형태로 변화하기도 하고, 이주민에 의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 수행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공동체의 수행에 있어 소속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소속감의 강화는 도시에선 촌락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입장에서 적절할 기회가 없다는 획득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주민 간 의도적인 접촉과 정보의 공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수행, 특히 이타적인 실천을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하여 작게나마 공동체에 기여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소속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탐색하였다.

제주도 촌락의 경관은 개별적인 동시에 공동의 맥락 안에서 혼성화되고 있다.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촌락의 가옥 경관은 현대화 되고, 자연경관과 1차 산업 중심의 생업 경관은 토지 이용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도시적 경관이 혼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고령화로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과 환경은 정작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또한 감소하고 있어 정주민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공동체의 수행과 의미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경로당, 해녀탈의장, 그리고 주민에 의해 생성된 문화경관들을 탐색하였다. 공동체의 장소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수행에 따라 장소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며, 수행의 특징에 따라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윤색이 될 수도 있었다. 또한 장소에 대한 의미와 상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결속하게 하며 반면에 장소에 대한 정보의 단절은 외부의 행위자와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촌락의 경관은 촌락의 다각화라는 대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혼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촌락의 경관을 현대화, 도시화하며 또 한편으로는 촌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관을 재구성하는 양가적이며 혼성적인 경관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촌락의 경관 안에는 다분히 도시적 경관 요소들이 이미 자

리잡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촌락을 촌락스럽게 보이지 않게 하여 촌락성의 매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촌락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융복합산업과 마을만들기 등의 지원사업은 촌락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자리잡게 하여 경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관광객과 방문객의 외부 시선에 맞춰 비슷한 시설이 마련되면서 경관이 중복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제주도 촌락 공간은 2010년 이후 주민 구성에서, 공동체의 수행 측면에서, 경관의 재현에서 도시적 특성이 혼재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제주도 촌락 공간은 점차 혼성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고유의 촌락성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에는 도시적 특성의 인식과 재현을 수용하고 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인식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갈등과 배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도출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현장조사와 주민 면담을 통해 제주도 촌락의 혼성화 과정과 그 성격을 종합적, 구체적,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적·정치적·제도적 영향 안에서 제주도 촌락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나, 촌락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각 요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좀더 다양한 면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과 요소 간 관계를 충실히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개별 촌락에서 나타나는 변동의 양상에만 주목하여 변화의 요인이나 과정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촌락과 촌락 간, 촌락과 도시 간 관계에서 상호 비교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셋째, 촌락의 변화를 경험하는 주체를 선주민과 이주민으로만 한정된 아쉬움이 있다. 이주 근로자, 다문화, 여성, 그리고 비인간 성원까지 촌락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이 다양함에도 모두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모든 형태의 농촌을 하나의 연구에서 빠짐없이 분석하기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의 촌락을 사례로 하더라도 모든 면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한계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가 국내 촌락지리학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성기, 2011, “문화경관으로서 제주 발담의 의미 탐색”,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223-233.
- 강태원, 2021,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농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6.
- 고선영, 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관광”,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15-225.
- 고은솔·김순자·고영자·오경임, 2021, 위미2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 마을기록과 해녀문화/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53, 제주학연구센터.
- 고태호, 2022a,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가칭), 제주연구원.
- 고태호, 2022b, 제주도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대응 방안, 제주연구원.
- 구동회, 1998,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 수도권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구동회, 2004, “도시탈출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39(1), 102-115.
- 국승용·김재현·서동주·이형용·김종인·유찬희·김태훈·심재현·한이철·김상현·정대희·김성우·김동휘·엄진영·김상효·서대석·정학균, 2022, 2023년 10대 농정 이슈, KREI 농정포커스 제21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7,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 권상철·박경환·부혜진·전종한·정희선·조아라 역, 2014, 현대 촌락지리학: 촌락 재구조화의 과정, 반응, 경험, 시그마프레스.(M. Woods, 2005, *Rural Geography: Process, Responses and Experiences in Rural Restructuring*, SAGE Publications Ltd.)
- 김관철, 2022, “제주도 의귀리 마을지명의 변천 - 조선시대 이후 고문헌과 고

- 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4(2), 165-190.
- 김기혁, 2002, 농업·촌락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인문지리학, 대한민국학술원, 169-212.
-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19,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E. Relph, 1976, *Place and Placeness*, Pion Ltd.: London.)
- 김동훈·박혜진, 2023,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 21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석·김태완, 2020,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김상범, 2008, “촌락경관의 정주패턴과 공간구성 특성을 이용한 전통문화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제주도 중산간 『오름』 주변 촌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3(1), 15-30.
- 김순배, 2013, “지명의 문화 정치”,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449-495.
- 김순자·박동필·김선필·양지혜·강미선·김시은·고보경, 2020, 제주형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체 가치 정착 모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제주학연구센터.
- 김승완·김은홍·배요섭·사이·오은주·이국운·이담·이명훈·정은영, 2013,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3040 지식노동자들의 피로도시 탈출, 남해의 봄날.
- 김영수·정의홍·김우현·이성일, 2018, 로컬 브랜딩, 클라우드나인.
- 김은자·임창수·최진아·김상범·백미정·이유경·신경이·홍광우·김영래, 2014, 농촌 마을 걷는 길 조성 가이드라인, 국립농업과학원.
- 김일순·양정철·황경수, 2021, “마을자치와 제주 향약에 관한 연구 : 읍·면 지역 마을 향약의 리민의 자격·권리·의무규정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5, 199-232.
- 김종현, 2019, 기억 속의 제주: 1980년대 김종현의 시각, 전시 도록.
- 김태보, 1991, “제주도 종합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社會發展研究 7, 365-376.
- 김태완, 2021,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김향자, 2011,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정책사업 추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2,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 도지윤·서주환·여화선, 2016, “스토리텔링 기법에 의한 농촌만을 걷는 길 조성 에 관한 연구: 여주시 도리마을을 중심으로”,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5(2), 99-110.
- 류동민, 2014,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삶은 어떻게 소진되는가, 코난북스.
- 류석진·윤정구·조희정, 2020, 마을의 진화: 산골 마을 가미야마에서 만난 미래, 반비.(神田 誠司, 2018, 神山進化論: 人口減少を可能性に変えるまちづくり, 學芸出版社)
- 류제현, 1990, “호남평야에 있어서 지역구조의 식민지적 변용과정”, *지리학*, 42, 35-48.
- 류제현, 1996, “한국 문화·역사지리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55-267.
- 류제현, 2013, “문화지리학의 접근 방법”,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20-40.
- 모종린, 2020, 골목길 자본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는 어떻게 디자인되는가, 다산북스.
- 문선희·박덕병·김경희, 2010, “제주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농가민박 서비스품질 만족도 연구”, *농촌관광연구*, 17(1), 15-39.
- 문순덕, 2021, 제주 여성문화와 미래 문화유산, 학고방.
- 민경택·정호근·김명은·구자춘·김의경·이정민, 2013,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경철·허남혁·강마야·김종수·김찬규·송주연·장효안·최민영 역, 2016, 농촌: 지리학의 눈으로 보는 농촌의 삶, 장소 그리고 지속가능성, 도서출판 따비.(M. Woods, 2011, *Rural: Key Ideas in Geograph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박경환, 2017, “역도시화인가 촌락 젠트리피케이션인가?: 개념적 적합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87-107.
- 박경환, 2020, “촌락 재구조화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의”,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0(2), 1-26.
- 박경환·심승희·이재열 역, 2023, 경계넘기와 함께하기를 위한 사회지리학개론, (주)사회평론아카데미.(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2021, *Social Geographies: An Introduction*, The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Inc.)
- 박경환·윤희주, 2018, “촌락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공간적 특성 - 전남 담양군 전원주택단지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30(1), 49-77.
- 박경환·이영민·이용균, 2016, 공간을 위하여, 심산.(D. Massey, 2005, *For Space*, SAGE Publications of London)
- 박대식·남승희, 2015,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 농촌사회, 25(1), 41-87.
- 박삼옥, 2005, “한국의 지리학연구 60년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 창립60주년 기념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43-72.
- 박승규, 2013, “정체성, 인간이 공간에 새긴 흔적을 설명하다”,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120-151.
- 박우현 역, 2022, 로컬로 턴!: 저성장 시대를 건너는 법, 이숲.(内田樹, 2018, ロカリズム宣言: 「成長」から「定常」へ, Deco)
- 백창화·손은일·임성욱, 2018, “6차 산업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전략 방안”, 품질경영학회지, 46(2), 243-258.
- 부혜진, 2015,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26-241.
- 서우석, 1999, ‘앙리 르페브르가 바라본 공간’, 국토, 84-87.
- 성주인·김광선·심재현·한이철·서형주·정확성, 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손명철, 2021,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장소기반교육.” 제주도연구, 56,

115-135.

- 손태주·라해문·이해응, 2021,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송경언, 2002,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정문수·한이철·민경찬·정확성, 2021, 인구감소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성주인·심재현·한이철·민경찬, 2021,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20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성대, 2019,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각.
- 송오식, 2022, “마을공동체의 의의와 정책 과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종교문화학보, 19(1), 1-26.
- 송원규, 2020,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운동 다양화로 인한 긴장과 갈등”, 농촌사회, 30(2), 333-346.
- 송원섭, 2021, “제주문화경관에 대한 지리철학적 고찰 : 제주도 주거문화경관의 眞僞에 대하여”, 한국고지도연구, 13(2), 137-148.
- 송원섭·조철기, 2023, “제주도의 토착지식을 활용한 장소 기반 시민성교육 -제주도의 해녀와 전통주거문화경관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5(2), 59-75.
- 신지은·차철욱·차윤정·장세용·하용삼·박규택·공윤경·조관연·이은자, 2013,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연구총서 14, 소명출판.
- 신행철, 1995a, “제주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서의 성격과 그 변화”, 제주사회론, 105-132.
- 신행철, 1995b, “제주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제주사회론, 105-132.
- 심승희, 2013, “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81-119.
- 심재현·김광선·정문수·김용욱·민경찬·유은영·김민석·나현수·손경민·유서영, 2021,



-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심재현·민경찬,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확산, 농업전망 2023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순화 외 7명, 2020, 제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사)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양영자, 2007,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양지혜·고은솔, 202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주 마을의 ‘관계인구’ 형성 사례 연구 - 제주도 한림읍 귀덕1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5(1), 119-131.
- 엄은희, 2012, “변화하는 농촌성과 지역 귀농운동 조직의 대응: 부산귀농학교를 사례로”, 농촌사회, 22(1), 133-172.
- 에카르트 테게, 김상빈 역, 2018, 독일 지리학자가 담은 한국의 도시화와 풍경, (주)푸른길.
- 염미경, 2011,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제주도연구, 35, 1-38.
- 염미경, 2019, “제주 이주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대응”, 제주도연구, 51, 181-217.
- 오내원, 2020, ‘농업소득 감소를 다시 본다’, KREI 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2010년의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77-90.
- 오영선, 2003, 제주도 마을의 지명분포와 유래에 관한 연구 - 남제주군 안덕면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오홍석, 1975, 제주도 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홍석, 1985,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 오홍석, 1987, “제주도 취락연구의 동향과 과제”, 제주도연구, 4, 65-75.
- 옥한석, 1994, 향촌의 문화와 사회변동: 관동의 역사지리에 대한 이해, 한울아

- 카데미.
- 유찬희, 202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  
집중 GS&J, 제287호, GS&J 인스티튜트.
- 윤양수, 1991, “제주도 개발의 현황과 과제”, 社會發展研究 7, 353-364.
- 윤찬영·김동복·김선아·박산솔·배수용·안지혜·전충훈·조아신·최아름, 2020, 슬기  
로운 뉴 로컬생활: 서울 밖에서 답을 찾는 로컬 탐구 보고서, 스토어하  
우스.
- 윤형숙 역, 2007,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주)나  
남.(B. Anderson,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London UK)
- 이계임·김상호·정소영·안정욱·심환희·박인호, 2022, 2022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  
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상호·허성윤·신성용, 2020, 2020 농소모 활동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 이명현·강마야·안병일·장민기·서용석·송원규·문한필·임정빈, 2022, 신정부 농정,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까?, 시선집중 GS&J, 제299호, GS&J 인스  
티튜트.
- 이명호, 2016, “공동체의 위기와 복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향촌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9(1), 87-115.
- 이문중, 1996, “촌락지리학 50년(1945-1995)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13-254.
- 이상철, 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  
로”, 제주사회론, 273-311.
- 이상철, 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사회론 2, 99-136.
- 이성용·하창현, 2014, “제주지역의 인구이동과 지역구조변화 분석”, 국토계획,  
49(2), 41-53.
- 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역, 2011, 현대 문화지리학: 주요 개념의  
비판적 이해, 논형.(David A., Peter J., David S. and Neil W. (eds),  
2005,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London: I.B. Tauris)

- 이전, 2016, “제주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369-382.
- 이전, 2011, 촌락지리학: 인간의 정주 공간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 푸른길.
- 이정만, 2013, “한국 문화지리학의 과거와 현재”,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14-19.
- 이정환·권태진·김용택·김윤식·김태균·김태연·김한호·박성재·오현석·임정빈, 2017,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시선집중 GS&J, 제241호, GS&J 인스티튜트.
- 이차희, 2022,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 국토연구원.
- 이창기, 1991, “한국동족집단의 형성원리: 형성요인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창간호, 한국농촌사회학회, 39-59.
- 이해응·김준표·고승한·손태주, 2021, 제주지역 남성문화에 대한 기초 연구: 세대별 성 역할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혁재 역, 2020, 로컬 지향의 시대: 마을이 우리를 구한다, (주)알에이치코리아. (松永桂子, 2015, 로컬志向の時代 働き方、産業、經濟を考えるヒント, 光文社)
- 임소영·김태후·민선형, 2021,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KREI 현안분석 제8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하결, 2022, 도시 귀촌 청년들의 관계적 공간으로서의 촌락 - 경상남도 남해군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보웅, 1974, “제주도 민가의 연구”, 지리학, 10, 13-31.
- 장혜원·오상훈·최병길, 2017, “제주 가시리마을의 목축문화 기반 농촌 관광 창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4(1), 203-221.
- 전경수·한상복, 1996,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도연구, 13, 97-176.
- 전종한, 2005, “한국 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40(3), 353-368.
- 전종한·서민철·장의선·박승규, 2020, 인문지리학의 시선, (주)사회평론아카데미.

- 정광중, 1995, “일제시대 전매제하 인삼생산의 전개과정”, 문화역사지리, 7, 93-111.
- 정광중, 2013, “제주도 애월읍의 지리적 환경과 인구변화의 특징”,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3), 57-79.
- 정근식, 1991, 주민운동의 구조와 역학에 관한 비교 연구: 1980년대 전남지역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문수·심재현·김광선·유은영, 2022, 러번(Rurban) 지역 실태와 발전 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정암 역, 2015, 농촌 변화의 지리학: 상품화되는 일본의 농촌공간, 도서출판 한울.(田林明 編, 2013, 商品化する日本の農村空間, 農林統計出版)
- 정옥주·조아라·노영순, 2007, “전통적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주민참여 로컬 거버넌스 구축에 주는 함의: 한·일 비교 연구”, 문화역사지리, 19(3), 69-83.
- 정치영, 2007, “문화·역사지리학에서 지역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30(3), 63-89.
- 제주농촌융복합지원센터, 2023, 2023 제주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디렉토리북(PDF).
- 제주관광공사, 2021,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최종보고서 - 워케이션(Workation)(PDF).
- 제주도, 2006, 제주도지(전4권).
- 제주특별자치도, 2011, 통계연보(2010.12.31.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특별자치도지(전4권).
- 제주특별자치도, 2022, 제62회 제주통계연보(2021년 기준).
- 조아라, 2013, “관광지리, 사회문화적 접근”,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339-369.
- 진종현,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44-80.
- 진종현, 2016, “제주 오름에 대한 미학적 시선의 출현과 오름 ‘경관’의 형성”, 문화역사지리, 28(4), 1-14.
- 진종현, 2023, “제주를 보는 근대적 시선의 형성 - ‘낙원제주’ 담론에 대한 비판

- 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35(1), 49-68.
- 진현정, 2022, 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 소비 변화와 전망, 2022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 발표자료, 농촌진흥청.
- 최도형·최은지·이성우, 2021, “작목다각화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7(4), 1-12.
- 최병두, 1996, “한국의 사회·인구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68-294.
- 최병두, 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53(2), 149-172.
- 최운식 역, 2002, 인문지리학의 원리, 교학연구사.(P. Vidal de la Blache, 1921, *Principes de géographie humaine*, Editor Emmanuel de Martonne)
- 최재웅·김동엽·조록환·김미희·안옥선, 2012, “당(堂)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해안·중산간마을의 공간 특성 사례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2), 101-10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003,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논문집 제2집.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2013,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주)푸른길.
- 한유리 역, 2018,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 (주)피와이메이트.(John W. Creswell, 2015,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SAGE Publications Inc.)
- 한이철·이순미·정학성·박대식·안규미, 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주성, 2023, “농·산촌의 다원적 기능에 의한 지역 만들기-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인증사업체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8(1), 11-25.
- 한지은, 2013, “장소 기억의 정치”,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418-448.
- 행정안전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2022,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4호).
- Park Kyoungwan, 2005, “The Urban Spaces and Politics of Hybridity: Repoliticizing the Depoliticized Ethnicity in Los Angeles Koreatow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5), 473-490.

[국외문헌]

- Ahmed, G. and Durgham, A. S., 2019, "Variation in the Nature of the Activities, Interactions, and Behavior Patterns of Visitors of Public Spaces in the City of Amman: The New Abdali and Al-Balad Districts as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Economics Invention*, 5, 181-193.
- Best, S., 1989, "The commodification of reality and the reality of commodification: Jean Baudrillard and post-modernism.",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Studies* 5.
- Butler, R., 1998, "Rural recreation and tourism.", in B. Ilbery(ed.),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Longman: London.
- Cloke, P., 1993, "The Countryside as commodity: New rural spaces for leisure." in S. Glyptis(ed.), *Leisure and the Environment: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J. A. Patmore*, Belhaven Press: London.
- Clout, H. D., 1972, *Rural Geography: An Introductory Survey*, Belhaven Press: London.
- Halfacree, K., 2006. Rural space: constructing a three-fold architecture, *Handbook of Rural Studies*, 44-62(PDF).
- Ilbery, B. and Bowler, I., 1998, "From agricultural productivism to post-productivism.", in Ilbery(ed.),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Longman: London.
- Liepins, R., 2000, "Exploring rurality through 'community': discourses, practices and spaces shaping Australian and New Zealand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6(3), 325-341.
- Mackay, M., Perkins, H. C., and Espiner, S., 2009, *The Study of Rural Change from a Social Scientific Perspective*,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Parks, Recreation, Tourism and Sport Faculty of Environment, Society and Design: Lincoln University(PDF).
- Marsden, T., Murdoch, J., Lowe, P., Munton, R. and Flynn, A., 1993,

- Constructing the Countryside*, University College London Press: London.
- Masse,y D., 2004, “Geographies of Responsibility”,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6(1), 5-18.
- Murdoch, J. and Lowe, P., 2003, “The preservationist paradox: Modernism, environmentalism and the politics of spatial divis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8(3), 318-332.
- Nancy, M. and Kyungmi, K., 2004, “Motivation for Agri-Tourism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2), 161-170.
- Potter, C. and Burney, J., 2002, 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 in the WTO –legitimate non-trade concern or disguised protectionism?, *Journal of Rural Studies*, 18(1), 35-47.
- Sharpley, R. and Sharpley, J., 1997, *Rural Tourism: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London.
- Steger, M. B., 2003, *Globaliz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son, G. A., 2001, “From productivism to post-Productivism... and back again? Exploring the (un)changed natural and mental landscapes of European agricultur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6(1), 77-102.
- Woods, M. and Heley, J., 2017, *Conceptualisation of Rural-Urban Relations and Synergies*, ROBUST Project(PDF).
- Woods, M., 2011, *Rural: Key Ideas in Geograph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高橋誠, 1987, 近郊農村の地域社會變動, 古今書院.
- 菊地俊夫, 2008, 「地理學におけるルーラルツーリズム研究の展開と可能性 – フードツーリズムのフレームワークを 援用するために –」, 地理空間, 1, 32-52.

立川雅司, 2005, 「ポスト生産主義への移行と農村に対する「まなざし」の変容」, 『共通テーマ 消費される農村--ポスト生産主義下の「新たな農村問題」』, 41, 日本村落研究學會 編, 7-40.

石原潤, 2003, 農村空間の研究, 大明堂.

新井重三 編, 1995, 『實踐エコミュージアム入門-21世紀のまちおこし-』, 牧野出版.

[기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02.23.,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04.29.,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23.11.24. ‘직장인 10명 중 9명, ‘일하면서 노는’ 워케이션 참여 희망’.

여수시, 보도자료, 2021.12.28., ‘여수시 농어촌민박, 여수한옥체험관 ‘1등급 숙박’.

통계청, 보도자료, 2022.04.28.,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2021.10.19.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신문기사]

경향신문, 2023년 10월 17일자, 충북도, 겨울철 농촌인력 부족한 제주에 도시농부 파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171144001> (2023.10.05. 검색)

노컷뉴스, 2016년 10월 24일자, 백종원이 매입한 마을회 재산농고 주민 갈등, <https://www.nocutnews.co.kr/news/4673227> (2022.12.20. 검색)

뉴스1, 2023년 4월 17일자, 외국인 근로자 어디 없소?...일당 11만원에도 농촌 일손 '부족', <https://www.news1.kr/articles/?5017692> (2023.04.17. 검색)

뉴스제주, 2023년 7월 6일자, 귀농·귀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s://www>



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90577 (2023.11.29. 검색)

뉴시스, 2013년 1월 9일자, 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 국제학교 87세대 입주, <http://v.daum.net/v/20130109093815059> (2023.11.30. 검색)

뉴시스, 2023년 11월 23일자, 직장인 10명 중 9명, 일하면서 노는 '위케이션' 원한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3\\_0002532163&cID=13001&pID=130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3_0002532163&cID=13001&pID=13000) (2023.11.29. 검색)

미디어제주, 2022년 10월 5일자, 농촌인력이 부족할 땐? 농촌인력중개센터!,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476> (2023.10.05. 검색)

연합뉴스, 2011년 8월 3일자, 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 10월 말 준공, <https://v.daum.net/v/20110803155618393> (2023.11.30. 검색)

연합뉴스, 2011년 11월 14일자, 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 24일 개관, <https://v.daum.net/v/20111114171339092> (2023.11.30. 검색)

제주도민일보, 2022년 4월 28일자, 제주도,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해소 총력전,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89> (2023.10.05. 검색)

제주매일, 2023년 9월 26일자, 제주 농촌 인력 부족 해결 위해 농가소득 안정화 고민해야,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229> (2023.10.05. 검색)

제주의소리, 2023년 11월 7일자, 금악주민·천주교 “제주 중산간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반대” 반발,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831> (2023.11.8. 검색)

제주의소리, 2023년 12월 5일자, “제주에 오니 월급이 5배” 감귤 따는 외국인 달라진 농촌 풍경,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691> (2023.12.5. 검색)

제주환경일보, 2022년 4월 28일자, 제주도,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해소 총력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투입,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242> (2023.10.05. 검색)

한국농어민신문, 2015년 4월 17일자, 제주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제기능 못

- 한다,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37> (2023.10.05. 검색)
- 한국농어민신문, 2023년 2월 20일자, '제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19> (2023.11.29. 검색)
- 한국일보, 2022년 9월 14일자, 제주 인구 70만 명 시대 진입, 예측보다 7년 빨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415290003936?did=DA> (2022.09.15. 검색)
- 한라일보, 2019년 2월 11일자, 제주 농촌 인력 부족 4-6월·8-9월 더 심각하다, <https://www.ihalla.com/read.php3?aid=1549876005621173010> (2023.10.05. 검색)
- 헤럴드경제, 2023년 7월 20일자, “서울·부산도 아닌 이곳 집한채가 53억?”…한라산 중턱 매매가 '경충', <https://v.daum.net/v/20230720152731798> (2023.12.06. 검색)
- 헤드라인제주, 2021년 4월 5일자, “서귀포시, 초고령 사회 진입 앞두고 경로당 시설 확충”,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858> (2023.8.11. 검색)
- MBN, 2023년 11월 29일자, “제주에서 쉬면서 일하자”…제주 위케이션 참여자 1만 명 달해, <https://www.mbn.co.kr/news/society/4982582> (2023.11.29. 검색)
- The JoongAng, 2023년 12월 3일자, 낮엔 바다 보며 일하고, 밤엔 낚시 즐긴다…현실 된 '직장인 로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1883> (2023.12.04. 검색)

[웹사이트]

- 경북 경주 양동마을 <https://yangdong.invil.org/index.html>
- 공주시문화관광 <https://www.gongju.go.kr/tour/index.do>
- 구좌읍사무소 <https://www.jejusi.go.kr/town/gujwa.do>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kor/main.do>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  
 귀덕향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gwideok2020>  
 그린대로 <https://www.greendaero.go.kr/>  
 남원읍사무소 <https://www.seogwipo.go.kr/local/namwon/main.htm>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https://www.naas.go.kr/naas\\_index.do](https://www.naas.go.kr/naas_index.do)  
 농촌진흥청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대정읍사무소 <https://www.seogwipo.go.kr/local/daejeong/main.htm>  
 성산읍사무소 <https://www.seogwipo.go.kr/local/seongsan/main.htm>  
 안덕면사무소 <https://www.seogwipo.go.kr/local/andeok/main.htm>  
 안동하회마을 <http://www.hahoe.or.kr/coding/main.asp>  
 애월읍사무소 <https://www.jejusi.go.kr/town/aewol.do>  
 여수시 <https://www.yeosu.go.kr/www>  
 우도면사무소 <https://www.jejusi.go.kr/town/udo.do>  
 인천관광공사 <https://www.ito.or.kr/main/>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 <http://www.제주6차산업.com>  
 제주올레 <https://www.jejuolle.org/jejuolle>  
 제주올레트레일 <https://www.jejuolle.org/trail>  
 제주워크이션 <https://www.jejuworkation.or.kr/>  
 제주통계포털 <https://www.jeju.go.kr/stats/index.htm>  
 조천읍사무소 <https://www.jejusi.go.kr/town/jocheon.do>  
 추자면사무소 <https://www.jejusi.go.kr/town/chuja.do>  
 표선면사무소 <https://www.seogwipo.go.kr/local/pyoseon/main.htm>  
 한경면사무소 <https://www.jejusi.go.kr/town/hankyung.d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krei/index.do>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  
 한림읍사무소 <https://www.jejusi.go.kr/town/hanlim.do>  
 행정안전부 <https://mois.go.kr/frt/a01/frtMain.do>  
 ROBUST <https://rural-urban.eu/>

V-WORLD 디지털 트윈국토 [https://www.vworld.kr/dtpo/dtpo\\_main.do](https://www.vworld.kr/dtpo/dtpo_main.do)

[부록] 주민 면담 질문지

**주민 면담 질문지**

면담을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확인용 질문지를 드립니다.

- 실제 면담 때에는 구술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면담의 내용은 양지혜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면담 내용 이용 시에 익명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는 기호로 표기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서 작성 시에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성함과 출생년도, 해당 마을 거주 또는 이주 몇 년차이십니까?

1-1. 제주도로 이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1-2. 제주의 마을 중 현재 마을로 이주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2. 마을 주민들과 교류가 있으십니까? [있다 / 없다]

2-1. 있다면 어느 정도로 교류가 있으십니까? [인사 정도 / 부녀회 활동 등]

2-2.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다 / 필요하지 않다 등]

3. 마을 행사(신년하례, 체육대회, 정기총회, 포제, 축제 등)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 / 없다]

3-1.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참여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 일이므로 / 이장의 초대로 / 청년회 활동으로 / 안내문을 보고 등]

3-2. 참여하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다 / 어떤 행사가 있는지 모른다 / 굳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 등]

4.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을 찾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 / 없다]
- 4-1. 있으시다면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에서 어떤 용무를 보셨습니까?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마을총회 및 회의 참석 / 리세 납부 / 행정 도움 등]
- 4-2. 찾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어떠한 서비스나 기능을 기대하십니까? [기능을 모른다 / 찾을 일이 없다 / 이동민원실 기능 등]
5. 마을의 생활서비스 · 문화향유 환경(예. 마트, 목욕탕, 병의원, 약국,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등)에는 만족하십니까? [만족 / 불만족]
- 5-1.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특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서비스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리가 멀다 / 시설의 수가 적다 등]
- 5-2.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시골 또는 촌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골 또는 촌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2010년 이후 (또는 이주 초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생활하시는 일상경관이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도로가 확장되었다 / 카페가 많이 생겼다 / 숙박업이 많아졌다 / 빈 집이 많아졌다 등]
7. 현 거주하시는 마을에 주민 구성은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노인이 많아졌다 / 젊은 사람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 / 영유아가 없다 / 이주민이 많아졌다 등]
8. 현 거주하시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마을사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참여 또는 참여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 없다]
- 8-1. 마을사업 등에 참여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8-2. 마을사업 등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다 / 없다]

9-1. 있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득 기회가 없다 / 의뢰서비스가 부족하다 등]

9-2. 이사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향이므로 / 수도권은 복잡하므로 / 다른 곳도 비슷하므로 등]

10. 다음의 질문에 대해 0-10점까지 점수를 주시고 간단하게 응답해주시시오.

10-1.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나는 OO리 사람이다.” (     점)

10-2.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나는 제주도 사람이다. 제주도민이다.” (     점)

[종료]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면담·구술 자료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서**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면담에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면담은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학위 연구를 위해 진행합니다.  
연구 주제는 ‘제주 촌락 지역의 주민 구성 / 공동체 수행(활동) / 경관 변화’입니다.  
본 면담을 통하여 제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지,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소의 경험과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사항]

- 수집하는 면담 및 구술 자료는 연구 및 학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구술자(면담대상자)의 성명, 생년 및 구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 본문에서 구술자의 구분은 기호화하여 표현됩니다.
- 면담 및 구술 자료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은 면담 및 구술자료 조사수집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며,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면담·구술 자료의 수집 및 이용 동의】**

1. 면담 및 구술의 녹음, 녹취록 제작에 동의한다.
2. 면담 및 구술 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를 연구자(양지혜)에게 이양한다.
3. 면담 및 구술 자료는 연구 및 학술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을 포함한 기타 출판물로 출판할 수 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A Study on Hybridization in the Rural Spaces of Jeju Island

## : Focused on Post-2010 Transformations

Yang, Ji-hye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Modern global rural communities are experiencing internal and external stimuli, undergoing dynamic changes. However, these changes unfold not in a uniform manner but rather in a way that blends the region's uniqueness with new form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global rural communities, the transformation patterns in the rural spaces of Jeju Island have been observed to maintain their uniqueness while accommodating and reconciling chang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in Jeju Island's rural spaces since 2010 and attempts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s in these spaces as hybrid changes.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changes in Jeju Island's rural spaces from three aspects: the composition of residents, community practices, and the landscape. Firstly, it explored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diverse individuals and networks blending within rural spaces through the migration of people within these areas. Secondly, it investigated the practices of rural communities in Jeju Island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indigenous organizations, the historical, cultural, and modern practices carried out by the community, capturing their significance. Thirdly, it tracked the visible and invisible changes in the rural spaces through the reproduced

landscape.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e rapid influx of population with diverse identities into Jeju Island's rural spaces since 2010. These individuals and networks have blended within rural spaces by introducing urban features, inducing natural,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changes within these spaces. While conflicts have emerged in some areas, discussions initiating acceptance and inclusivity of changes within the rural areas have begun, depicting the experience of rural spaces undergoing hybrid transformations.

However, the aging and reduction of residents within Jeju Island's rural spaces imply a decline in available members to carry out rural practices, triggering changes in these practices. Rural communities engage in various communal practices in their daily lives, where each member gains a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ty by participating in indigenous organizations. As perceptions change and the composition of residents becomes more diverse, rural space practices gradually embrace urban forms, relaxing traditional structures. Moreover, new forms of communal practices emerge, showcasing hybridization within community practices.

The landscape of Jeju Island's rural areas is undergoing hybridization processes in response to internal and external demands for diversification. The daily rural landscapes are undergoing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while landscapes intended for tourism maintain a strong sense of uniqueness. Simultaneously, large-scale developments are altering land usage, leading to a reduction in natural landscapes representing the rural identity of Jeju Island.

Since 2010, rural spaces in Jeju Island have been experiencing changes that blend urban characteristics in terms of resident composition, community practices, and landscape representation, evolving into hybrid spaces. While maintaining the uniqueness of Jeju Island's rural areas, some regions are seen as hybrid rural spaces that compromise by accepting urban perceptions and methods, adapting to the changing times, blending temporarily and intricately.

This paper aimed to trace the changes in Jeju Island's rural spaces,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ir nature.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approaching the changes in rural spaces through concrete and contextual methods via field surveys and resident interview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energizing discussions and research in domestic rural geography.

**Keyword:** Jeju Island, Jeju Island rural areas, hybridization, post-2010.